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김남희 · 이수정 · 류지은 · 이상훈 · 박미희 · 임해경 · 홍선이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 R I V E T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김 남 희(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 수 정(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 지 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 상 훈(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 미 희(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임 해 경(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홍 선 이(한국직업능력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 R I V E T

본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025년도에 작성하여 제공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김남희)이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www.krivet.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 리 말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등 직업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우리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업교육 활동의 위축과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한동안 낮아졌던 진학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로 인해 진학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기도 하다. 매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를 통해 진학률이 발표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대학 진학을 선택하며, 대학 진학을 통해 어떤 경로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김남희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우리 원의 이수정 선임연구위원, 류지은 연구위원, 이상훈 연구위원, 박미희 부연구위원 및 임해경 부연구위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1장, 제2장 및 제6장은 김남희 연구위원이 책임 집필을 하였으며, 제2장 일부는 이수정 선임연구위원이, 제3장은 류지은 연구위원이, 제4장은 임해경 부연구위원이, 제5장은 박미희 부연구위원이, 제6장 일부는 이상훈 연구위원이 각각 집필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 및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의 과정에서 직업계고 졸업자, 학계 관계자, 현장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었다. 특히 본 연구 면담에 참여하여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 준 16명의 직업계고 졸업자 학생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정책 수요자의 세심한 의견이

있었기에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직업교육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으로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25년 1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 혜 원

제목 차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8
제3절 용어의 정의	13

제2장 주요 개념과 정책 탐색_15

제1절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의미, 위치, 관계	17
제2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제도	25
제3절 해외 주요 국가 사례	3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48

제3장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현황과 유형_51

제1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현황	53
제2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경로 유형	6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6

제4장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동기와 의미 탐색_101

제1절 면담 개요	103
제2절 대학 진학 동기	112
제3절 대학 진학에서 나타난 특징	11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26

제5장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유형별 특성 분석_131

제1절 조사 개요	133
제2절 조사 결과	14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76

제6장 결론 및 주요 과제_181

제1절 결론	183
제2절 주요 과제 제언	193

SUMMARY_227

참고문헌_229

부록_241

1. 설문조사지	243
----------------	-----

표 차례

〈표 1-1〉 전문가 협의회, 정책 협의회 및 정책 세미나 참석자	12
〈표 2-1〉 대학의 기능 분화	20
〈표 2-2〉 특성화고 등 동일계열 특별전형 선발 비율의 변화	28
〈표 2-3〉 계약학과 유형별 세부 프로세스(학습자 관점)	35
〈표 2-4〉 직업계고 대상 고등교육 연계 제도 요약	37
〈표 2-5〉 싱가포르 기술교육원 교육과정 유형	40
〈표 2-6〉 일본 일부 대학의 입학 전형 사례(2025~2026 입학전형 기준) ·	43
〈표 2-7〉 독일의 교육 경로	47
〈표 3-1〉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55
〈표 3-2〉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57
〈표 3-3〉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58
〈표 3-4〉 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60
〈표 3-5〉 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61
〈표 3-6〉 일반대학 유형별 입학생 중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현황	62
〈표 3-7〉 대학 소재 지역별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현황	63
〈표 3-8〉 전문대학 유형별 입학생 중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현황	64
〈표 3-9〉 전문대학 소재 지역별 직업계고 출신 입학생 현황	65
〈표 3-10〉 대학/전문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등록 인원 현황	66
〈표 3-11〉 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 등록 인원(추정) 현황 ·	67

〈표 3-12〉 직업계고 졸업 이후의 입학자 규모(추정)	68
〈표 3-13〉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목록	70
〈표 3-14〉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71
〈표 3-15〉 진학 및 취업 채널 시퀀스 입력 방식	74
〈표 3-16〉 진학 및 취업 채널별 상위 시퀀스 빈도표	76
〈표 3-17〉 진학 및 취업 채널별 상태 평균 지속기간	77
〈표 3-18〉 ‘미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79
〈표 3-19〉 ‘전공일치 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82
〈표 3-20〉 ‘전공불일치 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85
〈표 3-21〉 ‘선취업-후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88
〈표 3-22〉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91
〈표 3-23〉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유형 분석 요약	94
〈표 4-1〉 면담 대상자 추출 틀	105
〈표 4-2〉 일반 진학 경로 면담 참여자의 특징	106
〈표 4-3〉 선취업 후진학 경로 면담 참여자의 특징	108
〈표 4-4〉 면담 질문지	110
〈표 4-5〉 면담 결과 요약	126
〈표 5-1〉 표집 층화 유형별 예상 모집단 수 및 목표 표본	134
〈표 5-2〉 조사 문항 개요	136
〈표 5-3〉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	139
〈표 5-4〉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	140
〈표 5-5〉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3)	141

〈표 5-6〉 고교 교육 경험과 진학 유형별 특성 차이	143
〈표 5-7〉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진학 결정 시기	144
〈표 5-8〉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진학 이유(1순위 응답)	145
〈표 5-9〉 선취업 후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선택 이유(1순위)	146
〈표 5-10〉 선취업 후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전공 선택 이유	147
〈표 5-11〉 각 요소별 대학 입학 시 영향력(선취업 후진학 유형)	149
〈표 5-12〉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학업 경험 평가	150
〈표 5-13〉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1)	152
〈표 5-14〉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2)	153
〈표 5-15〉 선취업 후진학자의 정책 요구도(1)	155
〈표 5-16〉 선취업 후진학자의 정책 요구도(2)	156
〈표 5-17〉 일반 진학자의 대학 진학 준비 시기	157
〈표 5-18〉 졸업 이후 대학 진학 준비 이유(1순위)	157
〈표 5-19〉 고교 재학 중 대학 진학 준비 이유(1순위)	158
〈표 5-20〉 일반 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선택 이유(1순위)	159
〈표 5-21〉 일반대학 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전공 선택 이유	161
〈표 5-22〉 전문대학 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전공 선택 이유	163
〈표 5-23〉 각 요소별 대학 입학 시 영향력(일반진학-일반대학 유형) ·	165
〈표 5-24〉 각 요소별 대학 입학 시 영향력(일반진학-전문대학 유형) ·	166
〈표 5-25〉 일반대학 진학자의 대학 학업 경험 평가	167
〈표 5-26〉 전문대학 진학자의 대학 학업 경험 평가	169
〈표 5-27〉 일반대학 진학자의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170
〈표 5-28〉 전문대학 진학자의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171
〈표 5-29〉 일반대학 진학자의 정책 요구도	173

〈표 5-30〉 전문대학 진학자의 정책 요구도	175
〈표 6-1〉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유형별 주요 특징	187
〈표 6-2〉 K대학의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 현황 (2026학년도 기준)	195
〈표 6-3〉 H대학의 계약학과, 일학습병행,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현황 (2026학년도)	196
〈표 6-4〉 후진학 제도 개선(안)	198
〈표 6-5〉 A대학의 2025학년도 특성화고 등 졸업생 대상 동일계열 특별전형 기준학과	199
〈표 6-6〉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200
〈표 6-7〉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개정(안)(1)	201
〈표 6-8〉 학교생활기록부 구성 항목 및 대입 전형 반영 여부	202
〈표 6-9〉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개정(안)(2)	203
〈표 6-10〉 전문대학의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위한 특별전형 모집 현황 ·	205
〈표 6-11〉 전문대학 진학 전형 개선(안)	208
〈표 6-12〉 후진학자를 위한 대학 학사 운영 지침(안)	210
〈표 6-13〉 광주·전남 지역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 대학 현황	212
〈표 6-14〉 K-MOOC를 활용한 브리지 단계	215
〈표 6-15〉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과 관련된 지원 기구	217
〈표 6-16〉 직업계고 (졸업자) 지원센터 역할(안)	219
〈표 6-17〉 G고등학교의 미디어메이크업아티스트과 교육과정	221
〈표 6-18〉 직업계고 학년별, 학기별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편성 학점(평균)	224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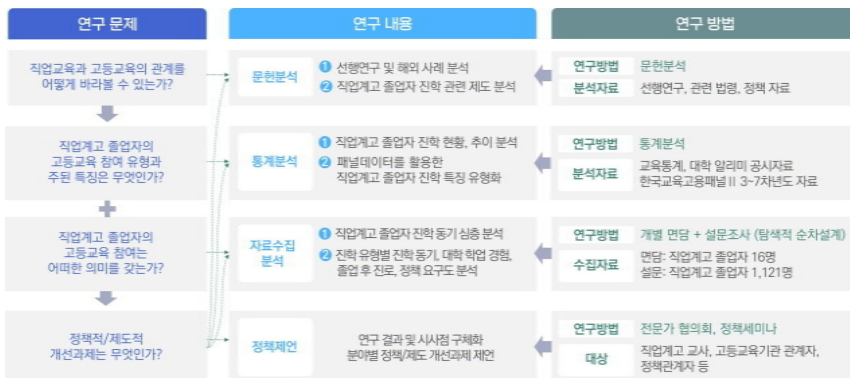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7
[그림 2-1]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관계	24
[그림 2-2] 중소기업 기술사관 운영 형태	33
[그림 3-1]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추이	54
[그림 3-2] 학교 유형별 진학률 추이	56
[그림 3-3] 지역별 진학률 추이	59
[그림 3-4] '미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81
[그림 3-5] '전공일치 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84
[그림 3-6] '전공불일치 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87
[그림 3-7] '선취업-후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90
[그림 3-8]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93
[그림 3-9] 학교 유형별 진학 유형 비중	95
[그림 6-1]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 과제 간의 관계	194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 현상이 보편화되고 인구 구조, 일자리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선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고졸 취업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등교육 참여 유형과 진학 동기 및 진학 과정의 주된 특징을 분석하여 현재의 높아진 진학률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고, 향후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정책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문제와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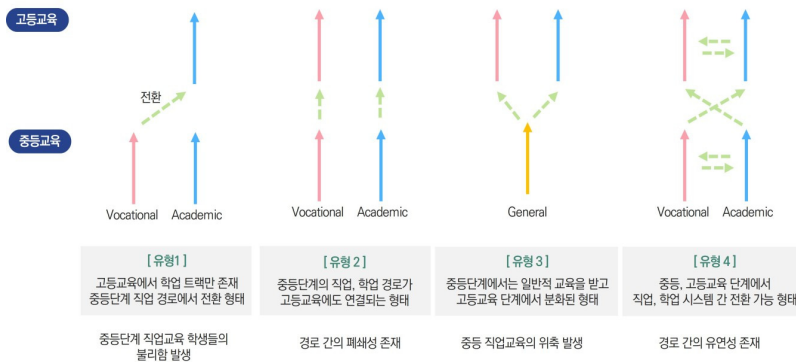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2. 주요 개념과 정책 탐색

중등 직업교육 관점에서 고등교육은 수직적 연계를 통해 숙련 수준을 심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반면, 고등교육 관점에서 직업교육은 고등교육에 진입한 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고등교육기관을 학문적 기능과 직업적 기능으로 분화하면서도 동일 기관 내에서 그 경계를 모호하게 공존시키는 형태로 접근하기도 한다.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관계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관계



자료: CEDEFOP(n.d.) p.25 내용을 연구자가 수정·보완함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제도는 크게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동일 계열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직업계고와 전문 대학을 연계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중소기업 기술사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후학습 제도로써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재교육형 계약학과 등이 운영되고 있다.

〈표 2〉 직업계고 대상 고등교육 연계 제도 요약

구분	동일계열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P-TECH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도입시기	2004 ~	2010 ~	2017 ~
운영방식	대학의 선발 전공과 동일계열 고교 전공 졸업자를 대학에서 선발함	직업계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을 쌓은 자를 대학에서 선발함	직업계고 졸업 후 학습기업에 취업하여 협약된 대학에 입학함
교육과정	대학 학과별 교육과정	대학 학과별 교육과정 (별도의 학과 운영)	NCS 기반 훈련과정, 대학 및 일터에서 이수
대상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마이스터고 제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대학유형	일반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관련부처	교육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구분	중소기업 기술사관	재교육형 계약학과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근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시행령
도입시기	2009 ~	2003 ~	2007 ~
운영방식	직업계고 졸업 후 협약된 전문대학에 입학하며, 대학 2학년부터 일을 병행함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하여 10개월 이상 재직하며 협약된 대학에 입학함	요건에 맞는 성인학습자를 대학에서 선발함 (자기소개서 등을 활용)
교육과정	고교-전문대학 간 전공 연계형 교육과정	기업체 요구 맞춤형 교육과정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교육과정
대상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재학생	해당 산업체 재직 근로자	(전문대학) 만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2년 이상 (일반대학) 만 30세 이상
대학유형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비수도권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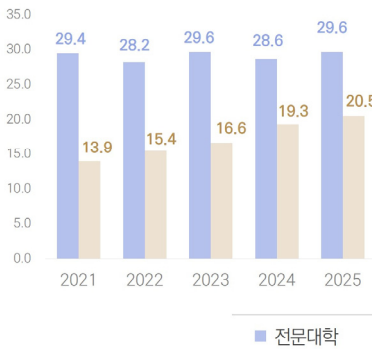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3.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현황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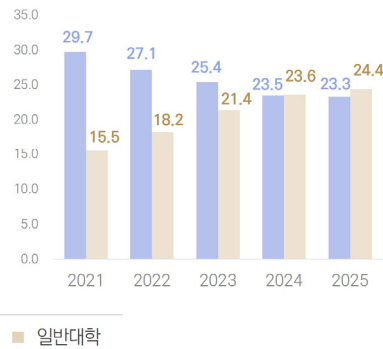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주요 분석으로서 교육통계 자료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반대학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 진학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수도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로 일반대학 진학의 문턱이 과거 보다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 수도권-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 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



〈 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



자료: 〈표 3-4〉, 〈표 3-5〉 참조

둘째, 수도권 일반대학의 경우 비수도권 일반대학에 비해 재직자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입학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직업계고 졸업자들에게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학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표 3〉 일반대학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와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수

(단위: 명, %)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수
2022	6,916	2,933 (42.4)	16,477	1,252 (7.6)
2023	7,415	3,025 (40.8)	17,752	1,236 (7.0)
2024	7,858	3,552 (45.2)	18,623	916 (4.9)
2025	7,874	3,578 (45.4)	18,358	870 (4.7)

자료: 대학알리미(2022~2025).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대학/전문대학)(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25. 9. 1.)

주)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함

두 번째 분석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 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 2월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 1,930명을 대상으로 시퀀스 분석 및 군집 분석을 통해 졸업 이후 60개월간의 진학 및 취업 상태 변화를 살펴보고 진학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총 5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유형 분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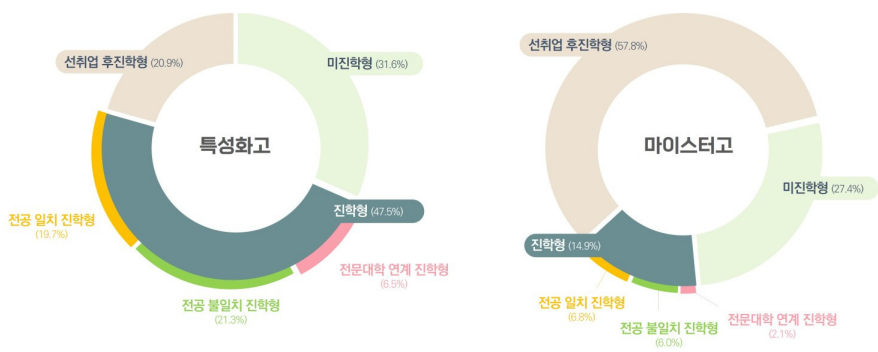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미진학형	전공일치 진학형	전공불일치 진학형	선취업 후진학형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
비중	585명 (30.3%)	305명 (15.8%)	322명 (16.7%)	619명 (32.1%)	99명 (5.1%)
진학	▶ 졸업 후 60개월간 미진학 상태가 지배적	▶ 고교 전공일치 일반대학, 전문대학 진학이 지배적 ▶ 휴학 기간이 길게 나타남	▶ 고교 전공불일치 일반대학, 전문대학 진학이 지배적	▶ 졸업 후 36개월 이후부터 진학 상태 등장 ▶ 전문대학보다 일반대학 진학이 지배적	▶ 졸업 직후 전공일치 전문대학으로 진학 ▶ 전문대학 학업 기간이 길게 나타남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미진학형	전공일치 진학형	전공불일치 진학형	선취업 후진학형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
취업	▶ 졸업 직후는 미취업 상태 ▶ 시간이 지난 후 고교 전공 일치/불일치 상용직으로 진입	▶ 대부분 졸업 직후 미취업 상태 ▶ 대학 진학 중 군 휴학 등 긴 휴학 발생	▶ 대부분 졸업 직후 미취업 상태 ▶ 서서히 전공일치 상용직 취업 상태가 증가	▶ 고교 졸업 직후 전공일치 상용직으로의 이행이 뚜렷 ▶ 군복무 시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이르게 나타남	▶ 전문대학 졸업 학기 전후로 전공일치 상용직, 전공불일치 상용직의 취업 상태가 나타남

자료: 연구자 작성

5개 유형에 분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수를 토대로 학교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 특성화고는 전반적으로 진학형의 세 가지 하위 유형에 속한 학생 비율이 높았던 반면, 마이스터고는 선취업 후진학형에 속한 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학교 유형별 진학 유형 비중



자료: <표 3>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4.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진학 동기와 특징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등교육 참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면담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일반 진학자(일반대학, 전문대학) 9명과 선취업 후진학자(일반대학, 전문대학) 7명을 표집하여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전 연구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동기와 전공 선택의 배경, 현재 대학 생활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인식, 향후 진로 계획 등을 확인하였으며, 면담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면담 결과 요약

구분	일반 진학자	선취업 후진학자
진학 동기	- 고졸 취업의 한계 인식 - 졸업 시점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적으로 선택 - 고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선택	- 대학 진학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차별 경험 - 자격 취득, 이직 등 향후의 경력개발 목적 - 후진학에 대한 제도적 기회
진학 특징	- 동일계열 진학 시 전공 공부에 강점으로 작용 - 기초 학문 분야(예: 수학, 과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음 - 진학 후 인식과 시야 확장에 긍정적 의미 부여 - 졸업 후 다양한 진로 고민	- 전공 선택의 폭이 좁음 - 학업 공백기로 인한 어려움과 기초 학문 분야(예: 수학, 과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음 - 일 경험을 바탕으로 심화된 배움의 기회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 - 진로 불확실성이 낮고 안정적인

자료: 연구자 작성

5. 직업계고 졸업자의 특성과 대학 교육 경험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교 교육 경험과 진학 유형별 특성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6〉 고교 교육 경험과 진학 유형별 특성 차이

(단위: 명, %, 점, 개)

구분	선취업 후진학 (n=387)	일반 진학		통계적 검증
		일반대학 (n=347)	전문대학 (n=387)	
중학교 성적	상위권~중상위권	258(66.7)	163(47.0)	113(29.2)
	중위권	92(23.8)	98(28.2)	151(39.0)
	중하위권~하위권	37(9.6)	86(24.8)	123(31.8)
고교 전공 선택	적성/흥미	238(61.5)	219(63.1)	228(58.9)
	주변 추천	23(5.9)	25(7.2)	34(8.8)
	취업 고려	102(26.4)	72(20.7)	95(24.5)
	진학 고려	8(2.1)	13(3.7)	15(3.9)
	기타	16(4.1)	18(5.2)	15(3.9)
고교 전공 적성		3.87	3.59	3.63
				$F = 9.261^{***}$ (1 > 2, 3)
고교 시절 진로 준비	취업	307(79.3)	185(53.3)	221(57.1)
	진학	39(10.1)	117(33.7)	110(28.4)
	기타/미결정	41(10.6)	45(13.0)	56(14.5)
고교 시절 교육 활동 참여		8.9	7.8	7.7
				$F = 37.596^{***}$ (1 > 2, 3)
전문교과 성적	상위권~중상위권	323(83.5)	263(75.8)	214(55.3)
	중위권	41(10.6)	56(16.1)	84(21.7)
	중하위권~하위권	23(5.9)	28(8.1)	89(23.0)
보통교과 성적	상위권~중상위권	241(62.3)	217(62.5)	144(37.2)
	중위권	102(26.4)	85(24.5)	145(37.5)
	중하위권~하위권	44(11.4)	45(13.0)	98(25.3)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 $p < .05$, ** $p < .01$, *** $p < .001$

6. 결론 및 주요 과제

가. 결론

본 연구는 직업계고가 가지는 직업교육적 특성을 강화하되, 진학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경로를 열어두자는 관점을 취한다. 고교 졸업 이후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진로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업계고 졸업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졸업 시점에서의 취업이나 진학이냐의 논쟁을 벗어나, 직업계고가 ‘직업교육’의 본질적 성격을 살린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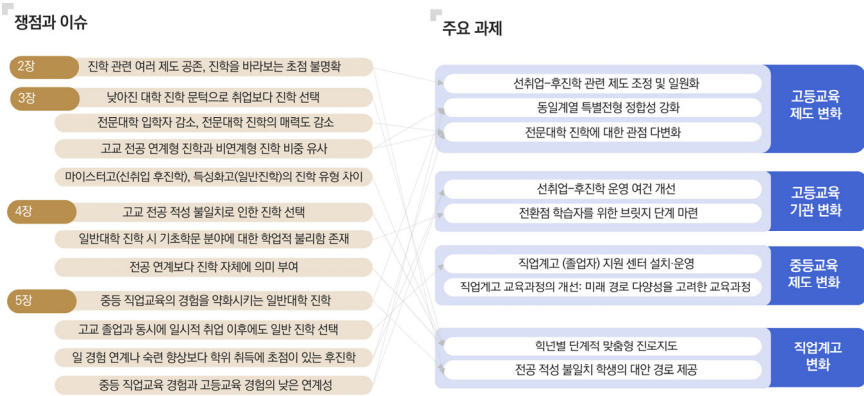
또 한편으로 교육 정책 전반의 관점에서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경로를 폐쇄적으로, 즉 중등 직업교육(직업계고) → 고등 직업교육(전문 대학 또는 폴리텍대학)으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보다 유연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중등-고등교육 간 전공 연계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 간 강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진학은 오히려 경로의 폐쇄성을 높여 교육 수요자들의 선호를 얻기 힘들 수 있다.

끝으로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체제의 특수성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 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제도를 연계·조정할 필요가 있다. 직업 계고 학생들이 경험한 직업교육적 활동이 대학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접목될 때 새로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선발 과정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복잡하게 분산된 후학습 경로는 일원화하고 후학습으로 제공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은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과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단계에서 도출된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9개 분야로 개선 과제를 제언하였다.

[그림 5] 주요 과제 제언 내용



자료: 연구자 작성

주제어	직업계고 졸업자(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대학 진학(Going to University/College)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용어의 정의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 현상이 보편화되고 인구 구조, 일자리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선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고졸 취업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다(표 3-1) 참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진학하는 대학 유형이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학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선취업 후진학의 경로보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¹⁾으로 곧바로 진학하는 경향성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 경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진입 경로를 다양하게 열어주는 것은 직업교육의 매력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언급

1)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 진학'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인) 고등교육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교육기관을 교육 단계와 수준으로 이해해 온 경향이 강했다(예: 중·고등학교 = 중등교육, 대학 = 고등교육).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참여를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았다.

4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되기도 한다(OECD, 2022).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들이 고교의 전공과 동일한 계열의 대학 전공으로 입학할 수 있는 동일계열 특별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참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현장의 인력을 공급하는 관점에서 직업교육이 급속도로 성장해 왔고, 2010년대 이후에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추진해 오며 따라 여전히 직업계고 교육의 성과를 '취업률'이라는 지표에 빗대어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취업률과 진학률을 반대급부로 놓고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높아질 때마다 중등 직업교육의 정체성이나 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곤 한다(김지영, 2023). 우리나라의 이러한 관행은 직업교육을 통해 성취 경험을 얻고 학습 역량을 회복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외 연구들과는 사뭇 대조된다(Barber & Netherton, 2018).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상을 결과론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일반고 교육과 직업계고 교육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현재의 진학 현상은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동일계열 특별전형을 통해 일반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는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이 모두 가능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연도별 입학생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들을 동일계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은 특성화고 졸업생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은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동일계열 특별전형 이외에도 다양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환경, 고교 단계에서의 전공

적성 불일치, 주위의 권유(김흥기 외, 2017; 전홍주 외, 2018) 등이 꼽히는데, 이와 더불어 사회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입학 정원 대비 입학 자원이 줄어들어 대학 입학의 문턱 자체가 낮아졌고(모영민, 2023),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교육 활동이 한동안 위축되었으며(김남희 외, 2021), 일자리 구조 변화로 대졸 수준의 인력 요구(류지은 외, 2024)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 볼 수 있다.

직업교육은 특정 직업 분야의 기술을 연마하고 실무적 지식을 익혀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고등교육은 학문적 지식과 이론의 탐구를 다루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대체로 두 영역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Maclean, 2007).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고등교육은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직업적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Marks, 1999), 이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이 등장하면서 고등교육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해졌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산업대학 등으로 대학의 유형이 분화되어 있는데, 고등교육의 기능 분화는 직업교육이 직업교육 시스템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시스템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Mordhorst & Jenert, 2023).

결과적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내에는 다양한 교육적 성격이 존재하며,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들의 요구와 진로에 따라 여러 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교육의 요구와 직업적 전문화 및 세분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특정 경로에 진입한 후 다른 경로와 단절되어 이동이 쉽지 않다면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국가의 교육시스템은 여러 경로를 넘나드는 유연한 조합을 추구하게 된다. 여러 경로 간의 조합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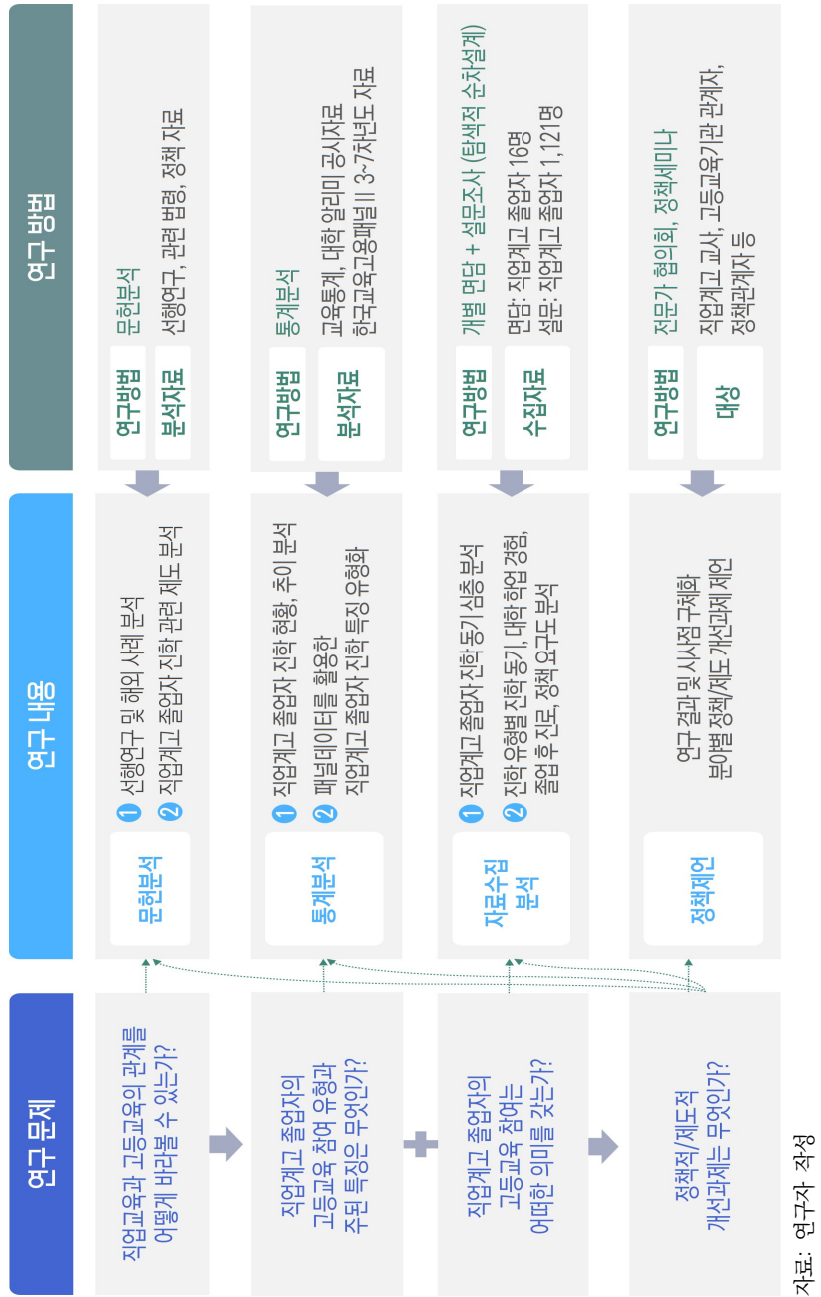
6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현재는 일반고 → 대학 진학, 직업계고 → 취업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현상을 직업교육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대학 진학을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외부적 수단으로 접근해 온 흐름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실업교육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당시 정부에서는 우수한 학습자들이 실업계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의 경로를 열었다. 물론 이는 고교 단계의 전공과 대학의 전공 계열 간 유사성에 기반을 둔 진학이었지만 해당 정책은 직업교육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부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법적으로 특별전형 규정만 신설되었을 뿐, 각 대학에서는 직업교육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존의 대입제도 틀 안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실업계고는 ‘쉽게 내신 성적을 취득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 경로’로 인식되었고, 이는 특성화고로 명칭이 변화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등교육 참여 유형과 진학 동기 및 진학 과정의 주된 특징을 분석하여 현재의 높아진 진학을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고, 향후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정책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림 1-1]에 제시된 연구 문제를 토대로 연구 내용을 초점화하고, 주요 연구 방법론을 대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분석에 앞서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의 의미와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이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정책이나 제도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그간의 변화 흐름과 주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일부 대학의 입학 전형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통계 데이터 분석,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연계 경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등교육 단계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경로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싱가포르, 우리나라와 유사한 직업계고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직업교육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독일을 분석 국가로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원고를 토대로 최근 동향을 확인하였다.

2. 통계분석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진학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연도별 졸업자 중 일반대학, 전문대학 진학자 수와 그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특성(예: 수도권/비수도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따른 경향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교육통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학알리미의 연도별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고 등 동일계열 특별전형과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수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기관 진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하고자 하였다.

기초 현황 분석에서는 진학자 수나 입학자 수의 추이만 확인할 수 있어 제한적 범위에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떠한 전공 계열로 진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이하 KEEPⅡ)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KEEPⅡ는 2016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 7차 조사까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EEPⅡ의 3차년도부터 7차년도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2018년 2월에 졸업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졸업 직후 60개월간(2018년 3월~2023년 2월)의 진학과 취업 상태 변화를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고교 전공과 대학 전공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전공일치 및 불일치 진학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고, 일자리 또한 전공 일치 취업과 불일치 취업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개별 시퀀스를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대상의 진학 경로를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30명이었으며 자세한 분석 방법과 절차는 제3장 제2절에 기술하였다.

3. 졸업생 면담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s) 중 탐색적 순차 설계(exploratory sequential design)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는 질적 자료 수집을 토대로 확인된 현상들을 양적 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화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면담을 통해서 직업계고 졸업자의 다양한 전공이나 지역, 개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면담과 연계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졸업생의 진학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면담자 표집은 KEEPⅡ 데이터 분석에서 얻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유형을 기반으로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직업계고 입학 선택 시기부터 대학 진학 선택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였다. 면담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Zoom을 활용하여 개별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총 16명이며, 유형별로는 일반 진학자 9명, 선취업 후진학자 7명이다. 면담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제4장 제1절에 기술하였다.

4. 설문조사

면담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졸업 후 일반 진학 경로를 선택한 학습자와 선취업 후진학 경로를 선택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유형을 고려하여 선취업 후진학, 일반 진학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 중 선취업 후진학은 일반대학 중심으로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대학 재학생만을 표집하였으며, 일반 진학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재학생을 모두 표집하였다. 조사 결과 총 1,164명이 응답하였으나 응답 값에 오류가 있는 43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21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유형별로는 선취업 후진학자 387명, 일반대학 진학자 347명, 전문대학 진학자 387명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표집 방법과 응답 대상자의 특징은 제5장 제1절에 기술하였다.

5.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 세미나

통계분석,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심층적 해석과 정책적·제도적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협의회는 직업계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업계고 교사 중에서도 2년 이상의 고3 담임교사 경력이 있는 교사 5인으로 구성하였다. 1차 전문가 협의회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후 2차 전문가 협의회는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12월 3일에 진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부처 관계자와 12월 2일에 정책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정책 제언을 정교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 학계, 정책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책 세미나는 12월 9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정보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12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표 1-1〉 전문가 협의회, 정책 협의회 및 정책 세미나 참석자

구분	일시	이름	소속
1차 전문가 협의회	2025. 9. 16. ~ 2025. 9. 19.	곽○○	청주농업고등학교
		김○○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김○○	상주공업고등학교
		박○○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송○○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2차 전문가 협의회	2025. 12. 3.	김○○	안산대학교
		박○○	대림대학교
		홍○○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책 협의회	2025. 12. 2.	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정책 세미나	2025. 12. 9.	김○○	前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송○○	충남대학교
		송○○	영남공업고등학교
		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자료: 연구자 작성

제3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의 설계와 분석 과정에서 ‘선취업 후 진학’과 ‘일반 진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미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선취업 후진학’은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공백기 없이 또는 짧은 공백기 이후에 취업을 먼저 이행한 후 취업 상태에서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진학한 상황을 의미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례나, 기업에 취업 후 재교육형 계약학과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 진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백기가 없거나 또는 일시적 공백기를 거친 후 대학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시 모집 혹은 정시 모집을 통해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진학한 형태를 의미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에서는 고교 졸업 후 일정 기간 취업 경험을 가졌다가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반 진학’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제2장

주요 개념과 정책 탐색

제1절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의미, 위치, 관계

제2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제도

제3절 해외 주요 국가 사례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2장 | 주요 개념과 정책 탐색

제1절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의미, 위치, 관계

1. 직업교육의 의미와 위치

직업교육은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고 관련 배경지식을 쌓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다(OECD, 2023). 특히 OECD와 같이 교육의 성과를 국가의 경제적 성과와 연결지어 바라보는 관점을 취할 경우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짙어진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 및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 모든 직업에 일반적으로 유용한 범용적 역량을 길러준다면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은 특정 직업, 특정 직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CEDEFOP, 2017) 개인의 노동시장 이행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Berk, 2022).

초기 직업교육훈련(*Initi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IVET)은 경력 초기 혹은 노동시장 진입 전의 직업교육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과정을 뜻한다(OECD, 2010). 반면 계속 직업교육훈련(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CVET)은 학령기 이후의 재직 근로자 혹은 실업자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직업교육 과정 혹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OECD, 2010). IVET는 기초 학문이나 개념적 지식, 비판적 사고력 등을 강조하는 일반(general) 교육과 달리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스킬 함양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개인의 교육적 필요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도 관련성이 깊다(CEDEFOP, 2014). 따라서 IVET가 갖는 기능은 개인 수준에서 특정 직무 스킬 함양을 통해 노동시장 진출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적절한 인력 공급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실업계고는 1970년대 말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인력 공급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기존의 제조업 체제를 벗어나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하면서 숙련 중심의 기능 인력보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국가 자원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김충환 외, 2020). 이와 함께 고교 체제가 다양화되면서 중등 직업교육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문계와 실업계로 크게 분류되었던 고교 유형은 1980년대 과학고 등장을 시작으로 외국어고(1990년대), 자율형 사립고(2000년대)로 분화되면서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 교육 경로가 나뉘는 ‘계열화(tracking)’ 현상이 더욱 짙어졌다. 계열화는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에 따라 교육적·직업적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계열화가 나타나는 모든 국가에서 기술 또는 직업 트랙은 가장 하위 계층에 위치하며,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될수록 중등 직업교육은 저평가 되고

있다(Houtte et al., 2012).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교육 경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CEDEFOP, n.d.; OECD, 2025).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1)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중등 직업교육의 매력도 증진, 2)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 및 사회 이동성 제고, 3) 평생학습 차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등의 이유가 꼽히고 있다(OECD, 2025). 이 과정에서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수직적 연계뿐만 아니라 학문 중심 고등교육과의 연계 등 보다 자유로운 경로 전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CEDEFOP, n.d.).

2. 고등교육의 의미와 위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post-secondary education)은 근대 이후 초등 및 중등교육 시스템이 제도화되면서 중등교육 다음 단계의 교육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등장하였다. OECD에서는 ‘higher education’이라는 표현 대신 3차 교육이라는 의미로 ‘tertiary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초등(primary)교육과 중등(secondary)교육 이후의 세 번째 단계 교육을 의미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대학(university)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²⁾을 총칭하고자 한 것이다(OECD, 1998).

대학은 고등교육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그 시초는 중세 시대로 알려져 있다(남기원, 2021). 당시의 대학은 사회 체제 유지를 위해

2)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990년대 고등교육 개혁을 통해 폴리테크닉(polytechnics), 기술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 등의 기관을 고등교육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전통적 대학(university)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한송희, 이은정, 2016). Tertiary education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을 포괄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법률, 행정, 산업,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남기원, 2021). 지금과 같이 다양화되고 분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일어난 현상으로, 이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Jarausch, 1982). 기존 대학이 소규모 엘리트 집단을 중심으로 예비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사회에서의 대학은 대중화, 보편화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자율적 기능 이외에도 대중적 기능을 요구받게 되었다(Trow, 1970).

〈표 2-1〉 대학의 기능 분화

기능 유형	세부 활동
자율적 기능 (autonomous functions)	• 중요 사상, 예술 등 문화 전수 기능 • 학문적 능력 함양 기능 •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탐구 기능 • 엘리트 선발 및 인증 기능
대중적 기능 (popular functions)	•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 직업 및 전문화된 교육훈련 기능 강화 • 공공 서비스 및 사회적 문제 해결 기능

자료: Trow(1970)의 내용을 연구자가 요약함

〈표 2-1〉과 같은 대학의 기능 변화는 고등교육기관의 계층화와 분화를 전인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엘리트 선발이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명문 사립대학과 실용적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 college)로 고등교육기관 유형이 분화되기 시작했다(Trow, 1970; Trow, 1973). 우리나라 또한 5·31 교육개혁 이후 고등교육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기능을 세분화하려는 시도(예: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가 있었으며,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외연 확장이 이루어졌다(김현수,

2022).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뛰어넘어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Trow, 1973), 2024년 기준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5%로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OECD, 2025).

「고등교육법」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성격을 학문연구와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여전히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 분화를 통한 전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던 고등교육 체제는 최근 상호 보완을 넘어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형식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대학에서 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오호영, 2015; 백승주 외, 2022; 최정운 외,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대학은 산업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여 교육과정과 방법을 혁신하고, 산학협력 및 현장실무 경험 제공 등 전통적으로 직업교육 영역에서 강조해 온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다(최정운 외, 2018). 대표적인 예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학과 개설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일반대학 내에서도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계약학과 등이 도입되면서 (비록 이를 ‘직업교육’이라 명명하지는 않으나) ‘직업교육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전문대학에서는 고등교육 내에서 직업교육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고등직업교육’이라는 용어를 통해 정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학사 학위 심화 과정 도입, 범용적인 교양 교육 강화로 교육 수준 자체를 일반대학과 유사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주회정, 양정승, 2021).

3.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관계

앞서 직업교육, 특히 IVET 성격을 갖는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는 고등교육과의 다양한 경로 조합과 연계를 고려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등교육 차원에서는 기능 분화를 통한 전문화 전략으로 고등교육 대중화 단계에 대응하였지만, 보편화 단계에서는 각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과 생존을 위해 오히려 기관 간 역할과 성격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고등교육 영역 내에서도 여러 속성의 기관들이 등장하면서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과 고등교육의 성격을 전환하는 경로로서 중등 직업교육 졸업 후 학문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것이다(그림 2-1)의 [유형 1]). 이 경우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통해 경험한 실무적 지식이나 기술보다 학문 중심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초 학업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진학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진학 후에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습 방식, 보고서 작성과 같은 평가 방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학업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Catterall, Davis, & Yang, 2014).

둘째, 숙련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적 경로로서 중등 직업교육 졸업 후 고등 직업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것이다(그림 2-1)의 [유형 2]). 기존의 직업교육 정책 영역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후 2절에서 제시될 중소기업 기술사관 사업과 같은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 모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시된 직업계고-폴리텍 대학 연계(국정과제 96),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및 학점 연계(국정과제 55)도 이에 해당한다. 고등 직업교육을 통해 중등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숙련된 기술 습득이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 직업교육 졸업 이후에는 학문 중심의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고려한다. 물론 고등 직업교육으로의 진입은 직업계고 졸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고교 유형의 학습자들에게도 열려 있지만(OECD, 2022), 전통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직업’과 ‘학문’을 서로 독립적인 경로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 왔다(Wolter & Kers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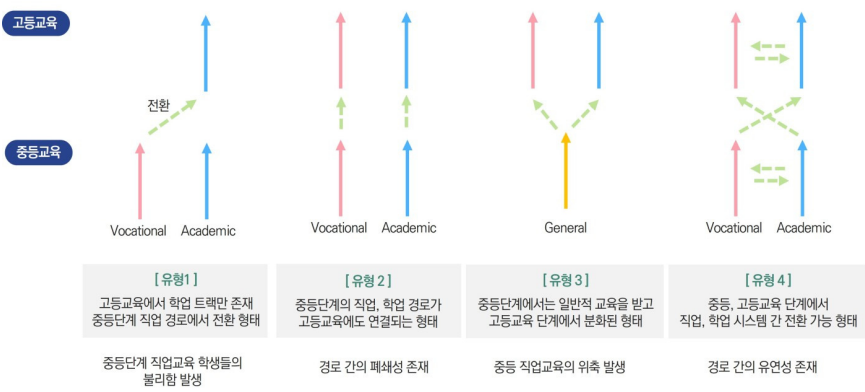
셋째, 고등교육 내에서 학문과 직업에 대한 기능적 분화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문 중심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 경로를 분화시키는 것이다(그림 2-1의 [유형 3]). 이러한 관점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일반적 교육을 제공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 구체적 경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이행 준비 기능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바라본다(Mordhorst & Jenert, 2023). 최근 들어 이러한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중등 직업교육만으로는 노동시장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성공적인 경력 설계를 위해서는 대학 수준의 ‘학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기반한다(Farran & Núñez, 2025).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이 그간 접근해 온 학문 중심의 교수학습 문화는 실용적인 기술 교육이나 일기반 학습, 산학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22).

넷째, 다양한 경로 간의 융합을 통해 상호 간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접근이 있다(그림 2-1의 [유형 4]).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접근은 모두 더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네 번째 관점은 학습자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개인이 선택한 각각의 경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강조한다(Harris & Rainey,

24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2012). 이러한 융합적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전공이나 분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변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CEDEFOP, n.d), 중등 직업교육 과정에서 얻는 경험(예: 실용적인 기술 숙련, 직무 현장에 대한 이해)을 고등교육의 직업·학업 경로에 접목하여 각각의 교육 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Farran & Núñez, 2025).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관계



자료: CEDEFOP(n.d.) p.25 내용을 연구자가 수정·보완함

제2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제도

1. 특성화고 등 동일계열 특별전형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졸업한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 부여는 꽤 오래된 흐름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에도 일시적으로 실업계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대학 진학에 대한 제도가 잠시나마 있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본격적으로 운영된 시기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였다(김해동 외, 2003).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과 함께 일정 수준의 학력을 갖춘 인력 공급이 필요해지면서 중등교육은 보편화되었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졌다. 반면, 고등교육 졸업자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기업 내 대졸 인력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고 학력이나 직종(사무직/생산직)에 따라 임금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해동 외, 2003). 블루칼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자 정부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실업계고 졸업자의 동일계열 대학 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³⁾(이영호, 2002). 다만 해당 전형은 실업계고에서 내신 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다(「대학입학예비고사령[시행 1976. 11. 5.]」[대통령령 제 8270호, 1976. 11. 5., 일부개정] 제15조).

그러나 1980년 12월, 정부는 해당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고 1983학년도 대학 입학생부터는 실업계고 동일계열 특별전형이 더는 적용되지 않았다(김해동 외, 2003). 폐지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으나 당시 실업교육에

3) 전문대학의 실업계 학과는 정원의 30% 이상을, 야간 전문대학은 50% 이상을, 일반대학은 정원의 10% 이상(수산해운 계열은 5% 이상)을 정원 내에서 실업계고 졸업자로 모집하도록 하였다(김해동 외, 2003: 17)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 실업계고 졸업자들의 대학 수학능력 부족, 일반고 졸업생과의 역차별 등을 꼽을 수 있다(김해동 외, 2003; 이영호, 2002). 이후 일부 전문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교육 수요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실행되면서 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고등교육이 팽창함에 따라 실업계고 졸업 이후의 동일계열 전문대학 진학 경로에 대한 매력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2000년대 진입 후 「실업계고 고등학교 육성 대책(2000)」이 발표되면서 실업계고 졸업자들의 진학 경로가 다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전문대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축이 중등단계에서 고등 단계로 이동하였고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실업계고의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학교 수, 학생 수의 감소가 연쇄적으로 나타났다(강경중, 김종우, 2002). 이에 정부는 실업계고 졸업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며, 실업계고 교육을 통해 취업과 진로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취하고자 하였다. 2002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02. 5. 27.] [대통령령 제17607호, 2002. 5. 27., 일부개정]」이 개정되면서 2004학년도 대학 입학생부터는 실업계고 학생들이 고교 전공과 동일한 계열의 대학 전공으로 진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하 특성화고 등 동일계열 특별전형⁴⁾)이 부활하였다.

2004년 해당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대학 입학 정원의 3% 규모까지 동일계열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정원 외 특별전형과 합산하였을 때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

4)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대학의 입학 전형은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한다. 특별전형은 정원 내, 정원 외 전형으로 구분된다.

으로 대학에서 3%를 모두 실업계고 동일계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동일계열 특별전형은 몇 차례 변화 과정을 겪었다. 200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2호, 2007. 1. 24., 일부개정] 개정을 통해 동일계열 특별전형 선발 비율이 5%로 확대되면서 실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이 발표되고 재직자 특별전형이 도입되면서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은 3%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동일계열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상자에는 산업수요 맞춤형고는 제외되었으며,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성화고 등 동일계열 특별전형은 일반대학, 전문대학에서 모두 운영 가능하나,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상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대부분 정원 내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특별전형의 명칭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이지만 전문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이 전형의 지원 대상에는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등도 포함할 수 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4a).

종류	내용
정원 내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대학의 입학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차등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요건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①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관련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 특별전형) ②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지역인재 특별전형 ③ 그 외 대학별 특별전형 등
정원 외 특별전형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자료: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28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전문대학에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는 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고려하여 수시 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고교와 대학 간 전공 계열의 일치성을 별도의 자격 요건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해마다 전문대학의 전체 모집 입학생 중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되는 비율은 약 10% 내외 규모이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4b).

〈표 2-2〉 특성화고 등 동일계열 특별전형 선발 비율의 변화

개정시기 (적용시기)	2002. 5. 27. (2004학년도~)			2007. 1. 24. (2008학년도~)		
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10%		2%	10%	
제3호 학사학위 후 3학년 편입	5%			5%		
제5호 농어촌지역 학생	3%			4%		
제9호 산업대학 3학년 편입	3%			3%		
제10호 실업계고 졸업자 중 동일계열 입학자	3%			5%		
개정시기 (적용시기)	2009. 10. 7. (2013학년도~)			2011. 10. 17. (2015학년도~)		
가. 농어촌 지역의 학생	4%	7%	11%	4%	11%	
나. 특성화고 등 졸업자 중 동일계열 입학자	3%			1.5%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다.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 재직자*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각 개정시기별 [별표 1] 학년별 총 학생수

주 1) * 표시된 부분은 2014년 4월에 개정된 사항으로, 현재는 가) 일반고 재학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졸업한 자, 나) 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자, 다)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참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주 2) ‘-’으로 표기된 부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해당 항목의 세부 비율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예: 다목의 비율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가~라목까지의 전체 비율만 제시된 경우).

2. 재직자 특별전형

2009년 10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09. 10. 7.] [대통령령 제21766호, 2009. 10. 7., 일부개정]」 개정과 함께 재직자 특별전형이 도입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던 전문계고(舊 실업계고)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고(이하 마이스터고)’를 새로운 고교 유형으로 신설하였으며, 1기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학교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입학생을 모집하였다. 이와 함께 선취업·후진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⁵⁾ 한편 1990년대부터 평생교육 제도 차원에서 성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일반 진학자와 유사한 형태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직자 특별전형의 도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공식적인 입학 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공주대, 건국대, 중앙대에서 2010학년도부터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며,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25년 기준으로는 일반대학 83개교, 전문대학 29개교에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표 3-10〉 참조).

재직자 특별전형과 특성화고 등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입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서 규정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5)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09. 10. 7.] [대통령령 제21766호, 2009. 10. 7., 일부개정]」이 처음 개정되었을 당시에는 제29조 제2항 제14호의 다목에서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 명시되었으나, 이후 고교 유형이 최종적으로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포함)로 정비되면서 해당 조문도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자로 변화하였다(「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타법개정]」).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재직자 특별전형의 별도 선발 비율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의 총 선발 비율이 11%이기 때문에 해당 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앞부분의 <표 2-2> 참조). 예를 들어 대학에서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의 학생, 특성화고 등 동일계열 졸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최대 5.5%까지 선발하였다면 재직자 특별전형 또한 5.5%까지 선발이 가능하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도입 초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 졸업자 중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 가진 자로 한정되었으나, 2014년 법령을 개정하여 1) 일반고 재학 도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졸업한 자, 2) 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자, 3)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4)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까지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학과 교육과정을 재직자 특성에 맞춰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일반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근로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야간·주말 수업 등을 권장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a).

3. 전문대학 연계교육 제도

가. 고숙련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은 재학생 또는 재직자가 ‘학습근로자’가 되어 일터에서의 훈련(On the Job Training: 이하 OJT)과 교육기관에서의 훈련(Off the Job Training: 이하 Off-JT)에 모두 참여하고, 훈련 이수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OJT와 Off-JT로 구성된 교육훈련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설계된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크게 재학생, 재직자, 후학습 유형으로 구분되며, 재학생 유형은 고교 단계(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단계, 일반대학 단계로 세분화된다(박종성 외, 2023). 재학생 유형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또는 대학)에 입학한 후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교육을 받게 된다. 재직자 유형은 기업에 속한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OJT와 Off-JT를 특정 기업이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독기업형과, OJT는 각 기업에서 진행하되 Off-JT는 여러 기업의 소속 직원들을 모아 함께 진행하는 공동 훈련센터형으로 구분된다(박종성 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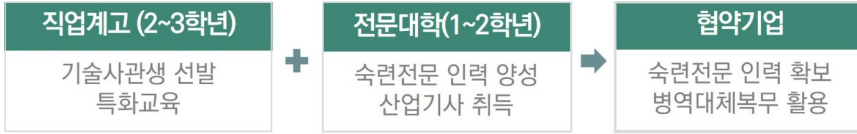
세 번째 후학습 유형으로는 고숙련 일학습병행(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이하 P-TECH)이 있다. 이는 특성화고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졸업 후 해당 학습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상위 수준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박종성 외, 2023). P-TECH는 201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과 연계하여 운영

된다(일학습병행 홈페이지, n.d.). 또한 2021년부터는 P-TECH 참여 대상자가 전체 직업계고 졸업자로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2021). 즉, 도제학교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 취업한 경우, P-TECH를 통해 직장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P-TECH에 참여하는 대학은 앞서 살펴본 ‘재교육형 계약 학과’에 준하여 학사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3).

나. 중소기업 기술사관

‘중소기업 기술사관’은 지난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특성화고(2년)와 전문대학(2년) 연계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후 협약된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제도이다(류지은 외, 2019).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추진되며, 학생들은 직업계고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취업 분야와 관련된 연속적인 교육을 이수한 뒤, 전문대학 2학년 때 관련 기업에 조기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 2025). ‘중소기업 기술사관’ 사업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이 사업을 주관하되 직업계고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고 재학 시절 ‘중소기업 기술사관’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 시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별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하게 된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4b). ‘중소기업 기술사관’ 사업의 주요 개요를 도식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중소기업 기술사관 운영 형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5). 2025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모집 공고. p. 7.

4. 그 밖의 후학습 제도

가. 성인학습자 특별전형(정원 외)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 외에도 만학도 및 성인학습자 특별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 특별전형은 앞서 살펴본 재직자 특별전형보다 먼저 도입된 제도로, 200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382호, 2007. 11. 15., 일부개정]」 제29조의 개정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만 25세 이상의 성인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연도별 입학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이후 2022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07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29조의 추가 개정으로 비수도권 일반대학에서도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원 외 특별전형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전형은 직업계고 졸업자를 염두에 두기보다 일반 성인 중 고등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이른바 ‘만학도’를 고려한 전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들도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을 쌓을 경우 해당 전형으로도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34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② (생략)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신설 2007. 11. 15.〉

- 12의2.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2. 2. 28〉

특히 최근에는 성인학습자 특별전형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모집 정원 비율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일부개정]」 개정으로 성인학습자 특별전형의 총 학생수 기준이 폐지되어 보건의계열과 간호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인원 제한 없이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대상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성인학습자 특별전형(모집 대상이 만 3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에 한함)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대상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성인학습자 특별전형(비수도권 일반대학은 30세 이상,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인 경우)일 때 기존의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과는 달리 별도의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지속적인 개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성인 재직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의 확대와 유연화로 전개되고 있다.

나. 계약학과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8조에 의거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계약학과는 「산학협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학부 또는 학과를 의미한다. 계약학과는 크게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며(교육부, 2023a), 최근에는 계약정원 계약학과 형태가 새롭게 신설되었다⁶⁾.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특정 기업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해당 기업의 직무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졸업 직후 해당 기업으로 채용되어 일하게 된다(교육부, 2023a).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대학 등에 교육을 의뢰하는 형태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체에서 추천한 소속 직원을 대학이 선발하는 형태이다(교육부, 2023a). 혼합형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표 2-3〉 계약학과 유형별 세부 프로세스(학습자 관점)

유형	세부 프로세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입학 → 맞춤형 교육 이수 → 졸업 → 산업체 취업
재교육형	산업체 취업 → 10개월 이상 재직 → 계약학과 입학 → 직장/학업 병행
혼합형	계약학과 입학 → 맞춤형 교육 일부 이수 → 산업체 취업 → 직장/학업 병행

자료: 교육부(2023a) 내용 전반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21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8조의 2(계약정원의 운영)는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 중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학생들의 취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은 학생들이 산업체에 취업하고 10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교육부, 2023a).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0항에 따라 산업체 근무 경력을 졸업 학점의 20% 범위 내에서 학점 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다만 경력을 학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교육부, 2023a).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졸업 시점까지 산업체 소속 직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및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교육형 계약학과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서영복, 박찬권, 2016).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과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직업계고 대상 고등교육 연계 제도 요약

구분	일반 진학 제도	후학습 제도	
	동일계열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도입시기	2004 ~	2010 ~	2007 ~
운영방식	대학의 선발 전공과 동일계열 고교 전공 졸업자를 대학에서 선발함	직업계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을 쌓은 자를 대학에서 선발함	요건에 맞는 성인학습자를 대학에서 선발함
교육과정	대학 학과별 교육과정	대학 학과별 교육과정 (별도의 학과 운영)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교육과정
대상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마이스터고 제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전문대학) 만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2년 이상 (일반대학) 만 30세 이상
대학유형	일반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비수도권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관련부처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특징	▶ 대학의 선발 전공과 관련된 전문교과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시 지원 가능 ▶ 대계열 범주 내에서 동일 계열로 설정	▶ 수도권 일반대학 중심으로 입학생 집중 ▶ 입학 후 재직 기간 유지 유무에 대해 대학별 관리 지침 상이 ▶ 별도의 학사 관리	▶ 성인학습자 선발을 위해 입학 전형에서 고교 성적 대신 자기소개서 등 활용 가능

자료: 제2장 제2절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표 계속)

〈표 2-4〉 직업계고 대상 고등교육 연계 제도 요약

구분	후학습 제도	전문대학 연계 제도	
	재교육형 계약학과	P-TECH	중소기업 기술사관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도입시기	2003 ~	2017 ~	2009 ~
운영방식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하여 10개월 이상 재직한 후, 기업과 협약된 대학에 입학함	직업계고 졸업 후 학습기업에 취업하여 협약된 대학에 입학함	직업계고 졸업 후 협약된 전문대학에 입학함
교육과정	기업체 요구 맞춤형 교육과정	NCS 기반 훈련과정, 대학 및 일터에서 이수	고교-전문대학 간 전공 연계형 교육과정
대상	해당 산업체 재직 근로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재학생
대학유형	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관련부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특징	▶ 학위 취득이 필요한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 중소기업에서 주로 운영함(근로자들의 재직 기간 확보 효과)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함 ▶ 운영 대학에서는 계약학과에 준하여 학사 제도를 운영함	▶ 직업계고 재학 당시 해당 사업의 참여 대상을 선발함 ▶ 전문대학 2학년 이후부터는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학습을 병행함

자료: 제2장 제2절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제3절 해외 주요 국가 사례)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과정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학교 졸업시험 결과가 이후의 교육 경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MOE, n.d.-a). 중학교 졸업시험 성적의 가장 상위권 학생은 2년제 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로, 그다음 단계 학생은 3년제 밀레니아 인스티튜트(Millenia Institute)로 진학하는데, 두 교육기관에 진학했다면 우리나라의 일반고와 같이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목표하게 된다(MOE, n.d.-a). 반면 중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면 폴리테크닉(Polytechnic)이나 기술교육원(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ITE)에 입학한다(MOE, n.d.-a). 3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폴리테크닉은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성격으로, 입학 시 주니어 칼리거나 밀레니아 인스티튜트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학교 졸업 성적을 요구하고 폴리테크닉 졸업 후에는 일반대학으로 입학할 수도 있다(MOE, n.d.-a). 기술교육원은 자격 취득 기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과정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운영되는데(MOE, n.d.-a), 이 기술교육원이 우리나라의 직업계고와 가장 유사한 성격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 경로는 아래 <표 2-5>와 같다.

7) 제3절의 해외 주요 국가 사례에 관한 주요 내용은 난양공과대학 장하리 연구원(싱가포르), 경일대학교 박지숙 교수(일본), 서경대학교 정수정 교수(독일)의 원고를 토대로 연구진이 재정리 및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표 2-5〉 싱가포르 기술교육원 교육과정 유형

	교육과정	기간	세부 내용
재학 도중 과정	일반 자격 과정 (Nitec)	2년	- 도시철도, 항공, 자동차 기술, 기계 및 로봇 공학 등 8개 과정 운영 2년 과정이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기초 교육을 포함하여 3년 과정으로 운영
	고급 자격 과정 (Higher Nitec)	3년	- 중학교 졸업시험 성적에 따라 일반 자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급 자격 과정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입학 가능 - 일반 자격 과정 수료 후 고급 자격 과정 2학년으로 입학하여 2년간 이수 가능
졸업 이후 과정	기술 디플로마 과정	2~2.5년	- 기술교육원 졸업 후 참여하는 과정 - 기술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할 경우 폴리테크닉 이수 수준으로 인정되나, 이후 일반대학으로 바로 입학은 불가
	일학습병행 디플로마 과정	2.5년	- 기술교육원 졸업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디플로마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전일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어야 함(P-TECH와 유사) - 일학습병행 디플로마 과정 졸업 후 폴리테크닉 포스트 디플로마 또는 일반대학 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짐

자료: ITE(n.d.). Admissions-Certification System.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https://www.ite.edu.sg/admissions/certification-system> (검색일: 2025. 4. 21.)

주) 재학 도중 과정은 현재 일반 자격 과정과 고급 자격 과정이 별도로 운영되나 2026년까지 3개년의 고급 자격 과정으로 통합 예정임

기술교육원 졸업자는 바로 취업할 수 있지만 일반 자격 과정(Nitec)이나 고급 자격 과정(Higher Nitec)을 이수하고 폴리테크닉으로 입학 가능한데, 폴리테크닉 입학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 성적, 기술교육원에서 취득한 평균 학점 등이 중요하게 작동한다(MOE, n.d.-b). 이 외 싱가포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교육원 일학습병행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한 자의 대학 진학 경로이다. 싱가포르의 대표 대학인 난양공과대학교에서는 최우수 혹은 우수

일학습병행 디플로마를 취득한 학생에게 의대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한다(NTU, n.d.).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도 기술교육원의 일학습병행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지원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NUS, n.d.). 성적에 따라 엄격하게 대학 진학 경로가 나뉘는 싱가포르에서 일 경험을 가진 학습자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경로를 설정해 놓은 것은 ‘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전공에 한해서는 두 대학 모두 지원자에게 중학교 졸업 시험의 ‘O-레벨’ 성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보다 낮은 ‘N-레벨’ 성적을 가지고 기술교육원에 입학하여 일학습병행 디플로마를 취득한 경우 라면 특정 전공 분야 지원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NTU, n.d.; NUS, n.d.). 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기술교육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35.1%가 폴리 테크닉으로 진학하고 있다(MOE, 2023). 해당 통계에서 일학습병행 디플로마 학생들의 일반대학 진학률이 제공되지 않아 실제 진학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교육원 졸업자의 가장 큰 이슈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이 대졸자 나 폴리테크닉 졸업자에 비해 낮고(MOE, 2024a), 대졸 수준의 학위 취득 기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MOE, 2024b). 중학교 졸업 후 주니어 칼리지에 입학한 학생들은 2년 후 일반대학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기술교육원 학생들은 자격 과정과 일학습병행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한 후에야 일반대학 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5년은 지나야 가능하다(MOE, 2024b). 또래에 비해 긴 학습 경로를 거쳐야 하고 일과 학업 병행의 부담은 기술교육원 졸업생들의 역량 강화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MOE, 2024b).

2.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학제를 가지고 있고,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다(MEXT, n.d.-a).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 과정에 해당하는 보통과(普通科), 직업과정에 해당하는 전문학과(専門學科), 두 성격이 통합된 종합학과(総合學科)로 세 가지가 있다(MEXT, n.d.-a). 이 중 전문학과가 특정 직업 분야를 미래 진로로 선택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농업과, 공업과, 상업과, 수산과, 가정과, 간호과, 정보과, 복지과, 이수(理數)과, 외국어과, 국제관계학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등이 있다(MEXT, n.d.-a). 2024년 3월 졸업자 기준으로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는 918,850명이고, 이 중 전문학과 졸업자 수는 158,221명(17.2%)이다(MEXT, n.d.-b).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University), 전문대학(Junior colleges), 기술대학(Colleges of Technology) 등이 있으며, 대학은 4년 이상의 학사 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은 2~3년 과정을 제공하여 준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MEXT, n.d.-a). 전문대학을 마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대학 진학 시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MEXT, n.d.-a). 대학과 전문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지만, 기술대학은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갖춘 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5년제 과정을 제공하고 기술대학 졸업 시 준학사 학위 취득 및 대학으로 입학할 수 있다(MEXT, n.d.-a). 이와 더불어 일본은 2019년부터 기존 대학과 전문대학 내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직대학 및 전문직 전문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제가 개편되었다(김영

중, 2019).

일본의 경우 대학 입학 자격이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 학교를 졸업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교 단계에서 전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경로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MEXT, n.d.-c). 또한 문부과학성에서는 대학 입학자 선발과 관련하여 전문학과를 졸업한 학생 선발 시 그 특징을 고려하여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구체적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일반 선발 외에 각 대학의 판단에 따라 입학 정원의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입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생략)

(3) 전문과정 또는 종합과정 졸업생 선발은 직업에 관한 교과과목의 학력 검사 성적 등에 의해 평가판정하는 입시 방법

자료: 문부과학성(n.d.)의 p.3 내용을 번역하여 작성

이에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전문과정 및 종합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 일부 대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일본 일부 대학의 입학 전형 사례(2025~2026 입학전형 기준)

대학·학과	구분	주요 내용
이와테현립대학 사회복지학부 (공립)	전형명	학교추천형 선발 中 전문과정·종합과정
	평가 방식	대학입학공통테스트는 면제 (단, 대학입학공통테스트 수험을 추천함), 소논문, 면접
	지원 자격	① 가정 및 복지 관련학과를 2026년 3월 졸업 예정자 ② 종합학과를 2026년 3월 졸업 예정이며, 복지 관련 과목 또는 공민에서 6단위 이상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 ③ 앞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며, 조사서(調査書)의 전체 학습성적 상황이 4.0 이상인 자

44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대학·학과	구분	주요 내용
이와테현립대학 소프트웨어정보학부 (공립)	전형명	학교추천형 선발 中 전문과정·종합과정
	평가 방식	대학입학공통테스트는 면제, 기초학력문제, 종합평정자료(입학 원서, 면접)
	지원 자격	① 고교에서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 또는 종합학과를 2026년 3월 졸업 예정이며, 조사서(調査書)의 학습성적 개 평(概評)이 A인 자 ② 정보과, 정보기술과, 정보처리과, 정보공학과, 정보시스템과 또는 정보비즈니스과를 2026년 3월 졸업 예정이며, 조사서 (調査書)의 국어, 수학, 이수, 영어, 정보의 5교과 중 최소 3 교과의 학습 성적 상황이 모두 4.2 이상인 자, 또는 최소 3 교과의 학습 성적 상황이 모두 4.0 이상인 자로 정보 관련 고도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 자격에 대해서는 입학처에 사 전 문의할 것) ③ 앞의 학과 이외에 정보에 관한 과목(이 과목에 대해서는 입 학처에 사전 문의할 것)을 6단위 이상 취득 또는 취득 예정 인 자 중 조사서(調査書)의 국어, 수학, 이수, 영어, 정보의 5교과 중 최소 3교과의 학습 성적 상황이 모두 4.0 이상인 자 중 정보 관련 고도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 자격에 대해 서는 입학처에 사전 문의할 것)
도쿄농업대학 농학부(국립)	전형명	사회인 입시전형
	평가 방식	대학입학공통테스트는 면제, 학력시험(이과, 영어), 면접, 지방 이유서, 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선발
	지원 자격	(2025년 3월 31일 기준) 만 23세가 되고,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을 통한 5년 이상(만 5년 포함) 가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력 을 가진 자

자료: 아래의 각 대학 입학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검색일: 2025. 4. 1.)

1) 이와테현립대학: https://www.iwate-pu.ac.jp/examination/exam_detailedinfo.html

2) 도쿄농업대학: https://www.tuat.ac.jp/admission/nyushi_gakubu/youkou/

일본은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전문직대학이 새롭게 출현하였고, 전문직 대학은 산업체와 연계된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에서 전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학 경로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독일

독일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교육 체제가 많이 다르다. 「기본법(Grundgesetz)」 제30조(Artikel 30 des Grundgesetzes)에 따라 교육제도에 대한 권한은 각 주에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교육 기간은 12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전일제(Vollzeit) 학교 교육은 중등 1단계(9~10학년)까지이고 부분제(Teilzeit) 학교 교육은 중등 2단계(~12학년) 시점까지이다(Bildung Köln, n.d.). 중등 2단계 교육부터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뉘는데, 대학 진학을 목표하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독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참여율은 높은 편이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24). 중등 2단계에서 선택하게 되는 직업교육은 학교 기반 직업교육, 이원적 직업교육이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중 이원적 직업교육(Ausbildung, 아우스빌둥)은 산업체와 직업학교 두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유진영, 2020). 학교 기반 직업교육의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며, 기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은 1~2년, 직업 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2~3년 정도 소요된다(KMK, n.d.-a). 이원적 직업교육은 선택한 직업에 따라 2~3년 정도 소요되며, 일부 직업은 3년 반까지 긴 기간을 필요로 한다(Kropp, 2023).

독일의 대학은 종합대학(Universität),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 예술대학, 공과대학으로 대학 유형이 나뉘며, 과거에는 별도 학사 과정 없이 대학에 입학하면 석사학위 수준까지 이수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유럽 국가들 간의 대학 시스템 통일 협정에 따라 2002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22). 2000년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33.3%로 높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55.8%로 최근 들어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22). 독일에서는 중등 2단계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시험을 치러 입학 자격을 얻은 후에 대학 입학이 가능한데, 크게는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Allgemeine Hochschulreife: 이하 ‘일반대학 입학자격’)과 응용과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Fachhochschulreife)으로 나뉜다(Karrierebibel, n.d.).

독일의 교육 단계별 진학 경로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령기 교육 단계에서 직업경로를 선택하여 대학 진학까지 이어지는 방법은 직업 김나지움에 입학하거나 전문학교인 ‘파흐오버슐레(Fachoberschule)’에 입학하여 2년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응용과학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KMK, n.d.-b). 만약 중등 1단계 교육까지 이수한 후 베루프슐레(Berufsschule), 베루프스파흐슐레(Berufsfachschule) 등과 같은 직업학교에 들어가 취업을 한 경우라면 여러 경로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첫째, ‘파흐오버슐레(Fachoberschule)’에 입학해 응용과학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거나 둘째, ‘베루프스오버슐레(Berufsoberschule)’라고 불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특정 전공 분야에 국한된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거나, 셋째, 아비투어를 통과하여 일반대학 입학 자격을 얻는 방법이 있다(KMK, n.d.-b). 독일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진학의 경로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학문에서 학문 중심으로, 직업에서 직업 중심으로의 경로 연계가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대학 입학 자격을 얻는다고 하여 모든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대학 입학 자격(Allgemeine Hochschulreife) 취득 학생의 90%가량은 대학에 진학하지만, 응용과학대학 입학 자격(Fachhochschulreife) 보유자의 대학 진학률은 월등히 낮는데, 대학 진학 여부는 입학 자격 종류뿐만 아니라 성별, 출신 배경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24).

〈표 2-7〉 독일의 교육 경로

중등 1단계	중등 2단계	고등교육 단계
	상급 김나지움 (Gymnasium Oberstufe)	아비투어 합격 시 일반대학 입학 자격 취득 대학 진학
김나지움 (Gymnasium)	▶ 직업 김나지움* (Berufliches Gymnasium)	▶ 기술 분야에 특화되어 일반대학 입학 자격 취득 대학 진학
	직업학교* (Berufsschule /Berufsfachschule)	직업 경로 이행
	전문 김나지움 (Fachgymnasium)	아비투어 합격 시 일반대학 입학 자격 취득 대학 진학
레알슐레 (Realschule)	▶ 전문학교* (Fachoberschule)	▶ 파호아비투어 합격 시 응용과학대학 입학 자격 취득 응용과학대학 진학
	직업학교* (Berufsschule /Berufsfachschule)	직업 경로 이행
하우프트슐레 (Hauptschule)	▶ 전문학교* (Fachoberschule)	▶ 파호아비투어 합격 시 응용과학대학 입학 자격 취득 응용과학대학 진학
	직업학교* (Berufsschule /Berufsfachschule)	직업 경로 이행

자료: 김도협(2013)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주) *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이 결합된 형태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의미와 최근 논의되는 관계를 조망하고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과 관련된 정책,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결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대체로 중등 직업교육 단계 이후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고등교육기관 내에서도 여러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중등 직업교육과의 접점이 형성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들을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고등교육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중등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약화되기도 하지만, 중등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인력 공급이라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과의 관계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중등 직업교육의 정책 방향과 기초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직업계고 졸업자를 위한 여러 형태의 진학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향후 유사 성격의 제도 간 재조정 및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후학습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직자 특별전형 이외에도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재교육형 계약학과 등이 직업계고 졸업자의 후학습 경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고숙련 일학습병행, 중소기업 기술사관은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향하는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 연계교육 제도는 운영 주체(주관 부처)가 다를 뿐 정책의 주요 대상은 직업계고 졸업자로 유사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도마다 대학의 입학 자격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는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향후 유사 제도 간의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위한 진학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동일계열 특별전형이나 재직자 특별전형은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전형을 추가로 개설하여 입학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운영하며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일정 규모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이러한 전략을 취할수록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의 교육체제 내에서 중등 직업교육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셋째,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의 경험이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중학교의 학업 성적을 기반으로 교육 경로를 엄격하게 나누고 있는 싱가포르나 별도의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교 시절의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 문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경험 혹은 일 경험 등을 인정받고 진학하는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 경험이나 고교 전공과 관련된 교육 경험, 직업 교육을 통해 획득한 자격 등을 대학 입학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다수 대학에서는 입학 전형에서 출신 고교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모든 지원자를 동일한 기준, 즉 고교 시절의 내신 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직업계고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등 직업교육의 경험을 대학 진학 과정에서 평가받고 부족한 학업 역량에 대해 고등교육 진입 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제3장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현황과 유형

제1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현황

제2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경로 유형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현황과 유형

제1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현황⁸⁾

1.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던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7년 저점을 기록한 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 60.7%였던 진학률은 2017년 30.9%까지 떨어졌으며, 2025년에는 2017년 대비 17.8%p 증가해 48.7%를 기록했다(〈표 3-1〉참조). 이러한 진학률의 증가에는 2017년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도입, 시도교육청 평가의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 폐지 등 고졸 취업 정책 변화와 더불어(관계부처합동, 2018; 안재영, 김세훈, 2022), 고졸 일자리 감소와 대졸자 선호 현상, 학생 개인의 진로 목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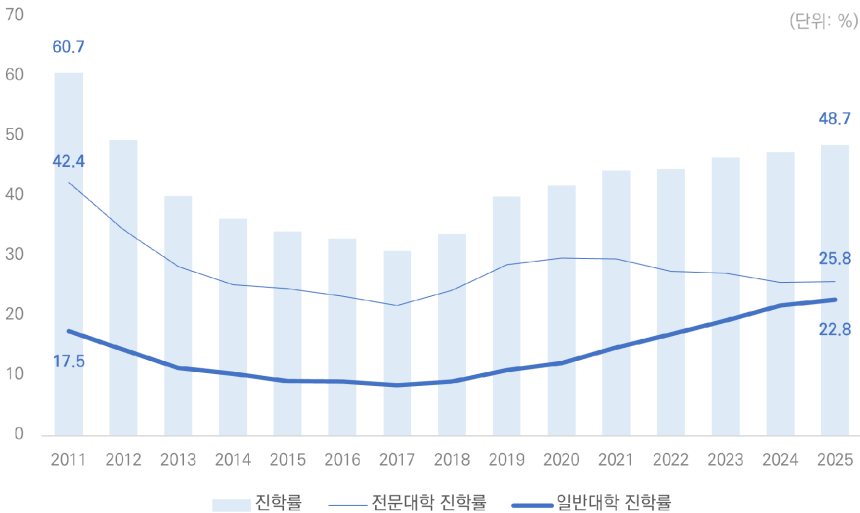
최근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이 전문대학

8)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일부 내용은 서울대학교 서예린 박사의 통계 분석 원고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54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에서 일반대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계고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률은 2011년 42.4%에서 2025년 25.8%로 16.6%p 감소한 반면, 일반대학 진학률은 2011년 17.5%에서 2024년 22.8%로 5.3%p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한 2021년 이후, 직업계고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일반대학 진학률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진학률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1]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황 (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일: 2025. 12. 30.)

〈표 3-1〉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¹⁾		기타 ²⁾	
			진학률		진학률		진학률		진학률
2011	119,959	72,758	60.7	50,881	42.4	21,051	17.5	826	0.7
2012	114,889	56,887	49.5	39,660	34.5	16,550	14.4	677	0.6
2013	110,274	44,235	40.1	31,192	28.3	12,605	11.4	438	0.4
2014	111,205	40,360	36.3	28,143	25.3	11,582	10.4	635	0.6
2015	107,112	36,673	34.2	26,368	24.6	9,857	9.2	448	0.4
2016	106,627	35,219	33.0	24,984	23.4	9,663	9.1	572	0.5
2017	101,766	31,451	30.9	22,224	21.8	8,645	8.5	582	0.6
2018	97,157	32,759	33.7	23,603	24.3	8,816	9.1	340	0.3
2019	95,340	38,132	40.0	27,303	28.6	10,508	11.0	321	0.3
2020	86,173	36,126	41.9	25,629	29.7	10,497	12.2	0	0.0
2021	75,807	33,632	44.4	22,411	29.6	11,221	14.8	0	0.0
2022	73,645	32,815	44.6	20,280	27.5	12,535	17.0	0	0.0
2023	68,805	31,981	46.5	18,687	27.2	13,294	19.3	0	0.0
2024	60,394	28,642	47.4	15,497	25.7	13,145	21.8	0	0.0
2025	56,973	27,731	48.7	14,716	25.8	13,015	22.8	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황(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일: 2025.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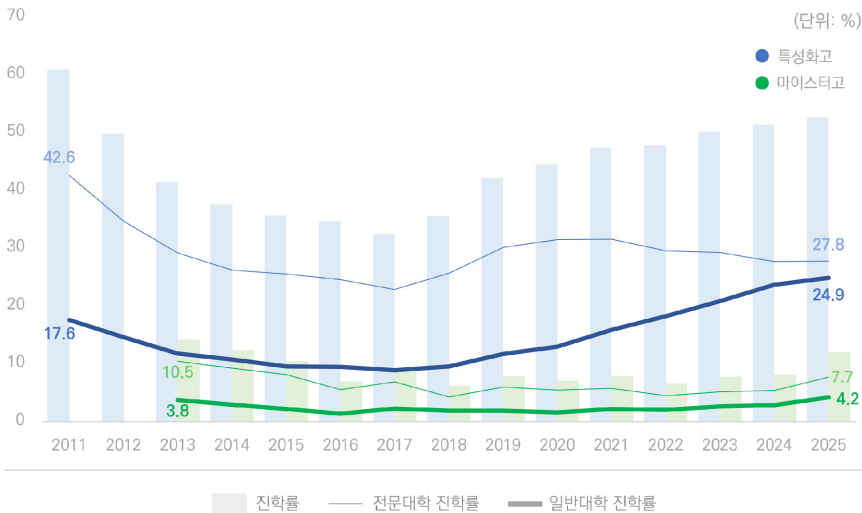
주 1) 교육대학 포함

2) 국내 각종 학교 및 국외 대학을 의미함

가. 학교 유형별 추이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를 학교 유형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60.9%에서 2017년 32.4%로 28.5%p 감소한 이후, 2025년에는 52.7%로 2017년 대비 20.3%p 증가했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의 진학률은 14.2%였으며, 2025년 진학률은 12.0%로 특성화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3-2> 참조).

[그림 3-2] 학교 유형별 진학률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황(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일: 2025. 12. 30.)

〈표 3-2〉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진학률		진학률		진학률
2011	113,896	69,358	60.9	48,536	42.6	20,023	17.6
2012	108,139	53,898	49.8	37,476	34.7	15,757	14.6
2013	104,994	43,483	41.4	30,640	29.2	12,406	11.8
2014	105,612	39,668	37.6	27,625	26.2	11,417	10.8
2015	100,941	36,028	35.7	25,864	25.6	9,719	9.6
2016	100,337	34,778	34.7	24,634	24.6	9,578	9.5
2017	95,131	30,839	32.4	21,767	22.9	8,492	8.9
2018	90,921	32,372	35.6	23,333	25.7	8,700	9.6
2019	89,146	37,642	42.2	26,929	30.2	10,392	11.7
2020	80,253	35,703	44.5	25,302	31.5	10,401	13.0
2021	69,905	33,164	47.4	22,070	31.6	11,094	15.9
2022	67,687	32,419	47.9	20,012	29.6	12,407	18.3
2023	62,740	31,506	50.2	18,373	29.3	13,133	20.9
2024	54,781	28,181	51.4	15,196	27.7	12,985	23.7
2025	51,384	27,063	52.7	14,284	27.8	12,779	24.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황(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일: 2025. 12. 30.)

〈표 3-3〉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진학률		진학률		진학률
2013	5,280	752	14.2	552	10.5	199	3.8
2014	5,593	692	12.4	518	9.3	165	3.0
2015	6,171	645	10.5	504	8.2	138	2.2
2016	6,290	441	7.0	350	5.6	85	1.4
2017	6,635	612	9.2	457	6.9	153	2.3
2018	6,236	387	6.2	270	4.3	116	1.9
2019	6,194	490	7.9	374	6.0	116	1.9
2020	5,920	423	7.1	327	5.5	96	1.6
2021	5,902	468	7.9	341	5.8	127	2.2
2022	5,958	396	6.6	268	4.5	128	2.1
2023	6,065	475	7.8	314	5.2	161	2.7
2024	5,613	461	8.2	301	5.4	160	2.9
2025	5,589	668	12.0	432	7.7	236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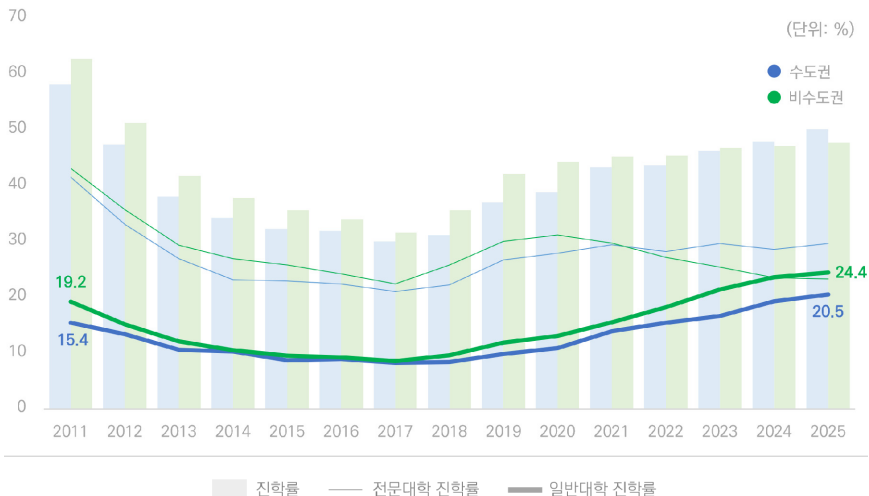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황(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일: 2025. 12. 30.)

주) 마이스터고는 졸업생 첫 배출 시점인 2013년부터 제시함

나. 지역별 추이

지역에 따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진학을 추이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대학 진학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전문대학 진학률은 2011년 43.1%에서 2025년 23.3%로 19.8%p 감소했으며, 일반대학 진학률은 2011년 19.2%에서 2025년 24.4%로 5.2%p 증가하였다(〈표 3-5〉 참조). 비수도권 지역 직업계고의 경우 2024년부터 전문대학 진학률 대비 일반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졌다. 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반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대학의 입학 자원 감소,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양질의 취업처 부족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 지역별 진학률 추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황 (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일: 2025. 12. 30.)

〈표 3-4〉 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진학률		진학률		진학률
2011	51,742	30,066	58.1	21,492	41.5	7,962	15.4
2012	49,039	23,193	47.3	16,162	33.0	6,587	13.4
2013	46,694	17,731	38.0	12,538	26.9	4,927	10.6
2014	46,844	16,033	34.2	10,807	23.1	4,820	10.3
2015	43,724	14,107	32.3	10,017	22.9	3,818	8.7
2016	44,340	14,125	31.9	9,922	22.4	3,929	8.9
2017	42,410	12,705	30.0	8,903	21.0	3,516	8.3
2018	40,838	12,704	31.1	9,049	22.2	3,428	8.4
2019	39,303	14,556	37.0	10,495	26.7	3,843	9.8
2020	36,549	14,172	38.8	10,186	27.9	3,986	10.9
2021	32,769	14,180	43.3	9,627	29.4	4,553	13.9
2022	31,747	13,839	43.6	8,942	28.2	4,897	15.4
2023	29,468	13,603	46.2	8,710	29.6	4,893	16.6
2024	25,333	12,118	47.8	7,241	28.6	4,877	19.3
2025	22,960	11,510	50.1	6,794	29.6	4,716	20.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황 (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일: 2025. 12. 30.)

〈표 3-5〉 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추이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전체	진학률	전문대학	진학률	일반대학	진학률
2011	68,217	42,692	62.6	29,389	43.1	13,089	19.2
2012	65,850	33,694	51.2	23,498	35.7	9,963	15.1
2013	63,580	26,504	41.7	18,654	29.3	7,678	12.1
2014	64,361	24,327	37.8	17,336	26.9	6,762	10.5
2015	63,388	22,566	35.6	16,351	25.8	6,039	9.5
2016	62,287	21,094	33.9	15,062	24.2	5,734	9.2
2017	59,356	18,746	31.6	13,321	22.4	5,129	8.6
2018	56,319	20,055	35.6	14,554	25.8	5,388	9.6
2019	56,037	23,576	42.1	16,808	30.0	6,665	11.9
2020	49,624	21,954	44.2	15,443	31.1	6,511	13.1
2021	43,038	19,452	45.2	12,784	29.7	6,668	15.5
2022	41,898	18,976	45.3	11,338	27.1	7,638	18.2
2023	39,337	18,378	46.7	9,977	25.4	8,401	21.4
2024	35,061	16,524	47.1	8,256	23.5	8,268	23.6
2025	34,013	16,221	47.7	7,922	23.3	8,299	24.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황(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일: 2025. 12. 30.)

2. 직업계고 졸업자의 입학 추이

가. 일반대학 현황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대학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는 31,558명으로 전체 대학 입학생 수의 8.4%를 차지하였다(〈표 3-6〉 참조).

〈표 3-6〉 일반대학 유형별 입학생 중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일반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2022	200	333,807	22,969 (6.9)	18	25,173	7,785 (30.9)
2023	199	334,421	24,738 (7.4)	18	24,065	7,859 (32.7)
2024	199	341,211	26,079 (7.6)	18	24,106	7,373 (30.6)
2025	199	350,377	25,843 (7.4)	18	23,408	5,326 (22.8)
연도	각종학교/산업대학			총계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2022	4	3,226	424 (13.1)	222	362,206	31,178 (8.6)
2023	4	3,329	429 (12.9)	221	361,815	33,026 (9.1)
2024	4	3,238	402 (12.4)	221	368,555	33,854 (9.2)
2025	4	3,059	389 (12.7)	221	376,844	31,558 (8.4)

자료: 대학알리미(2022~2025).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대학) [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일: 2025. 6. 30.)

주)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경우 2024년부터 19개교로 집계되나, 통계가 제시되지 않은 1개교(태재대학교)는 제외하여 학교 수를 제시함. 2023년 일반대학/교육대학은 교육통계상 총 200개교이나, 당시 폐교 예정이었던 1개교가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아 199개교로 제시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일반대학에서 전체 입학자 중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 대학 소재 지역별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2022	77	134,858	6,916 (5.1)	133	202,175	16,477 (8.1)
2023	77	135,991	7,415 (5.5)	132	201,759	17,752 (8.8)
2024	77	139,609	7,858 (5.6)	132	204,840	18,623 (9.1)
2025	77	142,478	7,874 (5.5)	132	210,958	18,358 (8.7)

자료: 대학알리미(2022~2025).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대학)[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일: 2025. 6. 30.)

주) 대학 소재지역(위치)의 영향이 없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하고 일반대학/교육대학, 각종 대학/산업대학만을 산출함

나. 전문대학 현황

전체 전문대학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는 2025년 기준 34,175명으로 일반대학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인 31,558명에 비해 소폭 높았다(〈표 3-8〉 참조). 그러나 전문대학의 전체 입학자 수 대비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능대학(폴리텍대학)의 경우 2022년 41.1%를 차지했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 비중은 현재 35.3%까지 낮아진 상황이었다(〈표 3-8〉 참조).

〈표 3-8〉 전문대학 유형별 입학생 중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2022	134	140,933	33,621 (23.9)	2	2,332	791 (33.9)
2023	133	137,241	32,778 (23.9)	2	2,228	725 (32.5)
2024	131	136,888	30,865 (22.5)	2	2,056	560 (27.2)
2025	130	146,166	31,463 (21.5)	2	2,014	568 (28.2)

연도	기능대학			총계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2022	9	6,568	2,701 (41.1)	145	149,833	37,113 (24.8)
2023	9	6,325	2,459 (38.9)	144	145,794	35,962 (24.7)
2024	9	6,155	2,295 (37.3)	142	145,099	33,720 (23.2)
2025	9	6,079	2,144 (35.3)	141	154,259	34,175 (22.2)

자료: 대학알리미(2022~2025).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전문대학)[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일: 2025. 6. 30.)

전문대학을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전문대학에서 전체 입학자 중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9〉 전문대학 소재 지역별 직업계고 출신 입학생 현황

(단위: 명, %)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학교 수	총 입학자 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비율)
2022	43	62,120	11,781 (19.0)	91	78,813	21,840 (27.7)
2023	42	60,511	11,499 (19.0)	91	76,730	21,279 (27.7)
2024	42	60,501	10,717 (17.7)	89	76,387	20,148 (26.4)
2025	42	62,431	9,978 (16.0)	88	83,735	21,485 (25.7)

자료: 대학알리미(2022~2025).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대학)[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일: 2025. 6. 30.)

주) 대학 소재지역(위치)의 영향이 없는 사이버대학과 여러 지역에 캠퍼스가 분산되어 있는 기능대학은 제외하고 산출함

다.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 현황

직업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 2025년 기준 일반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등록 인원은 4,448명이며 전문대학의 등록 인원은 103명으로 일반대학의 모집 인원과 등록 인원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3-10〉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일반대학의 경우 2025년 기준 수도권 지역 일반대학이 비수도권에 비해 입학생 수와 충원율이 모두 높았고, 전문대학은 반대로 비수도권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 일반대학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정책적 기조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있다는 점은 학령인구 감소로 전통적 학령기 인구의 입학 자원 부족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0〉 대학/전문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등록 인원 현황

(단위: 명, 개, %)

연도	대학								
	등록 인원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모집 학교 수	모집 인원(A)	등록 인원(B)	총원율 (B/A)	모집 학교 수	모집 인원(A)	등록 인원(B)	총원율 (B/A)
2022	4,185	28	3,031	2,933	96.8	41	2,529	1,252	49.5
2023	4,261	29	3,146	3,025	96.2	43	2,601	1,236	47.5
2024	4,468	34	3,747	3,552	94.8	47	2,375	916	38.6
2025	4,448	34	3,949	3,578	90.6	49	2,171	870	40.1
연도	등록 인원 합계	전문대학							
		수도권				비수도권			
		모집 학교 수	모집 인원(A)	등록 인원(B)	총원율 (B/A)	모집 학교 수	모집 인원(A)	등록 인원(B)	총원율 (B/A)
2022	289	14	580	120	20.7	16	250	169	67.6
2023	284	15	534	108	20.2	14	254	176	69.3
2024	221	16	497	57	11.5	18	350	164	46.9
2025	103	14	586	35	6.0	15	188	68	36.2

자료: 대학알리미(2022~2025).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대학/전문대학)[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일: 2025. 6. 30.)

주)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유형에서만 재직자 특별전형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유형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일반대학의 경우 매년 4,000명 이상이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누어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에서 재직자 특별전형 등록 인원수를 제외한 수치를 산출해 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중 40% 이상이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90% 이상이 재직자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을 통해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 등록 인원(추정) 현황

(단위: 명, %)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A)	재직자 특별전형(B)	그 외 전형 (A-B)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A)	재직자 특별전형(B)	그 외 전형 (A-B)
2022	6,916 (100.0)	2,933 (42.4)	3,983 (57.6)	16,477 (100.0)	1,252 (7.6)	15,225 (92.4)
2023	7,415 (100.0)	3,025 (40.8)	4,390 (59.2)	17,752 (100.0)	1,236 (7.0)	16,516 (93.0)
2024	7,858 (100.0)	3,552 (45.2)	4,306 (54.8)	18,623 (100.0)	916 (4.9)	17,707 (95.1)
2025	7,874 (100.0)	3,578 (45.4)	4,296 (54.6)	18,358 (100.0)	870 (4.7)	17,488 (95.3)

자료: 대학알리미(2022~2025).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대학)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일: 2025. 6. 30.)

주)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하고 산출함

라. 직업계고 졸업 이후의 입학 현황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에서 재직자 특별전형 등록 인원과 교육통계에서 집계되는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학자 수를 제외하면, 졸업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 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산출해 본 결과는 〈표 3-12〉와 같다. 해마다 직업계고 졸업 이후의 입학자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현재 대학 입학자 중 직업계고 출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고교 졸업 직후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대학 입학을 시도하는 학생 수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12〉 직업계고 졸업 이후의 입학자 규모(추정)

(단위: 명, %)

연도	일반대학			
	대학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A)	재직자 특별전형 등록 인원(B)	해당연도 직업계고 졸업자 중 일반대학 진학자(C)	직업계고 졸업 이후 입학자 수(추정) (A-(B+C))
		졸업 → 취업 → 취업상태 진학	졸업 → 진학	졸업 → 공백/단기취업 등 → 진학
2022	31,178 (100.0)	4,185 (13.4)	12,535 (40.2)	14,458 (46.4)
2023	33,026 (100.0)	4,261 (13.7)	13,294 (42.6)	15,471 (49.6)
2024	33,854 (100.0)	4,468 (14.3)	13,145 (42.2)	16,241 (52.1)
2025	31,558 (100.0)	4,448 (14.1)	13,015 (41.2)	14,095 (44.7)
연도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A)	재직자 특별전형 등록 인원(B)	해당연도 직업계고 졸업자 중 전문대학 진학자(C)	직업계고 졸업 이후 입학자 수(추정) (A-(B+C))
		졸업 → 취업 → 취업상태 진학	졸업 → 진학	졸업 → 공백/단기취업 등 → 진학
2022	37,113 (100.0)	289 (0.8)	20,280 (54.6)	16,544 (44.6)
2023	35,962 (100.0)	284 (0.8)	18,687 (50.4)	16,991 (45.8)
2024	33,720 (100.0)	221 (0.6)	15,497 (41.8)	18,002 (48.5)
2025	34,175 (100.0)	103 (0.3)	14,716 (43.1)	19,356 (56.6)

자료: 대학알리미(2022~2025).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대학)[데이터 세트].
(자료인출일: 2025. 6. 30.)
대학알리미(2022~2025).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대학)[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일: 2025. 6. 30.)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
황(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일: 2025. 12. 30.)

제2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경로 유형

1. 분석 개요

가.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조사에 모두 참여한 자로서, 고등학교 유형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 해당하며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졸업을 완료한 자로 설정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1,93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KEEPⅡ 3~7차년도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되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1~2차년도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목록은 <표 3-13>과 같으며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4>와 같다.

〈표 3-13〉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목록

구분		변수명	분석 자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공통	학생 ID	Y16SID	●						
	고등학교 유형	Y16STYPE	●						
	고등학교 졸업 시기	Y17SA01001		●					
	현재 학력	Y19SY01003			●				
	최종학교 졸업 여부	Y19SY01004			●				
진학 채널	대학교 유형	Y19SB02001-Y23SB02001			●	●	●	●	●
	대학교 학과/전공	Y19SB02004C-Y23SB02004C			●	●	●	●	●
	1학기 학적상태	Y19SB04001-Y23SB04001			●	●	●	●	●
	2학기 학적상태	Y19SB05001-Y23SB05001			●	●	●	●	●
취업 채널	현재 일자리 유무	Y19SH01001-Y23SH01001			●	●	●	●	●
	주된 일자리 유형	Y19SH01003-Y23SH01003			●	●	●	●	●
	일을 시작한 시기	임금근로자	Y19SH02005-Y23SH02005			●	●	●	●
		자영업자 등	Y19SH03003-Y23SH03003			●	●	●	●
		무급가족종사자	Y19SH04001-Y23SH04001			●	●	●	●
	지난 일자리 지속 여부	Y20SP01001-Y23SP01001				●	●	●	●
	지난 일자리 그만둔 시기	Y20SP01002-Y23SP01002				●	●	●	●
	일-전공 일치도	임금근로자	Y19SH02047-Y23SH02047			●	●	●	●
		자영업자 등	Y19SH03027-Y23SH03027			●	●	●	●
		무급가족종사자	Y19SH04014-Y23SH04014			●	●	●	●
	군입대 시기	Y19SO01002-Y23SO01002			●	●	●	●	●
	군전역 시기	Y19SO01003-Y23SO01003			●	●	●	●	●
일반 특성	성별	GENDER	●						
	고등학교 유형	Y16STYPE	●						
	고등학교 전공	Y16S01004c	●						
	현재 학력	Y19SY01003-Y23SY01002			●	●	●	●	●
	최종 학력	Y19SY01001-Y23SY01001			●	●	●	●	●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1차년도(2016)~7차년도(2023)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표 3-14〉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일반적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195	61.9
	여성	735	38.1
	소계	1,930	100.0
고등학교 유형	특성화고	1,345	69.7
	마이스티고	585	30.3
	소계	1,930	100.0
고등학교 전공	02. 예술 및 인문학	178	9.2
	04. 경영, 행정 및 법	433	22.4
	05.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13	0.7
	06. 정보통신기술	64	3.3
	07. 공학, 제조 및 건설	1,013	52.5
	08. 농림어업 및 수의학	21	1.1
	09. 보건 및 복지	33	1.7
	10. 서비스	175	9.1
	소계	1,930	100.0
대학 진학 여부	진학	925	47.9
	미진학	1,005	52.1
	소계	1,930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435	74.4
	전문대학 졸업	364	18.9
	일반대학 졸업	131	6.8
	소계	1,930	1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주 1) 고등학교 전공: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대분류 기준 '00.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01. 교육', '03.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은 응답자 중 해당 전공자가 없어 제외함

주 2) 최종 학력: 7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7차년도 조사 응답 시점(2023년 3월 기준)의 최종 학력 상태를 의미함

나. 변수 처리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이후 진학 및 취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시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진학 채널과 취업 채널 각각에 대해 상태 변수(status)를 생성하여 시퀀스를 구성하였다. 각 채널별로 시퀀스를 구성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학 채널은 전공 일치도와 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상태 변수를 구성하였다. 전공 일치도는 고등학교 전공과 대학 전공을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의 대분류 수준에서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M(Matched)', 불일치하는 경우 'NM(Not Matched)'으로 구분하였다. 학교 유형은 대학 유형을 기준으로 전문대학(College), 일반대학(University)으로 분류하였다. 고교 전공과 대학 전공이 일치하고 대학이 전문대학인 경우 'MC'로 분류하였고, 고교 전공과 대학 전공이 일치하고 대학이 일반대학인 경우에는 'MU'로 분류하였다. 또한 '휴학' 상태는 'LA(Leave of Absence)', '중퇴'나 '졸업'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는 'UE(Un-Enrollment)'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상태 변수 코딩은 학기별(1학기, 2학기) 학적 상태 변수에 따라 처리하였다. 즉, 고교 전공과 유사한 전공으로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으면서 1학기(3~8월)가 '이수'인 경우 해당 기간은 'MC'가 된다. 한편, 연속성 있게 수집되는 패널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도에 특정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유형이나 학적 상태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 경우 대안적으로 '현재 학력'을 조사한 변수를 참고하였다. 특정 연도에서 학기별 학적 응답 값이 결측이거나 '현재 학력' 변수의 응답 값이 '중퇴'나 '휴학'인 경우 해당연도 2학기는 이를 고려하여 상태 변수를 처리하고, 1학기는 전년도 상태와 동일하게 재학 중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NA(Not Available)'로 처리하였다.

취업 채널은 주된 일자리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전공 일치도와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상태 변수를 구성하였다. 전공 일치도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일-전공 일치도'를 활용하여,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을 일치, 3점 이하를 불일치로 구분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Regular employee), 임시·일용직(Temporary employee), 자영업자(Self-employment),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 등으로 나누었으며, 전공 일치도와 각 상태를 조합하여 총 11개의 취업 상태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상태 변수는 근무 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각 시점에 입력하였다. 더불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취업 채널에 'MS(Military Service)'를 포함시켰다. 군복무는 전공 일치도 및 종사상 지위 등과는 별개로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다만 3차년도부터 해마다 '현재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일자리 상태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 만약 해당 연도 중 이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 시점에서는 현재 주된 일자리만 묻기 때문에 이직 전 일자리 정보가 없어 실질적인 취업 경로의 전환이나 동일 일자리 내에서의 세부 조건 변화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근무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와 같은 정보 외에도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반영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동일한 일자리를 지속하면서 전공 일치도나 종사상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 전체 근무 기간을 등분하여 이를 전환 시점으로 적용하였다. 이 밖에도 진학 및 취업 채널 모두에서 시퀀스 관련 변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NA' 상태로 일관되게 처리하였다.

〈표 3-15〉 진학 및 취업 채널 시퀀스 입력 방식

구분	진학 상태	상태 입력 기준		시점 입력 기준
		전공 일치도	학교 유형	
MC	전공일치-전문대학	일치	전문대학	• 1학기: 3~8월 • 2학기: 9~2월
MU	전공일치-일반대학	일치	일반대학	
NMC	전공불일치-전문대학	불일치	전문대학	
NMU	전공불일치-일반대학	불일치	일반대학	
LA	휴학	-	-	
UE	미진학/중퇴/졸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NA	정보미상	정보미상	정보미상	
구분	취업 상태	상태 입력 기준		시점 입력 기준
		전공 일치도	종사상 지위	
MR	전공일치-상용직	일치	상용직	• 근무 시작 시기 • 근무 종료 시기
MT	전공일치-임시/일용직	일치	임시/일용직	
MSE	전공일치-자영업 등	일치	자영업 등	
MUF	전공일치-무급가족종사자	일치	무급가족종사자	
NMR	전공불일치-상용직	불일치	상용직	
NMT	전공불일치-임시/일용직	불일치	임시/일용직	
NMSE	전공불일치-자영업 등	불일치	자영업 등	
NMUF	전공불일치-무급가족종사자	불일치	무급가족종사자	
MS	군복무	-	-	
UE	미취업	-	해당 없음	
NA	정보미상	정보미상	정보미상	

자료: 연구자 작성

주 1) 진학 채널의 NA(정보미상)는 전공 일치도와 학교 유형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정보가 미상인 경우에 입력되었음

주 2) 취업 채널의 NA(정보미상)는 전공 일치도와 종사상 지위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정보가 미상인 경우에 입력되었음

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상태와 취업 상태를 각각의 시퀀스로 정의하고, 이를 이중 채널 구조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시퀀스 간 유사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OM)을 적용하였다. 시퀀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및 취업 경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화 방법으로는 Ward 군집 분석(Ward's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시퀀스 간 거리 행렬을 기반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실시하였다. 군집 수 결정을 위해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적절한 절단 지점을 확인하였고, 군집 수(k)를 3개부터 6개까지 제한하여 각 경우의 군집 내 응집도(average within distance), 군집 간 분리도(average between distance), 실루엣 너비(silhouette width) 등 주요 결정 지수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과 기술통계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R에서 제공하는 TraMineR 패키지를 활용하여 시퀀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2.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진학취업 경로

시퀀스 분석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이후 진학 및 취업 경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은 전체 표본($n=1,930$)을 대상으로 진학 채널과 취업 채널 각각에서 대표 시퀀스를 빈도순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진학 채널에서는 고교 졸업 후 60개월간(2018년 3월~2023년 2월)

미진학 상태인 'UE/60' 시퀀스가 1,014명(52.5%)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60개월간 전공불일치 전문대학 상태인 'NMC/60' 시퀀스가 6.2%로 나타났다. 취업 채널에서는 60개월간(2018년 3월~2023년 2월) 미취업 상태인 'UE/60' 시퀀스가 102명(5.3%)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진학 채널에 비해 경로 다양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6〉 진학 및 취업 채널별 상위 시퀀스 빈도표

(단위: 명, %)

진학 채널			
순위	시퀀스	빈도	비율
1	UE(미진학)/60	1,014	52.5
2	NMC(전공불일치-전문대학)/60	120	6.2
3	MC(전공일치-전문대학)/60	57	3.0
4	NMU(전공불일치-일반대학)/60	30	1.6
5	UE(미진학)/36-MU(전공일치-일반대학)/24	27	1.4
취업 채널			
순위	시퀀스	빈도	비율
1	UE(미취업)/60	102	5.28
2	MR(전공일치-상용직)/60	26	1.35
3	NMR(전공불일치-상용직)/60	25	1.3
4	UE(미취업)/48-MR(전공일치-상용직)/12	8	0.41
5	UE(미취업)/15-MS(군복무)/20-UE(미취업)/25	7	0.36

자료: 연구자 작성

〈표 3-17〉은 전체 표본($n=1,930$)에 대해 진학 및 취업 채널에서의 상태별 평균 지속기간을 정리한 결과이다. 먼저, 진학 채널에서는 ‘UE(미진학)’ 상태의 평균 지속기간이 37.6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이는 앞서 진학 경로가 미진학 상태에 집중되었다는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는 ‘NMC(전공 불일치-전문대학)’ 6.7개월, ‘LA(휴학)’ 4.7개월, ‘MC(전공일치-전문대학)’ 4.2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채널에서도 ‘UE(미취업)’ 상태가 평균 23.0개월로 가장 오래 지속되었으며, ‘MR(전공일치-상용직)’ 11.2개월, ‘MS(군복무)’ 11.7개월이 유사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표 3-17〉 진학 및 취업 채널별 상태 평균 지속기간

(단위: 개월)

진학 채널			취업 채널		
순위	상태	평균 지속기간	순위	상태	평균 지속기간
1	UE	37.6	1	UE	23.0
2	NMC	6.7	2	MR	11.2
3	LA	4.7	3	MS	11.7
4	MC	4.2	4	NMR	9.6
5	NMU	3.8	5	NMT	2.7
6	MU	2.8	6	MT	0.8
7	NA	0.3	7	NMSE	0.4
-			8	MSE	0.3
			9	NA	0.2
			10	NMUF	0.2
			11	MUF	0.03

자료: 연구자 작성

3. 유형별 분석 결과

가. 유형 1: 미진학형($n=585$, 30.3%)

유형 1은 5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유형에 속한 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60개월(2018년 3월~2023년 2월) 동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를 보였으며, 이에 7차년도 조사 시점(2023년 3월)에서의 최종 학력이 '고졸'인 상태가 99.5%였다. 유형 1에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72.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 54.5%, 여성 45.5%로 성별 비율은 유사하였다(〈표 3-18〉 참조).

〈표 3-18〉 ‘미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유형 1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19	54.5%	1,195	61.9%
	여성	266	45.5%	735	38.1%
고등학교 유형	특성화고	425	72.7%	1,345	69.7%
	마이스터고	160	27.4%	585	30.3%
고등학교 전공	02. 예술 및 인문학	54	9.2%	178	9.2%
	04. 경영, 행정 및 법	162	27.7%	433	22.4%
	05.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9	1.5%	13	0.7%
	06. 정보통신기술	8	1.4%	64	3.3%
	07. 공학, 제조 및 건설	287	49.1%	1,013	52.5%
	08. 농림어업 및 수의학	6	1.0%	21	1.1%
	09. 보건 및 복지	12	2.1%	33	1.7%
	10. 서비스	47	8.0%	175	9.1%
대학 진학 여부	미진학	537	91.8%	1,005	52.1%
	진학	48	8.2%	925	4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582	99.5%	1,435	74.4%
	전문대학 졸업	2	0.3%	364	18.9%
	일반대학 졸업	1	0.2%	131	6.8%
소계		585	100.0%	1,930	1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주 1) 고등학교 전공: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대분류 기준에서 ‘00.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01. 교육’, ‘03.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에는 응답자 중 해당 전공자가 없어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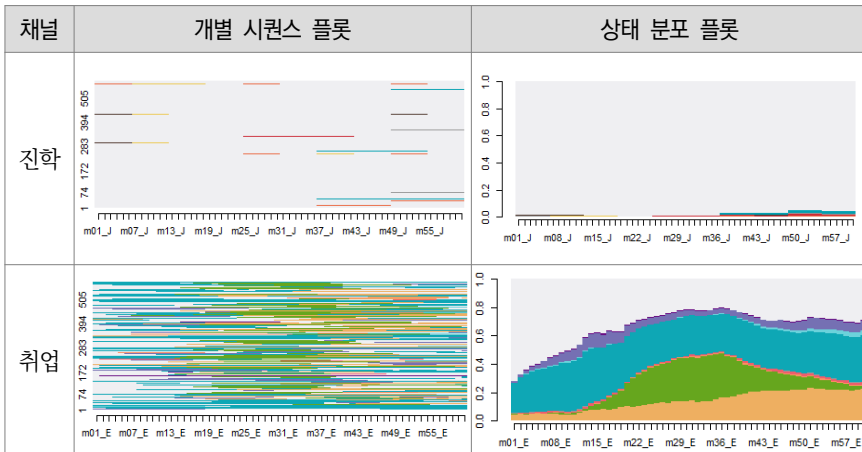
주 2) 최종 학력: 7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7차년도 조사 응답 시점(2023년 3월 기준)의 최종 학력 상태를 의미함

유형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직업계고 졸업 후 1개월 시점에서는 'UE(미진학)' 상태가 553명으로 94.5%를 차지하였고, 60개월 시점에서도 'UE(미진학)' 상태의 비율이 높았다. 시각화된 시퀀스 분포를 통해 이러한 경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개별 시퀀스 플롯은 개별 케이스의 종단적 변화를 수평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상태 분포 플롯은 시점별 상태별 분포 비율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진학 채널의 상태 분포 플롯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UE(미진학)'에 해당하는 연회색 상태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유형 1에 속하는 일부 학생들에게서 'NMU(전공불일치-일반대학)', 'MU(전공일치-일반대학)', 'MC(전공일치-전문대학)' 상태가 간헐적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평균 지속기간이 평균 1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았다. 이는 해당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진학을 선택하였지만 중도 포기 등 단기간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유형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취업 상태는 졸업 후 1개월 시점에서 'UE(미취업)' 상태가 422명으로 72.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NMR(전공불일치-상용직)' 상태가 123명으로 21.0%를 차지하였다. 이에 [그림 3-4]의 상태 분포 플롯에서 취업 채널의 'NMR'에 해당하는 청록색 비율이 약 20% 정도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특정 시점에서는 'MS(군복무)'에 해당하는 연두색 비율이 등장하고 있으며, 졸업 직후 시점에서는 'MR(전공일치-상용직)' 비율이 높지 않으나 군복무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졸업 후 60개월 시점에서는 'MR(전공일치-상용직)' 비율도 상당수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형 1은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여 노동시장에 서서히 진입하되, 전공일치 또는 전공불일치 상용직이나 군복무 등의 다양한 고용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 1은 '미진학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4] ‘미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주 1) 진학: MC, MU, NMC, NMU, LA, UE, NA
 주 2) 취업: MR, MT, MSE, MUF, NMR, NMT, NMSE, NMUF, MS, UE, NA

나. 유형 2: 전공일치 진학형($n=305$, 15.8%)

유형 2는 총 30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17.7%)에 비해 남성(82.3%)의 비중이 높았고, 출신 고교 유형으로는 특성화고 출신이 86.9%로 유형 2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전공은 ‘공학, 제조 및 건설’ 분야가 55.7%로 가장 많았고, 직업계고 졸업 후 60개월 기간 동안 유형 2에 해당하는 305명 전원이 대학에 진학한 이력이 있었다. 7차년도 조사 시점(2023년 3월)에서 최종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29.5%, 일반대학 졸업이 17.7%로 유형 2의 47.2%가 대학을 졸업한 상태이며, 그 외 52.8%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표 3-19〉 참조).

〈표 3-19〉 ‘전공일치 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유형 2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51	82.3%	1,195	61.9%
	여성	54	17.7%	735	38.1%
고등학교 유형	특성화고	265	86.9%	1,345	69.7%
	마이스터고	40	13.1%	585	30.3%
고등학교 전공	02. 예술 및 인문학	29	9.5%	178	9.2%
	04. 경영, 행정 및 법	60	19.7%	433	22.4%
	05.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0	0.0%	13	0.7%
	06. 정보통신기술	16	5.3%	64	3.3%
	07. 공학, 제조 및 건설	170	55.7%	1,013	52.5%
	08. 농림어업 및 수의학	4	1.3%	21	1.1%
	09. 보건 및 복지	3	1.0%	33	1.7%
	10. 서비스	23	7.5%	175	9.1%
대학 진학 여부	미진학	0	0.0%	1,005	52.1%
	진학	305	100.0%	925	4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61	52.8%	1,435	74.4%
	전문대학 졸업	90	29.5%	364	18.9%
	일반대학 졸업	54	17.7%	131	6.8%
소계		305	100.0%	1,930	1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주 1) 고등학교 전공: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대분류 기준에서 ‘00. 일반 프로그램 및 자각’, ‘01. 교육’, ‘03.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에는 응답자 중 해당 전공자가 없어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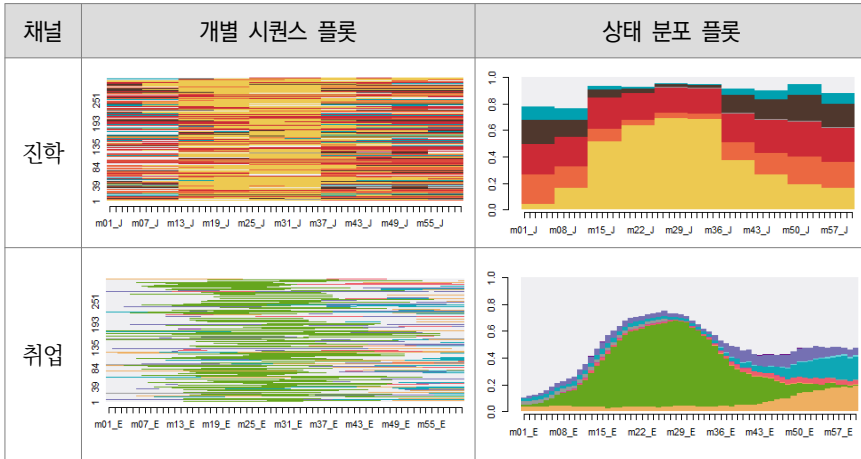
주 2) 최종 학력: 7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7차년도 조사 응답 시점(2023년 3월 기준)의 최종 학력 상태를 의미함

유형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직업계고 졸업 후 다양한 진학 상태를 보였다. 졸업 후 1개월 시점에서 'MU(전공일치-일반대학)'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23.5%, 'MC(전공일치-전문대학)'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22.7%였으며, 'NMU(전공불일치-일반대학)' 상태는 9.8%, 'NMC(전공불일치-전문대학)' 상태는 18.0% 비율을 보였다. 즉, 고교 졸업 시점에서 이미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74.0%로 높고, 이 중에서는 전공일치 진학이 더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이에 [그림 3-5]의 진학 채널 상태 분포 플롯을 보면 'MU(전공일치-일반대학)'에 해당하는 빨간색과 'MC(전공일치-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주황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형 2에 속한 305명의 학생들에서는 'LA(휴학)' 상태의 평균 지속기간이 22.3개월로 길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 채널의 'MS(군복무)' 기간과 중첩되고 있는데, 이로써 유형 2는 대학에 진학한 남학생들의 군복무 이행기의 특성이 반영되어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의 학생이 고교 졸업 시점에서 진학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고교 졸업 1개월 시점의 취업 채널에서는 'UE(미취업)'의 비율이 89.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5]의 취업 채널 상태 분포 플롯의 연회색). 취업 채널에서 'MS(군복무)'의 평균 지속기간은 16.5개월이었는데, 진학 채널의 'LA(휴학)' 상태의 평균 지속기간보다 다소 짧았다. 이는 군복무 전후로도 휴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취업 채널의 각 상태는 모두 간헐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형 2는 고교 졸업 이후 비교적 빠르게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과 휴학 상태를 거치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전공불일치보다 전공일치 진학의 비율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유형 2를 '전공일치 진학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5] ‘전공일치 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주 1) 진학: MC, MU, NMC, NMU, LA, UE, NA
 주 2) 취업: MR, MT, MSE, MUF, NMR, NMT, NMSE, NMUF, MS, UE, NA

다. 유형 3: 전공불일치 진학형($n=322$, 16.7%)

유형 3은 총 322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16.7%를 차지한다. 유형 3에 속한 대상자 중에서는 여성이 68.3%를 차지하여 남성에 비해 더 높았다. 고등학교 유형은 특성화고가 89.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전공은 ‘경영·행정 및 법’(37.9%)과 ‘공학·제조 및 건설’(25.2%)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고교 졸업 후 60개월 동안 유형 3에 속한 모든 대상자가 대학 진학을 경험하였으며, 7차년도 시점에서 최종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50.9%), 4년제 대학 졸업(21.4%) 순으로 나타나, 유형 2에 비해 대학 학업을 끝마친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유형 3은 여학생 중심의 집단이기 때문에 대학 학업 공백기가 적고 비교적 빠르게 대학을 졸업한 집단으로 보인다(<표 3-20> 참조).

〈표 3-20〉 '전공불일치 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유형 3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2	31.7%	1,195	61.9%
	여성	220	68.3%	735	38.1%
고등학교 유형	특성화고	287	89.1%	1,345	69.7%
	마이스터고	35	10.9%	585	30.3%
고등학교 전공	02. 예술 및 인문학	51	15.8%	178	9.2%
	04. 경영, 행정 및 법	122	37.9%	433	22.4%
	05.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1	0.3%	13	0.7%
	06. 정보통신기술	22	6.8%	64	3.3%
	07. 공학, 제조 및 건설	81	25.2%	1,013	52.5%
	08. 농림어업 및 수의학	6	1.9%	21	1.1%
	09. 보건 및 복지	6	1.9%	33	1.7%
	10. 서비스	33	10.3%	175	9.1%
대학 진학 여부	미진학	0	0.0%	1,005	52.1%
	진학	322	100.0%	925	4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89	27.6%	1,435	74.4%
	전문대학 졸업	164	50.9%	364	18.9%
	일반대학 졸업	69	21.4%	131	6.8%
소계		322	100.0%	1,930	1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주 1) 고등학교 전공: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대분류 기준에서 '00. 일반 프로그램 및 자각', '01. 교육', '03.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에는 응답자 중 해당 전공자가 없어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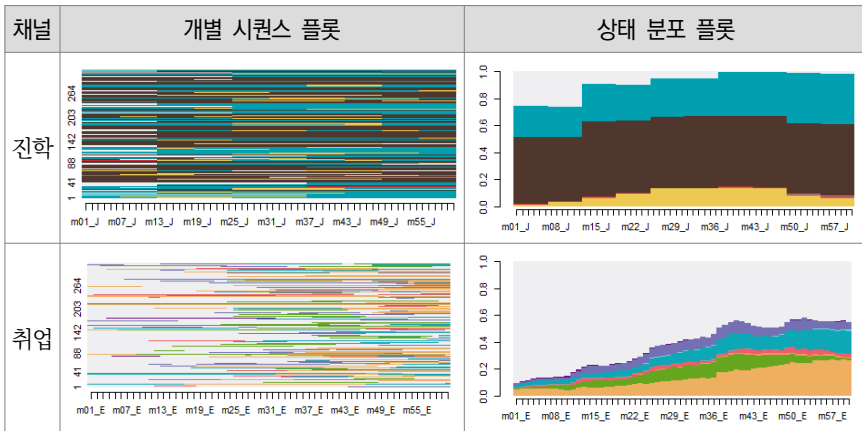
주 2) 최종 학력: 7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7차년도 조사 응답 시점(2023년 3월 기준)의 최종 학력 상태를 의미함

유형 3의 고교 졸업 후 1개월 시점을 살펴보면 ‘NMC(전공불일치-전문대학)’ 상태가 49.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으며(그림 3-6) 진학 채널 상태 분포 플롯에서 갈색 부분), ‘NMU(전공불일치-일반대학)’ 상태도 23.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그림 3-6) 진학 채널 상태 분포 플롯에서 청록색 부분). 유형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상태별 평균 지속기간은 ‘NMC(전공불일치-전문대학)’ 상태가 평균 31.4개월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고교 졸업 후 전공 불일치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2~3년간의 학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교 졸업 후 1개월 시점의 ‘NMU(전공불일치-일반대학)’ 상태 비율보다 고교 졸업 후 60개월 시점에서의 ‘NMU(전공불일치-일반대학)’ 상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7차년도 시점에서 최종 학력이 전문대졸 비율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대학 졸업 후 일반대학으로의 편입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유형 3에 속한 학생들 다수가 대부분 진학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고교 졸업 후 1개월 시점에서의 취업 상태는 ‘UE(미취업)’ 비율이 90.7%로 가장 높았다(그림 3-6) 취업 채널 상태 분포 플롯에서 연회색 부분). 그 외 다양한 취업 상태가 산발적으로 존재하였고 졸업 후 60개월 시점으로 지나면서 취업 상태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긴 하였으나, 상태별 평균 지속기간은 ‘MR(전공일치-상용직)’ 상태가 5.7개월, ‘NMR(전공불일치-상용직)’ 상태가 4.9개월 등으로 단기 취업 형태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형 3은 고교 졸업 후 고교 전공과 다른 계열의 전공으로 진학을 실현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간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유형 3을 ‘전공불일치 진학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6] '전공불일치 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주 1) 진학: MC, MU, NMC, NMU, LA, UE, NA

주 2) 취업: MR, MT, MSE, MUF, NMR, NMT, NMSE, NMUF, MS, UE, NA

라. 유형 4: 선취업-후진학형($n=619$, 32.1%)

유형 4에는 전체 분석 대상자 1,930명 중 619명이 해당하여 32.1%를 차지하였다. 이 유형은 남성의 비율이 79.0%로 압도적으로 높고, 출신 고교 유형에서는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공은 '공학·제조 및 건설' 계열이 71.2%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619명 중 고교 졸업 후 60개월 기간 동안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비율이 75.6%로 나타나 대학 학업보다는 취업을 중점적으로 이행하였다는 특성을 보인다(〈표 3-21〉 참조).

〈표 3-21〉 ‘선취업-후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유형 4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89	79.0%	1,195	61.9%
	여성	130	21.0%	735	38.1%
고등학교 유형	특성화고	281	45.4%	1,345	69.7%
	마이스터고	338	54.6%	585	30.3%
고등학교 전공	02. 예술 및 인문학	22	3.6%	178	9.2%
	04. 경영, 행정 및 법	66	10.7%	433	22.4%
	05.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2	0.3%	13	0.7%
	06. 정보통신기술	18	2.9%	64	3.3%
	07. 공학, 제조 및 건설	441	71.2%	1,013	52.5%
	08. 농림어업 및 수의학	3	0.5%	21	1.1%
	09. 보건 및 복지	4	0.7%	33	1.7%
	10. 서비스	63	10.2%	175	9.1%
대학 진학 여부	미진학	468	75.6%	1,005	52.1%
	진학	151	24.4%	925	4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595	96.1%	1435	74.4%
	전문대학 졸업	18	2.9%	364	18.9%
	일반대학 졸업	6	1.0%	131	6.8%
소계		619	100.0%	1,930	1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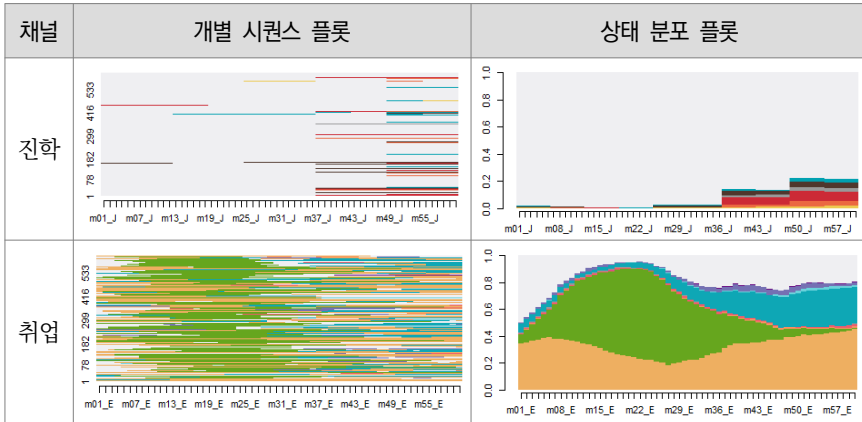
- 주 1) 고등학교 전공: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대분류 기준에서 ‘00.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01. 교육’, ‘03.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에는 응답자 중 해당 전공자가 없어 제외함
- 주 2) 최종 학력: 7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7차년도 조사 응답 시점(2023년 3월 기준)의 최종 학력 상태를 의미함

유형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고교 졸업 후 1개월 시점에서 'UE(미진학)' 상태가 98.4%로,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였다 (그림 3-7의 진학 채널 상태 분포 플롯의 연회색). 이후 진학 채널에서는 60개월 동안 미진학 비율이 대체로 유지되었으나, 일부 학생들에서는 후진학 이행이 관찰되었다. 졸업 후 60개월 시점의 'UE(미진학)' 상태 비율은 78.6%로 졸업 후 1개월 시점에 비해 낮아졌으며, 상태 분포 플롯을 살펴보면 졸업 후 36개월 시점부터 일부 진학 상태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4가 유형 1과 다른 점은 취업 채널에서 나타난다. 유형 4의 고교 졸업 후 1개월 시점의 취업 채널 상태를 살펴보면 'MR(전공일치-상용직)' 비율이 34.6%로(그림 3-7의 취업 채널의 황토색) 5개 유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 졸업 시점에서 전공불일치 분야로의 취업 이행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형 4의 경우 유형 1이나 유형 2 집단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MS(군복무)' 상태가 나타나 조기에 군복무를 이행한 후 취업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군복무 이후에는 'MR(전공일치-상용직)' 상태 비율이 유지되는 한편, 'NMR(전공불일치-상용직)' 비율도 상당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교 졸업 후 60개월 시점에서는 여전히 'MR(전공일치-상용직)' 비율이 34.8%로 고교 졸업 후 1개월 시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NMR(전공불일치-상용직)' 비율은 27.6%로 나타났다. 이는 군복무 이후 새로운 분야로의 취업을 시도한 학생들이 일정 수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형 4는 진학보다는 고교 전공과 관련된 취업 이행 경로가 먼저 형성되고, 졸업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일부가 진학을 시도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유형 4는 '선취업-후진학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7] ‘선취업-후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II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 주 1) 학업: MC, MU, NMC, NMU, LA, UE, NA
 주 2) 취업: MR, MT, MSE, MUF, NMR, NMT, NMSE, NMUF, MS, UE, NA

마. 유형 5: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n=99$, 5.1%)

유형 5는 전체 분석 대상자 1,930명 중 99명이 속하여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5의 경우 여성 비율이 65.7%로 남성보다 높았고, 출신 고교 유형 또한 특성화고가 87.9%에 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유형이었다. 고등학교 전공은 ‘공학·제조 및 건설’(34.3%) 외에도 ‘예술 및 인문학’(22.2%), ‘경영, 행정 및 법’(23.2%), ‘보건 및 복지’(8.1%)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고교 전공이 ‘예술 및 인문학’이나 ‘보건 및 복지’ 분야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유형 5에 속한 99명 모두 졸업 후 60개월 기간 동안 대학 진학을 경험한 상태였으며, 7차년도 조사 시점(2023년 3월)에서 최종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90.9%로 가장 많았다(〈표 3-22〉 참조).

〈표 3-22〉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일반적 특성		유형 5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4	34.3%	1,195	61.9%
	여성	65	65.7%	735	38.1%
고등학교 유형	특성화고	87	87.9%	1,345	69.7%
	마이스터고	12	12.1%	585	30.3%
고등학교 전공	02. 예술 및 인문학	22	22.2%	178	9.2%
	04. 경영, 행정 및 법	23	23.2%	433	22.4%
	05.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1	1.0%	13	0.7%
	06. 정보통신기술	0	0.0%	64	3.3%
	07. 공학, 제조 및 건설	34	34.3%	1,013	52.5%
	08. 농림어업 및 수의학	2	2.0%	21	1.1%
	09. 보건 및 복지	8	8.1%	33	1.7%
	10. 서비스	9	9.1%	175	9.1%
대학 진학 여부	미진학	0	0.0%	1,005	52.1%
	진학	99	100.0%	925	4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8	8.1%	1,435	74.4%
	전문대학 졸업	90	90.9%	364	18.9%
	일반대학 졸업	1	1.0%	131	6.8%
	소계	99	100.0%	1,930	100.0%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주 1) 고등학교 전공: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대분류 기준에서 ‘00.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01. 교육’, ‘03.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에는 응답자 중 해당 전공자가 없어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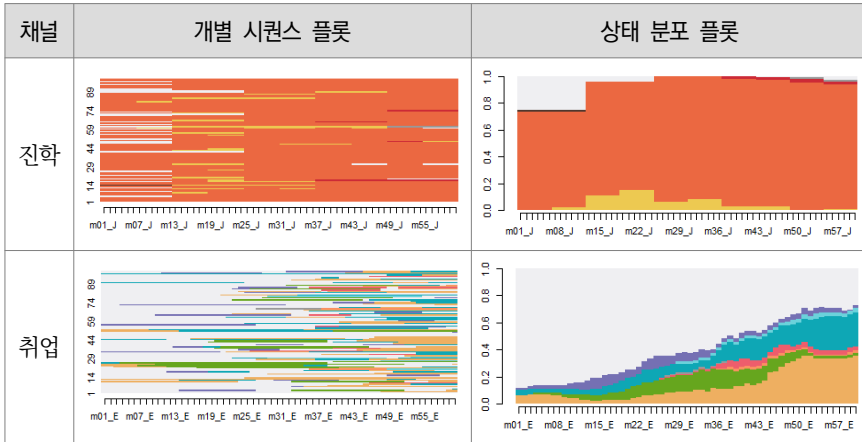
주 2) 최종 학력: 7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7차년도 조사 응답 시점(2023년 3월 기준)의 최종 학력 상태를 의미함

유형 5의 고교 졸업 후 1개월 시점의 진학 상태는 'MC(전공일치-전문대학)' 비율이 69.7%로 가장 높았으며(그림 3-8의 진학 채널 상태 분포 플롯의 주황색), 그 외 'UE(미진학)' 비율이 22.2%로 뒤를 이었다. 즉, 유형 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고교 졸업 후 대부분 전공일치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이행 경로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MC(전공일치-전문대학)' 상태의 평균 지속기간이 52.4개월로 나타나, 유형 3에서 전공불일치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과 달리 전문대학에서의 학업 지속기간이 매우 길었다.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형 5의 학생들은 전문대학 진학 후 학사학위 심화과정 등을 이수하고 졸업한 상태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취업 채널에서는 고교 졸업 후 1개월 시점에 'UE(미취업)' 비율이 8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 진학했기 때문에 취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E(미취업)'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서서히 다양한 취업 상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졸업 후 60개월 시점에서는 'MR(전공일치-상용직)' 비율이 35.4%, 'NMR(전공불일치-상용직)' 비율이 25.3%로 나타나 전문대학 졸업 학기를 전후하여 취업을 이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형 5는 직업계고 졸업 직후 전문대학 진학을 통해 고교 전공과 연계된 전공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한편, 전문대학에서 비교적 긴 학업 기간을 거친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유형 5는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8]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 개별 시퀀스 및 상태 분포 플롯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년도(2019)~7차년도(2023) 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 작성

- 주 1) 학업: MC, MU, NMC, NMU, LA, UE, NA
 주 2) 취업: MR, MT, MSE, MUF, NMR, NMT, NMSE, NMUF, MS, UE, NA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3〉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유형 분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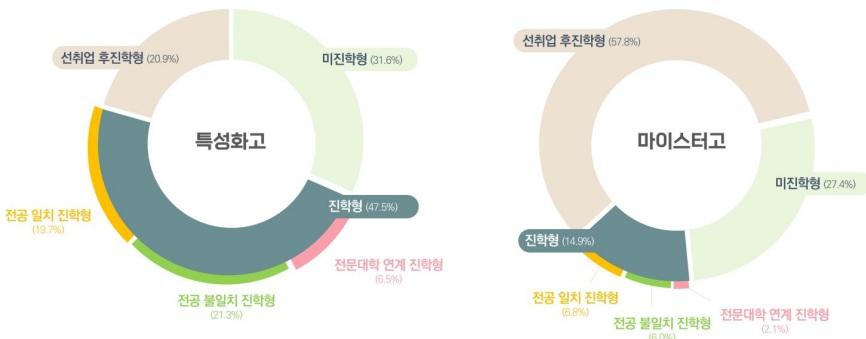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미진학형	전공일치 진학형	전공불일치 진학형	선취업 후진학형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
비중	585명 (30.3%)	305명 (15.8%)	322명 (16.7%)	619명 (32.1%)	99명 (5.1%)
성별	남성 54.5% 여성 45.5%	남성 82.3% 여성 17.7%	남성 31.7% 여성 68.3%	남성 79.0% 여성 21.0%	남성 34.3% 여성 65.7%
고교 유형	특 72.7% 마 27.4%	특 86.9% 마 13.1%	특 89.1% 마 10.9%	특 45.4% 마 54.6%	특 87.9% 마 12.1%
진학	▶ 졸업 후 60개월간 미진학 상태가 지배적	▶ 고교 전공일치 일반대학, 전문대학 진학이 지배적 ▶ 휴학 기간 길 게 나타남	▶ 고교 전공불일치 일반대학, 전문대학 진학이 지배적	▶ 졸업 후 36개월 이후부터 진학 상태 등장 ▶ 전문대학보다 일반대학 진학이 지배적	▶ 졸업 직후 전공일치 전문대학으로 진학 ▶ 전문대학 학업 기간이 길게 나타남 ▶ 휴학이 거의 관찰되지 않음
취업	▶ 졸업 직후는 미취업 상태 ▶ 시간이 지난 후 고교 전공 일치/불일치 상용직으로 진입	▶ 대부분 졸업 직후 미취업 상태 ▶ 대학 진학 중 군 휴학 등 긴 휴학 발생	▶ 대부분 졸업 직후 미취업 상태 ▶ 서서히 전공일치 상용직 취업 상태가 증가	▶ 고교 졸업 직후 전공일치 상용직으로 이행이 뚜렷 ▶ 군복무 시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이르게 나타남	▶ 전문대학 졸업 학기 전후로 전공일치 상용직, 전공불일치 상용직 취업 상태가 나타남

자료: 연구자 작성

주) 본 분석에서 활용한 KEEPⅡ 데이터의 경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비율이 70:30으로 모
집단 대비 마이스터고 학생이 과대 표집되었으므로 유형별 출신 고교 비율은 참고적으로만 해
석할 필요가 있음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분석 대상 1,345명 중 미진학형에 속한 학생은 425명으로 31.6%를 차지하였으며, 선취업 후진학형은 281명으로 20.9%를 차지하였다. 반면 마이스터고 분석 대상 585명 중 미진학형에 속한 학생은 160명으로 27.4%를 차지하였고, 선취업 후진학형에 속한 학생은 338명으로 57.8%를 차지하였다(그림 3-9)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선취업 후진학형이 우세한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는 진학형(전공일치형, 전공불일치형, 전문대학 연계형)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9] 학교 유형별 진학 유형 비중



자료: 연구자 작성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과거에는 직업계고 졸업자 상당수가 졸업 직후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7년 30.9%였던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매년 꾸준히 높아져 2025년에는 48.7%로 지난 10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표 3-1〉 참조). 이러한 진학률 증가는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취득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높은 학위나 전문 지식을 쌓으려는 수요가 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졸 취업 시장의 경쟁이나 양질의 일자리 제한 등이 작용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일반대학으로의 진학률 증가가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들에게 전문대학보다 일반대학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경향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25년 기준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52.7%로 전체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표 3-2〉 참조),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12.0%에 불과하다(〈표 3-3〉 참조). 이러한 차이는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과 목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마이스터고는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현장 취업 연계가 활발하며, ‘선취업’을 강조함에 따라 대학으로의 진학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선택에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교육 기회 분포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고졸 일자리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졸업자들이 지역 내 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즉시 취업 기회가 비교적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진학이나 다른 경로를 모색하는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반대학 진학률은 전문대학 진학률을 추월했는데(〈표 3-5〉 참조), 이는 지역의 취업 환경 악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경쟁이 완화되고, 비수도권 대학들이 학생 모집을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현상의 배경일 것이다.

대학알리미 통계 자료와 교육통계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했을 때는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그 외의 다른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산업체 재직 경험은 상위권 대학 진학의 기회로 작동되고 있으며,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고교 졸업 직후의 진학자나 재직자 특별전형 이외에도 고교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입학하는 학생 수와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입 시기와 경로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를 활용해 직업계고 졸업자 1,930명의 졸업 후 5년간의 이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선택하는 경로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각 유형은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여부와 시기, 그리고 취업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유형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약 30%를 차지하는 ‘미진학형’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졸업자들은 고졸 이후 바로 취업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만, 진학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졸업 후 5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미진학 상태로 보내며,

극소수만이 잠시나마 대학 진학을 경험하기도 한다. 취업 측면에서는 상당수가 졸업 직후 미취업 상태로 시작하여 노동시장에 서서히 진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때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는 경우가 주로 나타난다. 즉, ‘미진학형’은 대학 진학 없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선택하지만, 초기경력에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미진학형에는 특성화고 졸업자 비율이 72.7%로 다수를 차지했다.

두 번째 유형은 약 16%를 차지하는 ‘전공일치 진학형’이다. 이들은 전문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직업계고에서의 전공과 유사한 분야로 진학한다. 진로의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공일치 진학형’에 속하는 졸업자들은 자신의 직업교육 이수 경험을 살린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졸업 직후 바로 대학 재학 상태로 시작하며, 군 휴학을 포함해 학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 상태로 이동한 사례가 다수 관찰된다.

세 번째 유형인 ‘전공불일치 진학형(약 17%)’은 직업계고 졸업 후 즉시 대학에 진학하지만, 두 번째 유형과 달리 직업계고에서 배운 분야와 다른 분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로이다.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전공에 대한 적성 불일치로 인한 진로 변경,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술보다는 일반 학문 또는 다른 전문 분야에 관한 관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전공불일치 진학형’은 일종의 진로 전환 경로를 선택한 집단으로, 상업계열의 특성화고 졸업자와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전공일치 진학형’과 ‘전공불일치 진학형’이 유사한 규모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두 유형이 비슷한 비율로 공존한다는 점은 직업계고 재학생들에게 전략적인 진로 설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인 ‘선취업-후진학형’은 약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졸업 후 우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력을 시작하고, 약 3년 후 시점부터 점차 대학 진학 상태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들의 취업 상태에서는 초기에 미취업이나 병역 등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용직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들의 후진학 이행이 고용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취업-후진학은 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연계 진학형'은 약 5%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교적 특수한 경로로, 전문대학에 진학해 오랜 기간 머무르는 특징을 보인다. 특성화고 졸업자 및 여성 비율이 높은 이 유형은 전공과 일치하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나, 휴학을 반복하는 등 전문대학 소속으로 머무르는 기간이 길게 지속되었다. 취업 측면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학업과 취업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진로 이행이 지연된 상태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진학은 정책 기조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다시 대학 진학이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졸업자들의 경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진학과 미진학, 전공 연계와 비연계, 진학 시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이행의 양상을 보이며,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로 이행 경로가 매우 다변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로에 대한 시각이 '취업'과 '진학'의 이분적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선취업 후학습' 강조만으로는 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개인별 경로에 대응하는 세밀한 정책 접근을 기반으로, 각 경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동기와 의미 탐색

제1절 면담 개요

제2절 대학 진학 동기

제3절 대학 진학에서 나타난 특징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동기와 의미 탐색

제1절 면담 개요

본 장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등교육 참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때 ‘참여 의미’는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고교단계에서 선택한 전공과 진로 경로가 대학 진학단계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개별 면담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면담 대상은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현재 일반대학 2~4학년, 전문대학 2~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에 졸업한 학생 16명으로 설정하였다. 본 면담은 대학교육 경험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뤄야 하므로 대학교 1학년 학생은 제외하였다. 면담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전에 면담 목적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1인당 평균 한 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면담 대상자와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담 참여자

가. 대상자 표집

면담 대상자 표집은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패턴은 미진학, 일반 진학(전공일치, 전공불일치 등), 선취업 후진학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이하 일반 진학)한 학습자들과 선취업 후진학 경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습자들로 구분하여 1차 표집 틀을 설계하였다.

2차 표집 틀에서는 면담 대상자의 출신 고교 유형을 고려하였는데, 일반 진학의 경우 마이스터고보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심을 이루는 특징(제3장 제1절 참조)을 고려해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선정하였다. 선취업 후진학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 나타나는 특징(제3장 제2절 유형 4 참조)을 반영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모두를 표집하였다. 이후 3차 틀에서는 면담 대상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 유형을 고려하였는데, 일반 진학 범주에서 전문대학 진학이 별도 유형으로 구분된 점(제3장 제2절 유형 5 참조)을 반영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선취업 후진학의 경우 재직자 특별전형 등록 인원이 전문대학에 비해 일반대학 중심으로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 일반대학 후진학자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전문대학 사례도 1~2명 내외로 표집하여 소수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집 틀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직업계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졸업자 추천을 받았으며, 면담 대상자들의 특성이 중첩되지 않도록 추천 교사의

지역 분포, 전공 분포, 전공 변화 사례 등을 고려하였다. 총 24명의 학생을 추천받았으나 학생들의 전공 분포, 소속 대학⁹⁾, 면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면담 대상자는 16명으로 선정하였다.

〈표 4-1〉 면담 대상자 추출 틀

1차: 진학 유형	2차: 출신 고교 유형	3차: 소속 대학 유형	최종 표집
일반 진학	특성화고	일반대학	5명
		전문대학	4명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	일반대학	2명
		전문대학	1명
	마이스터고	일반대학	4명
총계			16명

자료: 연구자 작성

나. 대상자 특성

유형별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4-2〉 및 〈표 4-3〉과 같다.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신 고교의 명칭은 졸업 고교 명칭의 핵심 키워드만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9) 서로 다른 교사가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소속 대학이 중복되는 예도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 4-2〉 일반 진학 경로 면담 참여자의 특징

구분	성별	고교 지역	고교명(약칭)	고교 전공	고교 시절 진로 계획과 변화		
			고교 유형		입학	졸업	변경 시점
A	남	충남	농업고등학교	바이오식품과	취업	진학	고3 중
			특성화고				
B	여	서울	관광고등학교	관광서비스과	취업	진학	고3 초
			특성화고				
C	여	경기	영상고등학교	스마트영상통신과	뚜렷하지 않음	진학	고2 중
			특성화고				
D	여	울산	상업고등학교	금융과	취업	진학	고2 중
			특성화고				
E	남	서울	SW고등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취업	진학	고3 초
			특성화고				
F	여	경기	상업고등학교	정보과	취업	진학	고2 말
			특성화고				
G	남	경기	상업고등학교	정보과	취업	진학	고1 말
			특성화고				
H	여	광주	전자고등학교	디자인과	취업	진학	고2 말
			특성화고				
I	남	경남	기계고등학교	디지털전기과	취업	취업	(졸업 후 변경)
			특성화고				

자료: 연구자 작성

(표 계속)

〈표 4-2〉 일반 진학 경로 면담 참여자의 특징

구분	고교 졸업	대학 입학 전형	진학 대학 유형		대학 학과	학년	현재 진로
			지역	설립 유형			
A	2021. 2.	일반전형 (수시)	충남	국립대(일반)	식품영양학과	3학년	식품영양사
B	2022. 2.	동일계열 특별전형 (수시)	서울	사립대(일반)	관광학부	3학년 (휴학)	공기업 취업
D	2023. 2.	기회균등 (수시)	서울	사립대(일반)	전자공학부	3학년	통신 분야 취업
D	2022. 2.	지역인재 (수시)	부산	사립대(일반)	유아교육과	4학년	유치원 교사
E	2023. 2.	일반전형 (정시)	서울	국립대(일반)	재료공학부	3학년	창업
F	2023. 2.	일반전형 (수시)	경기	사립대(전문)	동물보건과	졸업	제과제빵사 (직업훈련 참여 중)
G	2023. 2.	일반전형 (수시)	경기	사립대(전문)	건축학과	2학년 (휴학)	건축사무소 취업
H	2024. 2.	특성화고 특별전형 (수시)	광주	사립대(전문)	물리치료과	2학년	물리치료사
I	2020. 2.	일반전형 (수시)	대구	사립대(전문)	화학공업과	2학년	석유화학 대기업 취업

자료: 연구자 작성

주) 대학 전공 음영은 고교 전공과 비동일계열 진학을 의미함

〈표 4-3〉 선취업 후진학 경로 면담 참여자의 특징

구분	성별	고교 지역	고교명(약칭)	고교 전공	진로 계획		고교 졸업	취업 시기
			고교 유형		입학	졸업		
J	여	경기	영상고등학교 특성화고	방송미디어과	취업	취업	2018. 2.	2017. 8.
K	남	경기	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영상제작과	취업	취업	2017. 2.	2016. 8.
L	남	전북	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토목과	취업	취업	2022. 2.	2021. 10.
M	여	충남	식품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식품제조공정과	취업	취업	2019. 2.	2019. 3.~ 2025. 1.~
N	남	대전	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전기전자과	취업	취업	2022. 12.	2023. 1.
O	남	충북	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반도체제조과	취업	취업	2021. 2.	2020. 10.~ 2021. 6.~
P	남	경북	기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금속가공과	취업	취업	2019. 2.	2019. 3.

자료: 연구자 작성

주) 취업 시기에 2개가 작성된 경우는 첫 번째 직장 입사 시기와 이후 이직한 회사 입사 시기를 의미함

(표 계속)

〈표 4-3〉 선취업 후진학 경로 면담 참여자의 특징

구분	취업 분야	고교전공 분야 취업	진학 시기	입학 전형	진로 계획		학과
	기업 유형				입학	졸업	
J	전기공급업	×	2023. 3.	재직자 특별전형	서울	국립대 (일반)	영어과 (건설환경공학 복수전공)
	공기업						
K	제조업(현미경)	×	2022. 3.	재직자 특별전형	서울	사립대 (일반)	신산업융합학과
	중소기업						
L	건설업	○	2024. 3.	야간대학 일반전형	전북	사립대 (전문)	토목과
	대기업						
M	식품제조업	○	2022. 3.	재직자 특별전형	경기	사립대 (일반)	SW융합공학과 (산업경영 복수)
	중견기업						
N	제조업(2차 전지)	○	2023. 3.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충남	사립대 (일반)	기전융합 공학과
	중소기업						
O	제조업(반도체 부품)	○	2023. 3.	재교육형 계약학과	충남	국립대 (일반)	전기전자응용 공학과
	중소기업						
P	검사분석업	○	2024. 3.	재직자 특별전형	서울	사립대 (일반)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공공) 연구소						

자료: 연구자 작성

주) 취업 분야, 기업 유형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기준으로 함

2. 면담 범위와 질문

면담은 학생들의 중학교 3학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삶 속에서 진로 선택의 장면에 놓인 순간을 중심으로 진로 선택의 과정과 교육 경험을 매칭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지는 1차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작성한 후 질문의 타당성 등에 대해 공동연구진 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표 4-4〉 면담 질문지

A. 배경 정보					
고교 정보	고교명		대학 정보	대학명	
	학과명			학과명	
	졸업 연도			입학 연도	
	현장실습 유무			입학 전형	
회사 정보	재직회사명			복수전공 여부	
	재직기간		학년/학적 상태		
	주요 직무				
	이직 경험 유무		(남학생만)	병역 이행 여부	
B. 진로 선택의 과정			C. 교육 경험 과정		

◆ 1차 선택과 변화: 중학교 3학년 ~ 특성화고 입학

- | | |
|--|---|
| <p>B1.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직업계고 입학을 선택한 주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 당시 직업계고 입학을 결정했을 때 부모님 또는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p> <p>B2. 입학한 학교와 학과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입니까?</p> <p>B3. 직업계고 입학 당시 생각했던 진로 방향은 무엇입니까? (진학, 취업 등)</p> | <p>C1. 직업계고 입학 후 경험한 학교 수업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점이 좋았고 적성에 맞다고 느꼈습니까?
- 혹은 반대로 어떤 면이 어렵고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까?</p> <p>C2.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재학 당시 공식적인 학교 수업 이외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예: 기능경기대회 출전,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p> |
|--|---|

B. 진로 선택의 과정	C. 교육 경험 과정
◆ 2차 선택과 변화: 특성화고 재학 시기 ~ 사회생활 진입 또는 대학 입학 B4. 직업계고 입학 후 초기에 생각했던 진로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취업 경험이 있는 자만) 본격적으로 취업을 결정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까? - (고등학교 시기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대학 진학을 결심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까? B5.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와 학과를 선택한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 (해당자만) 고교 전공이나 현재 직무와 무관한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6. 대학 입학 당시 생각했던 진로 방향은 무엇입니까?	
◆ 3차 선택과 변화: 대학 졸업 이후 ~ B7. 대학 졸업 이후 생각하고 있는 진로는 무엇입니까? 왜 해당 진로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D. 기타 공통 질문 D1. 만약 중학교 3학년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고교 진학 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D2.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 과정을 경험해 본 결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C3. (취업 경험이 있는 자만) 취업했을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직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C4. 대학 입학 전 대학교육을 통해 배우길 기대한 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실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5. 대학에서 경험한 수업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점이 좋았고 적성에 맞다고 느꼈습니까? - 혹은 반대로 어떤 면이 어렵고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까? - 대학 진학 후 학습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C6. (동일계열 전공 진학자만)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대학에서의 학습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7.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진로로 진출하는 데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공부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료: 연구자 작성

제2절 대학 진학 동기

1. 일반 진학자의 진학 동기

가. 고졸 취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

면담에 참여한 일반 진학자 대부분은 직업계고 입학 당시 ‘취업’이라는 진로를 희망했으나 도중에 ‘진학’으로 바뀐 사례였다. 학생들은 어떤 계기로 희망 진로를 ‘취업’에서 ‘진학’으로 바꾸게 된 것일까?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한 학생 중 일부는 고졸 취업의 한계를 인식하여 대학 진학을 선택한 유형이다. C, E, H 학생은 특성화고 재학 중에 고졸 신입의 낮은 연봉, 직무 전문성의 부족, 취업의 어려움, 주변 지인들의 대학 권유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하면서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선택하였다.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제일 컸던 거는 아무래도 연봉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바로 취업을 해서 그런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C 학생)

지금 취업하거나 일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일단은 대우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았고, 그 당시 고졸 신입 연봉 이런 거 찾아봤던 거로 기억해요. 되게 적다고 느꼈고 실무자나 테크 기업에서 올리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봤을 때, 아직도 모르겠다는 게 너무 많아서 ‘아, 이 정도로는 안 되겠구나…….’ (E 학생)

선생님들이 디자인과가 취업이 잘 안 된다는 말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 걸 이제 많이 들으면서 ‘진짜 취업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약간 마음을 접었어요. (H 학생)

나. 졸업 시점의 취업 제약으로 인한 대안적 선택

면담 대상자들 다수가 코로나19 시절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한 사례였다. 이에 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던 학생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의 장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A 학생은 진학에 관한 생각이 크지 않았으나, 식품 과학 분야로 출전을 준비했던 FFK 전국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제가 3년 동안 식품 과학으로 대회를 나갔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3학년 때는 전국대회가 취소됐어요. 3학년 1학기 도대회 때는 금상 탔었거든요. 여태껏 했던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살리고 싶었는데 마침 선생님들께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로 가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A 학생)

I 학생 또한 고교 시절 기술영재반에서 집중적인 기술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도 거두었지만, 졸업 시점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취업의 문이 차단되었다. 이로 인해 방황의 시기를 겪은 후 군복무를 먼저 이행하고, 다시 진로를 탐색하여 대학에 진학하였다.

(대기업을 목표로 했는데) 고3 때 코로나가 터져서 원하는 기업의 취업 문이 완전히 막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럼프가 왔어요. (I 학생)

고교 시절 공무원반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B 학생 또한 공무원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공무원 시험과 대학 진학 원서를 모두 접수하고 결국 대학에 합격한 사례였다. B 학생의 사례를 통해 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 진학이 대안적인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새로운 적성을 찾는 과정

D, F, G, H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 대학 진학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당시 전공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주변의 정보, 지인의 추천, 중학교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경우였다.

전공과목들도 배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저랑 잘 안 맞아서 고민했었어요. 제가 딱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학교 수업도 잘 못 나오고 이러니까 ... (중략) ... 뭔가 전공을 살려서 가면은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완전 아예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D 학생)

대학의 전공을 정하는 계기는 학생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경우(D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F 학생), TV나 매체의 모습을 토대로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경우(G 학생),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분야를 발견한 경우(H 학생) 등이 있었다. 고교 전공과 다른 전공을 선택한 학생 중 D, G, H 학생은 대체로 대학 전공에 적응하고 해당 분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F 학생의 경우 대학 전공에 대해서도 적성 불일치를 경험한 상태였다.

(특성화고에서) 뭔가 컴퓨터를 다루는 게 조금 복잡하고,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복잡하고 뭔가,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 (중략) ... 처음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동물병원에 취업하려고는 했는데, 생각을 해봐도 제과제빵 쪽에 뭔가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서 제과제빵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F 학생)

2. 선취업 후진학자의 진학 동기

가. 대학 진학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차별 경험

J 학생은 영상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특성화고 방송미디어과에 입학했으나, 기대와 달리 자신이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우연한 계기로 공무원반에 들어가 전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기 분야 공기 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J 학생이 입사한 회사는 학력 수준보다 경험, 경력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 스스로는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사례였다.

(취업 후) 저는 사실 (학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서 대학 졸업장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셔요. (J 학생)

K 학생도 J 학생과 유사한 사례이다. 거주지 인근 특성화고에서 신설된 영상 제작과를 보고 흥미를 느껴 입학하였지만, 2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나노 융합 기술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반도체 공정에 대해 배우고 생산직이 적성에 맞음을 발견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다가 군에 입대하였고, 군복무 중 만난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학 진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군대에서 전역을 몇 달 안 남긴 상황에서 친하게 지냈던 후임이자 형이 있었는데 전역하니까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면서 평균 학력이 낮을수록 군대에서 과몰입하는 경향이 심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저는 거기서 굶힌 거죠. (K 학생)

면담 참여자 중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식품 분야 중견기업에 취업한 M 학생은 첫 직장에서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같은 팀에서 대졸 신입 사원과 고졸 신입 사원이 함께 일하게 되면서 대졸 신입 사원 사이에서 고졸 사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3년의 근무 경력을 쌓은 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였다.

제가 있던 팀이 전부 다 대졸 공채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약간 업무적으로 좀 배제시키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 은연중에 약간 차별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아직 대한민국은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진학하게 됐어요. (M 학생)

나. 더 나은 경력 개발을 위한 진학

선취업 후진학 유형의 학생들은 고졸 수준의 직무 한계와 성장 기회 제약을 경험하면서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후진학 참여자들의 대학 진학 동기는 김진모 외(202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직무에서의 경력 개발과 향후 직무 전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L 학생은 자신의 숙련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사례였으며, 마이스터고 졸업 후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O 학생은 학위 취득 후 '반도체 개발'이라는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4년제를 나와야 하다 보니 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연구자: 그럼 전문대 졸업 후 다시 4년제로 편입 계획이 있으세요?) 아, 4년제 대학 조건이 있고 현장 경력 2년과 대학 2년으로 4년이 맞춰지면 취득할 수 있어서 전문대학에 갔어요. (L 학생)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오퍼레이터, 그냥 생산하는 일인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개발 쪽이에요. 이쪽으로 인력을 구하는 회사들은 다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꼭 졸업해야겠다는 싶었어요. (O 학생)

P 학생은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여 연구 업무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시험 연구원이다 보니까 학사 과정이나 더 나아가서는 석사나 이런 것도 수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진학하게 됐습니다. (P 학생)

다. 후진학에 대한 제도적 기회

소속 기업의 학습 장려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거나 진학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학생들은 이를 기회로 인식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N 학생은 대기업 취업에 실패한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하였는데, 당시 기업에서 일·학습병행 조건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위 취득 후 이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입사를 결정한 사례였다.

고등학교에서 면접 조건에 ‘일·학습 병행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능하면 최대한 대학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지원했던 거예요. (N 학생)

제3절 대학 진학에서 나타난 특징

1. 일반 진학자의 특징

가. 전공 공부에 강점이 되는 동일계열 진학

연구 참여자들은 고교 단계에서의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이 일반대학의 이론 중심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전문대학의 실습 위주 수업에도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동일계열 전공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 간 수준 차이는 크지만, 고교 시절에 배웠던 전공 지식이 기초가 되어 대학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특성화고 출신) 친구들끼리 오히려 좋은 거에 관해 얘기하더라고요. 유리한 거에 대해서요. (연구자: 예를 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저희는 식품 과학이 메인인데 그 내용을 많이 배우고 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전공 공부를 따라가는데) 편하긴 한 것 같아요. (A 학생)

사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년 동안 배운 게 사실 대학교에서는 몇 개월 이면 끝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사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도 되게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J 학생)

동일계열 전공으로 진학하는 것은 대학 생활 초기에 전공 지식 이해를 돕는 데 강점으로 작동하지만, 대학에서의 방대한 양의 이론 학습, 수학과학 영어 등 기초 학문과의 연계된 내용, 서술식 평가 등은 고등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학생들 나름의 적응기를 겪어내고 있었다.

나. 기초 학문 분야 학습의 한계

모든 면담 대상자들은 대학 진학 이후 전공 기초 과목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중학교 시절 학업에 대한 흥미가 높지 않은 상태로 직업계고에 진학하였고, 보통교과보다 전문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심화 수학이나 과학 계열 선택 과목 이수 경험이 전무하였다. 고등학교 당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이수는 학업 성취 압박에서 벗어나 흥미롭게 학습하는 과정이 되었으나 대학 진학 후에는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공대를 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학업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커요. 3학년 때는 국영수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안 듣고 그러는데……. (C 학생)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과학 탐구와 거의 직결되는 내용인데, 그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이 꽤 버거웠어요. (E 학생)

고교 시절 논술 등의 경험이 부재하여 대학 입학 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소화해 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한 학생들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 때 이럴 때는 되게 객관식으로 시험을 많이 봤는데, 대학교 때는 이제 전부 다 서술형이다 보니까 뭔가 외워서 그 자리에서 써야 해서 조금 힘들고……. (B 학생)

다. 인식과 시야 확장의 경험

일반 진학자들의 대학 진학은 전공 선택과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이 대학 교육에서 느끼는 의미는 자신의 시야를 확장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상호 성장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있었다. 비록 현재 취업에 대한 고민에 놓여 있을지라도 선취업 후진학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진학한 것에 대해 특별한 후회가 없었고, 비슷한 또래 학생들과 대학 생활을 함께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원하는 분야를 되게 점점 깊어지게 배울 수 있는 것도 큰 것 같고요.
… (중략) … 저도 저희 학교 와서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배운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C 학생)

더 다양한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하니까 생각해 보지 못한 것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기회라고 봤어요. (E 학생)

특히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또래 집단이 아닌 다양한 세대의 학습자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

일단 나이가 다양하니까 그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H 학생)

일단 훨씬 전문적이고, 확실히 대학교 수업은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중략) … 대부분 기업에 다니다가 자기의 스펙을 더 성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기업에 가고 싶어서 온 분들이 많아서 나이가 다 높습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I 학생)

라. 다양한 경로의 진로 고려

일반 진학자의 향후 진로 특성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자격증이나 면허를 기반으로 한 직업(예: A 학생 - 영양사, D 학생 - 유치원 교사, H 학생 - 물리치료사)을 목표로 하는 경우, 취업에 대한 불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대학에서의 학습이 곧 자격 취득으로 이어져 명확한 직업군에 진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그 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 경로에 대해서는 큰 범주만 설정한 상태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공기업 취업(B 학생), 대기업 취업(C 학생), 창업(E 학생), 대학으로의 편입 및 대학원 진학(I 학생) 등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였으며, 일부는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공무원 준비를 했었으니까 공기업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취업 준비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B 학생)

사실 원하는 건 통신사 쪽이긴 한데, 일단 통신 쪽으로 가고 싶은 건 맞지만 뭔가 확실하게 ‘어디,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C 학생)

저는 우선 지금 창업을 하고 싶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게 있고요. 차선책으로는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쪽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E 학생)

2. 선취업 후진학자의 특징

가. 전공 선택 폭이 좁은 후진학

후진학은 일반 진학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범주가 제한적이다. 입학습병행이나 계약학과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은 산업체와 협약이 체결된 학과로 입학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공 선택 기회가 없었다.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과 전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일반 진학자에 비해 입학할 수 있는 학과의 선택 폭은 현저히 좁았다.

재직자 전형은 조금 더 과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서울권 내에 있는 학교만 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코딩이나 아니면 경영으로 이분화된 경우가 많은데……. (J 학생)

특히 재직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융합’ 성격의 학과를 신설하여 학습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속 학과 명칭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났다(예: 신산업 융합학과, SW융합공학과, 기전융합공학과 등). 이로 인해 재직자들이 전공 수업에서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 교육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 공학적인 학과를 알아봤는데, 지금 학과가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 (중략) … (입학 후) 2년 동안은 ‘이럴 거면 왜 학과를 공대에 뒀을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배우는 게 다 마케팅, 경영, 기업가 정신, 창업 아이템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K 학생)

나. 학업 공백기와 기초 학문 분야 학습의 한계

후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고교 졸업과 대학 입학 사이에 학업 공백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부 감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J 학생). 특히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 수업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강의 내용을 즉각 따라가지 못하면 학습 진도를 놓치기 쉬웠다.

고교 시절 공업계열 전공을 선택하고 제조업 분야로 취업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대체로 공학 분야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일반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고교 재학 당시 수학, 과학 등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학 전공에서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과정은 기본 베이스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교수님들이 수업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해시켜 주려고 하진 않으셔서,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L 학생)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안 배운 것도 있고 수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죠. 그래서 옛날 것까지 배우느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 이과 친구들한테 다시 물어보거나 그랬어요. (O 학생)

다. 심화된 배움과 성취의 경험

후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학업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으나, 대학에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보다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현장 경험과 대학 수업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이해도가 높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의미로 꼽았다. J와 K 학생은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싶어 현재 직무와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했지만, 이 또한 자기 계발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두 학생 모두 현재 일과 관련된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실제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이론으로 학습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성향 자체가 책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거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건데, 아예 관련이 없어서 적용을 시킬 수 없는 분야였다면 학업에 만족도가 없었을 것 같아요. (J 학생)

저는 오히려 이쪽(복수전공)이 조금 더 잘 맞아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연구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 맞았나요?) 생산 운영 관리 쪽인데, 제가 이미 공장을 다녀봐서 그 과목이 공장 관련 운영을 다뤄서 더 재미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M 학생)

고교 시절에는 특별히 진학을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후진학을 경험하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것 자체를 의미 있게 인식하고 있었다.

시간적으로도 많이 그럴진 한데요. 그래도 가서 뭔가 성취를 이루어낸다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N 학생)

라. 낮은 진로 불확실성

후진학 학생들은 이미 취업 상태에 있으므로 일반 진학자에 비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재직 중인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M 학생, L 학생) 공공 부문에 종사할수록(J 학생, P 학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후진학자 중에는 대학 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취업 후진학 경로가 경제적 자립과 진로 안정성을 기반으로 후속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는 물론 일주일 동안 회사 가고 토요일에 학교 가는 게 힘들긴 한데, 그만큼 대학생들이 돈을 못 버는 그 시기에 저는 직장을 같이 겸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4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후회는 안 해본 것 같아요. (N 학생)

확실히 친구들은 대학 4년을 나오고 나서도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부터가 고민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빨리 취업하고 대학을 저처럼 다녀도 문제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L 학생)

대학 졸업 후 이직이나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된 단계로 보이지는 않았다. 현재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업을 안정적으로 끝마친 후 이직이나 직무 전환, 부서 이동 등을 고려해 볼 것이라는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 16명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어떤 동기로 직업계고에 진학했는지, 대학 진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와 실제 대학 생활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다수의 학생은 일반고의 과도한 학업 부담을 회피하고 조기 취업을 목표로 직업계고를 선택했으나, 재학 도중 혹은 졸업 시점에서 진학으로 경로를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면담을 통해 확인된 몇 가지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면담 결과 요약

구분	일반 진학자	선취업 후진학자
진학 동기	- 고졸 취업의 한계 인식 - 졸업 시점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적으로 선택 - 고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선택	- 대학 진학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차별 경험 - 자격 취득, 이직 등 향후의 경력개발 목적 - 후진학에 대한 제도적 기회
진학 특징	- 동일계열 진학 시 전공 공부에 강점으로 작용 - 기초 학문 분야(예: 수학, 과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음 - 진학 후 인식과 시야 확장에 긍정적 의미 부여 - 졸업 후 다양한 진로 고민	- 전공 선택의 폭이 좁음 - 학업 공백기로 인한 어려움과 기초 학문 분야(예: 수학, 과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음 - 일 경험을 바탕으로 심화된 배움의 기회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 - 진로 불확실성이 낮은 편임

자료: 연구자 작성

첫째, 일반 진학자의 진학 동기는 고졸 취업의 한계 극복, 취업 대신 선택한 대안적 경로, 새로운 적성을 찾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입학 당시 취업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고교 재학 도중 진학으로 경로를 변경하는 시점은 각기 달랐는데, 고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음을 깨달았던 학생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대학 진학을 결정한 반면, 취업을 준비해 왔던 학생들은 졸업 시점에서 불확실한 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학을 고려하였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입학 시점부터 취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시점에서 목표한 수준의 취업(예: 대기업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차선택 역시 취업(예: 중소기업 취업)을 먼저 고려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때 차선택으로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의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진로 경로를 모두 지원하는 이중적 정체성이 이미 학교 현장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후진학자의 진학 동기는 주변의 권유, 더 나은 경력 개발, 제도적 지원,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의 권유나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진학 과정에서 대학의 대외적 위상이나 이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경력 개발이나 숙련 수준 향상의 목적 또는 계약학과 등의 제도적 지원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의 대외적 위상이나 이미지보다 대졸 학위 취득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셋째, 일반 진학자와 후진학자 모두 고교 전공과 동일계열 또는 비동일계열 등 다양한 전공 선택 경로를 보였으나, 선택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반 진학자의 비동일계열 진학은 고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대안을 찾는 과정이었던 반면, 후진학자의 비동일계열 진학은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혹은 실무 현장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를 새롭게 알아가기 위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컸다. 흥미로운 점은 비동일계열로 진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전공 변화와 진로 고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전공을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의지가 생기는 것(I 학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특정 시점에서 도움이 될 때가 있어 크게 아쉽지 않다는 평가(D 학생, K 학생)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재학 도중 진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여부는 학생들의 이후 진로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 연구 면담 대상자 중 일반 진학자였던 C 학생과 H 학생 모두 영상과 디자인 분야에 대한 호기심으로 특성화고에 진학했지만, 고교 진학 후 적성 불일치를 경험하였다. 이에 C 학생은 일반대학의 전자공학과로, H 학생은 전문대학의 물리치료과로 전공을 변경하여 진학하게 되었다. 한편 J 학생과 K 학생은 미디어영상 분야의 학과로 특성화고에 진학한 후 우연한 계기로 전기 자격증 및 공무원반, 나노 인력양성 사업 등에 참여하며 전공 이외의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 일치를 경험하고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는 방과 후 수업, 인력양성 정책사업, 부전공 운영 등 직업계고 입학 후 전공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일반 진학자 및 후진학자 모두 대학에서의 기초 학문 분야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이슈는 이공계열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은 고교 재학 당시 보통교과의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대학의 전공과 관련 과목(예: 반도체 공정의 이해)보다 기초 과목(예: 대학 수학, 기초 물리학 등)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대학 입학 후 초기에 겪게 되는 이러한 이슈를 고려했을 때,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학 및 과학 교과(군)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면담자들이 인식하는 대학 진학의 의미는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이나 현재 직무에서의 경력 개발, 직무 전환 등 직업교육적 차원보다는 배움의 확장, 기회의 확장, 고등교육 경험 그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강하였다. 일반 진학자들은 비록 향후의 진로 고민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것에 대해 특별히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다. 특히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령기에 대학에 진학하여 여러 활동을 경험하고 대학에서의 배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선취업 후진학 학생들의 경우에도 일부는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대체로 고등학교 때 경험해 보지 못한 학문적 학습에 대한 경험 자체가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면담을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공과 직업 분야를 선택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불일치를 경험했을 때 대학 진학을 대안적 경로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계열로 진학하더라도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연계 교육 경로가 체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화된 수준이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교육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함이 남아 있다. 후학습 제도인 재직자 특별전형이나 계약학과를 통해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의 학업과 자신의 직무를 연계시키는 것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영역으로 진입하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진입 학생의 배경이나 경험, 학습 준비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학사 지원 체계가 구축될 때, 두 교육 영역 간의 보다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제5장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유형별 특성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유형별 특성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유형별로 구체적 특성을 확인하고 정책 요구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및 조사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경로를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제3장의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한 기초 분석을 고려했을 때 선취업 후진학자의 경우 전문대학 입학자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 일반대학으로 입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 표집을 위한 층화는 선취업 후진학자(일반대학), 일반 진학자(일반대학), 일반 진학자(전문대학)의 3개로 구분하였다. 유형별로 예상되는 모집단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95% 신뢰수준

±5%의 허용오차 수준에서는 기준 표본 수가 유사하여 3개 유형 모두 380명 이상으로 균등하게 할당하였다. 다만 각 유형별로 대학 소재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입학자 수 규모 차이가 있어 층화비례추출을 통해 대학을 먼저 추출하고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표집을 진행하였다.

〈표 5-1〉 표집 층화 유형별 예상 모집단 수 및 목표 표본

층화	예상되는 모집단 수	균등 할당(목표 표본)	층화비례추출
선취업 후진학(일반대학)	약 17,362명	380명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고려
일반 진학(일반대학)	약 83,867명	380명 이상	
일반 진학(전문대학)	약 66,483명	380명 이상	
소계		1,140명 이상	-

자료: 〈표 3-6〉, 〈표 3-8〉, 〈표 3-10〉 수치 재가공

주 1) 예상되는 모집단 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 선취업 후진학의 일반대학은 2022~2025년 4년간의 일반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수의 합계임
- 일반 진학의 일반대학은 2022~2025년 4년간의 일반대학의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 합계에서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 수 합계를 뺀 값임
- 일반 진학의 전문대학은 2024~2025년 2년간의 전문대학 직업계고 출신 입학자 수 합계에서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수 합계를 뺀 값임(2년 재학생 규모 추정)

주 2) 일반대학 세부 유형에서는 선취업 후진학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하였으며, 전문대학 세부 유형에서는 선취업 후진학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사이버대학을 제외함

예를 들어 선취업 후진학(일반대학) 유형의 경우 〈표 3-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22~2025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등록한 입학자 수 합계는 17,362명이며, 수도권 소재 대학은 13,088명,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4,274명으로 각각 75.4%, 24.6%를 차지한다. 이를 고려하여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을 30개교 표집하고 이 중 75%에 해당하는 22개 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25%에 해당하는 8개 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표집하였다. 표집된 대학에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응답을 안내하였으며, 대학에서는 학과 사무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응답을 독려하였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을 먼저 표집한 후 조사 대상자가 대학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50개교를 표집하였으며 일반대학은 모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비율을 20%로, 비수도권 비율을 80%로 표집하였고, 전문대학은 수도권 비율을 30%, 비수도권 비율을 70%로 표집하였다.

2. 조사 문항

조사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직업계고에서의 교육 경험을 공통 질문으로 설계하고, 대학 교육 경험과 정책 요구도는 선취업 후진학자와 일반 진학자의 문항을 각 특성에 맞게 설계하였다. 조사 문항은 제4장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개발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조사 문항의 전반적 개요는 아래 <표 5-2>와 같다.

〈표 5-2〉 조사 문항 개요

구분	조사 문항
A. (공통) 인구통계학적 정보	· 기본 정보: 성별 · 고등학교 정보: 출신 고교명, 고교 전공명, 고교 졸업 시기 · 취업 정보: 고교 졸업 후 현재까지의 취업 경험 유무, 취업한 회사 수, 고교 졸업 후 현재까지 근무한 직장별 현황(재직기간, 회사소재지, 유형, 전공과 직무 관련성) · 대학 정보: 대학교명, 대학 전공명, 대학 입학 시기, 학년
B. (공통) 고교 교육 경험	· 입학 결정: 입학 결정 시기, 중학교 성적, 입학 동기, 입학에 영향을 준 인물 · 전공 선택: 전공 학과 선택 이유, 학과 선택 정보 원천 · 진로 계획: 고교 입학 당시 생각한 진로, 전공 적성 일치도, 재학 중 준비한 진로 · 교육 경험: 고교 재학 도중 활동 참여 경험 유무(12개 항목), 참여 활동별 진로에 도움이 된 정도, 보통교과/전문교과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C. (선취업 후진학) 대학 교육 경험	· 입학 결정: 대학 입학 결정 시기, 입학 전형, 대학 진학 동기, 진학에 영향을 준 인물, 진학에 도움을 준 인물 · 대학/전공 선택: 대학과 전공 중 선택 우선순위,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선택 이유, 전공 선택 이유, 전공 적성 일치도 · 영향 요인: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5개 항목별 영향력, 5점 척도), 대학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5개 항목별 영향력, 5점 척도) · 대학 경험: 선취업 후진학자로서의 진학 강점, 대학 교육 경험 평가(7개 항목), 회사의 지원 정도, 대학 생활 만족도 · 진로 계획: 대학 졸업 후 생각하는 진로 · 대학 생활의 아쉬움(주관식, 선택 응답)
D. (선취업 후진학) 정책 요구도	· 항목별 제도 개선 필요 정도(9개 문항) · 기타 개선 의견
E. (일반 진학) 대학 교육 경험	· 입학 결정: 대학 진학 결정 시기, 고교 졸업 후 진학 준비 이유, 고교 재학 당시 진학 준비 이유, 입학 전형, 진학에 영향을 준 인물, 진학에 도움을 준 인물 · 대학/전공 선택: 대학과 전공 중 선택 우선순위,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선택 이유, 전공 선택 이유, 전공 적성 일치도 · 영향 요인: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5개 항목별 영향력, 5점 척도), 대학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5개 항목별 영향력, 5점 척도)

구분	조사 문항
	· 대학 경험: 직업계고 졸업자로서의 진학 강점, 대학 교육 경험 평가(7개 항목), 대학 생활 만족도 · 진로 계획: 대학 졸업 후 생각하는 진로 · 대학 생활의 아쉬움(주관식, 선택 응답)
D. (일반 진학) 정책 요구도	· 항목별 제도 개선 필요 정도(8개 문항) · 기타 개선 의견

자료: 연구자 작성

3. 조사 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특성은 아래 <표 5-3>과 같다. 선취업 후진학 유형의 분석 대상자는 총 387명이며 특성화고 졸업자가 84.5%,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15.5%를 차지하고 있다. 선취업 후진학자의 경우 출신 고교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가 81.7%였다. 이는 수도권 소재 직업계고 학생들이 인근 지역 기업체에 취업한 후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취업 후진학자의 경우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재직 경험이 있었으며, 재직 회사가 1개인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다. 평균 재직 기간은 52.3개월이었으며, 첫 직장 유형은 중견기업/중소기업이 63.0%로 가장 높았다. 첫 직장 재직 기간은 평균 36.1개월로 재직자 특별전형 요건에 부합하였고, 첫 직장 직무의 고교 전공 연계성은 평균 3.31로 보통 수준에 그쳤다.

일반 진학자 중 일반대학 진학 유형의 분석 대상자는 총 347명이며, 출신 고교 유형으로는 특성화고가 91.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생들의 출신

고교 지역은 수도권 49.3%, 비수도권 50.7%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현재 소속 대학 지역은 수도권 33.1%, 비수도권 66.9%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비율이 높았다. 이는 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자 중에서도 일부는 비수도권 일반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교-대학 전공의 대계열 간 일치도를 살펴보면 54.5%는 일치한 계열로 진학한 반면, 45.5%는 불일치 계열로 진학하여 제3장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일반 진학자 중 전문대학 진학 유형의 분석 대상자는 총 387명으로 특성 화고 졸업자 비율이 89.1%, 마이스터고 졸업자 비율이 10.9%를 차지하였다. 일반대학 진학자에 비해 마이스터고 졸업자 비율이 소폭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진학 시 상대적으로 일반대학보다 기술교육을 심화할 수 있는 전문대학 진학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 대학 진학자의 출신 고교 지역은 비수도권이 64.9%로 수도권 35.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선취업 후진학, 일반대학 진학과 달리 전문대학의 경우 고교 단계에서 의약계열 전공 비율은 9.6%로 낮았으나 대학에서의 의약 계열 전공 비율은 29.5%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취업률이 높은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치기공 등 의약계열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여 진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재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9%로 일반대학 진학자에 비해 높았으며, 첫 직장 직무의 고교 전공 연계성은 3.10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첫 직장 재직 기간도 평균 14.6개월로 짧게 나타났다. 즉 일반 진학자 중에서는 고교 졸업 후 일시적으로 취업 경험을 가졌다가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

(단위: 명, %)

구분		선취업 후진학 (n=387)	일반 진학		총계
			일반대학 (n=347)	전문대학 (n=387)	
개인 특성					
성별	남성	112(28.9)	120(34.6)	190(49.1)	422(37.6)
	여성	275(71.1)	227(65.4)	197(50.9)	699(62.4)
고교 특성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60(15.5)	30(8.6)	42(10.9)	132(11.8)
	특성화고	327(84.5)	317(91.4)	345(89.1)	989(88.2)
학교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16(81.7)	171(49.3)	136(35.1)	623(55.6)
	비수도권	71(18.3)	176(50.7)	251(64.9)	498(44.4)
졸업 시기	2020년 이전(2013~2019)	157(40.6)	43(12.4)	46(11.9)	246(21.9)
	2020년 이후(2020~2025)	230(59.4)	304(87.6)	341(88.1)	875(78.1)
고교 전공 계열	공학계열(기계, 전자·전자 등)	119(30.7)	97(28.0)	151(39.0)	367(32.7)
	사회계열(경영, 관광 등)	207(53.5)	112(32.3)	108(27.9)	427(38.1)
	예체능계열(디자인 등)	26(6.7)	65(18.7)	20(5.2)	111(9.9)
	의약계열(간호)	2(0.5)	25(7.2)	37(9.6)	64(5.7)
	인문/교육계열(영어, 보육 등)	10(2.6)	1(0.3)	2(0.5)	13(1.2)
	자연계열(식품, 농수산 등)	23(5.9)	47(13.5)	69(17.8)	139(12.4)

자료: 연구자 작성

주) 고교, 대학 전공 계열은 상호 동일 계열 비교를 위해 모두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의 대분류 체계로 코딩하였으며, 고등학교 세부 전공의 예시는 괄호에 제시함

〈표 5-4〉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

(단위: 명, %, 월, 점)

구분		선취업 후진학 (n=387)	일반 진학		총계
			일반대학 (n=347)	전문대학 (n=387)	
재직 경험					
재직 경험	있음	387(100.0)	84(24.2)	131(33.9)	602(53.7)
	없음	0(0.0)	263(75.8)	256(66.1)	519(46.3)
재직 회사 수	1개	215(55.6)	49(58.3)	80(61.1)	344(57.1)
	2개	96(24.8)	25(29.8)	26(19.8)	147(24.4)
	3개 이상	76(19.6)	10(11.9)	25(19.1)	111(18.4)
재직 기간(평균 개월 수)		52.3	26.0	24.3	42.6
첫 직장 경험					
첫 직장 소재지	수도권	335(86.6)	44(12.7)	52(13.4)	431(38.4)
	비수도권	52(13.4)	303(87.3)	335(86.6)	690(61.6)
첫 직장 유형	대기업	59(15.2)	8(9.5)	13(9.9)	80(13.3)
	중견기업/중소기업	244(63.0)	62(73.8)	83(63.4)	389(64.6)
	공기업/공무원/공공기관	65(16.8)	5(6.0)	8(6.1)	78(13.0)
	기타	19(4.9)	9(10.7)	27(20.6)	55(9.1)
첫 직장 재직 기간(평균 개월 수)		36.1	17.7	14.6	28.9
첫 직장 고교 전공 연계성		3.31	3.38	3.10	3.27
현재 직장 특성					
현 직장 -대학 소재지	일치	189(48.8)			
	불일치	75(19.4)			
	현재 직장 퇴사 상태	123(31.8)			

자료: 연구자 작성

주) '첫 직장 고교 전공 연계성'은 5점 만점 척도로 측정함

〈표 5-5〉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3)

(단위: 명, %)

구분		선취업 후진학 (n=387)	일반 진학		총계
			일반대학 (n=347)	전문대학 (n=387)	
대학 특성					
대학 지역	수도권	363(93.8)	115(33.1)	76(19.6)	554(49.4)
	비수도권	24(6.2)	232(66.9)	311(80.4)	567(50.6)
학년	1학년	142(36.7)	125(36.0)	147(38.0)	414(36.9)
	2학년	118(30.5)	78(22.5)	149(38.5)	345(30.8)
	3학년	69(17.8)	71(20.5)	76(19.6)	216(19.3)
	4학년	58(15.0)	73(21.0)	15(3.9)	146(13.0)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141(36.4)	96(27.7)	102(26.4)	339(30.2)
	사회계열	209(54.0)	72(20.7)	61(15.8)	342(30.5)
	예체능계열	17(4.4)	55(15.9)	28(7.2)	100(8.9)
	의약계열	1(0.3)	46(13.3)	114(29.5)	161(14.4)
	인문/교육계열	8(2.1)	40(11.5)	8(2.1)	56(5.0)
	자연계열	11(2.8)	38(11.0)	74(19.1)	123(11.0)
고교-대학 전공	일치	270(69.8)	189(54.5)	218(56.3)	677(60.4)
	불일치	117(30.2)	158(45.5)	169(43.7)	444(39.6)

자료: 연구자 작성

제2절 조사 결과

1. 고교 교육 경험과 대학 진학 관계

조사 대상자의 고교 교육 경험과 대학 진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 진학 유형에 따라 고교 교육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학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교 시절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인 진학자 비율이 선취업 후진학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대학 진학자, 전문대학 진학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고교 시절 전문교과 성적과 보통교과 성적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선취업 후진학자의 성취수준이 가장 높고 전문대학 진학자의 성취수준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취업 후진학자 집단에서는 전공 적성을 바탕으로 취업에 대한 뚜렷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고교 전공 선택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교 전공에 대한 적성 일치도는 선취업 후진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고등학교 시절 진로로 ‘취업’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일반대학 진학자의 경우 이미 33.7%가 고교 재학 시절부터 진학을 준비하였고,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 진로 미결정 비율이 14.5%로 타 진학 유형 집단보다 높았다. 방과 후 수업, 자격 취득, 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선취업 후진학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6〉 고교 교육 경험과 진학 유형별 특성 차이

(단위: 명, %, 점, 개)

	구분	선취업 후진학	일반 진학		통계적 검증
			일반대학	전문대학	
중학교 성적	상위권~중상위권	258(66.7)	163(47.0)	113(29.2)	$\chi^2 = 118.028^{***}$
	중위권	92(23.8)	98(28.2)	151(39.0)	
	중하위권~하위권	37(9.6)	86(24.8)	123(31.8)	
고교 전공 선택	적성/흥미	238(61.5)	219(63.1)	228(58.9)	$\chi^2 = 8.375$
	주변 추천	23(5.9)	25(7.2)	34(8.8)	
	취업 고려	102(26.4)	72(20.7)	95(24.5)	
	진학 고려	8(2.1)	13(3.7)	15(3.9)	
	기타	16(4.1)	18(5.2)	15(3.9)	
고교 전공 적성		3.87	3.59	3.63	$F = 9.261^{***}$ (1 > 2, 3)
고교 시절 진로 준비	취업	307(79.3)	185(53.3)	221(57.1)	$\chi^2 = 74.300^{***}$
	진학	39(10.1)	117(33.7)	110(28.4)	
	기타/미결정	41(10.6)	45(13.0)	56(14.5)	
고교 시절 교육 활동 참여		8.9	7.8	7.7	$F = 37.596^{***}$ (1 > 2, 3)
전문교과 성적	상위권~중상위권	323(83.5)	263(75.8)	214(55.3)	$\chi^2 = 90.609^{***}$
	중위권	41(10.6)	56(16.1)	84(21.7)	
	중하위권~하위권	23(5.9)	28(8.1)	89(23.0)	
보통교과 성적	상위권~중상위권	241(62.3)	217(62.5)	144(37.2)	$\chi^2 = 69.194^{***}$
	중위권	102(26.4)	85(24.5)	145(37.5)	
	중하위권~하위권	44(11.4)	45(13.0)	98(25.3)	

자료: 연구자 작성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선취업 후진학자의 주요 특성

가. 진학 동기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진학 결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이미 결정을 한 상태라는 응답자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고교 재학 중 취업을 준비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 진학을 통한 경력 개발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이어 ‘취업 후 3년 차’에 대학 진학을 결정한 진학자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재직자 특별전형의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 요건에 따라 해당 시기가 도래했을 때 진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표 5-7〉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진학 결정 시기

(단위: 명, %)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 후 1년 차	취업 후 2년 차	취업 후 3년 차	취업 후 4년 차	소계
사례 수	159	46	57	76	49	387
비율	(41.1)	(11.9)	(14.7)	(19.6)	(12.7)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진학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위 취득 후 동일 업계의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고 싶어서’가 37.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쌓고 싶어서’가 14.0%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진학 동기가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요인인 ‘주변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또는 ‘장기적으로는 대졸 학위가 필요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있어서’ 등에 대한 응답은 각각 10.3%, 8.3%로 낮은 편에 속했다.

〈표 5-8〉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진학 이유(1순위 응답)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소계
사례 수	146	35	54	32	34	40	4	33	3	6	387
비율	(37.7)	(9.0)	(14.0)	(8.3)	(8.8)	(10.3)	(1.0)	(8.5)	(0.8)	(1.6)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학위 취득 후 동일 업계의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고 싶어서
 ② 현재 회사에서 대졸 수준 직무나 직급으로 변경하고 싶어서
 ③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쌓고 싶어서
 ④ 현재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분야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⑤ 장기적으로는 대졸 학위가 필요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있어서
 ⑥ 주변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⑦ 현재 회사에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⑧ 사회에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여서
 ⑨ 결혼 등 가정을 꾸리기 위해 대졸 학위가 필요하고 생각되어서
 ⑩ 기타(예: 인맥 형성, 연봉 격차 해소, 공부 욕구,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등)

나. 대학과 전공 선택

선취업 후진학자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흥미롭게도 ‘대학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대학에 개설된 전공 학과가 마음에 들어서’(20.7%), ‘대학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예: 통학거리, 접근성)’(1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장에서 살펴본 기초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충원율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낮은 실정인데,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직과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해 대학의 위상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9〉 선취업 후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선택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소계
사례 수	143	76	42	17	80	2	23	4	387
비율	(37.0)	(19.6)	(10.9)	(4.4)	(20.7)	(0.5)	(5.9)	(1.0)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대학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서
 ② 대학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예: 통학거리, 접근성)
 ③ 대학에서 회사와 학업을 병행하도록 지원해 주어서
 ④ 회사와 협약이 체결된 대학이어서
 ⑤ 대학에 개설된 전공 학과가 마음에 들어서
 ⑥ 주변 선배/동료/지인 등의 추천이 있어서
 ⑦ 고등학교 시절 성적 등을 고려해서
 ⑧ 기타(예: 복수전공 가능, 수업 시간, 재직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서 등)

선취업 후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전공 선택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현재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현재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해당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고교 전공 적성 일치도와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첫 직장의 고교 전공 연계성이 모두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교 전공과 대학 전공 간에 일치된 진학 경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 전공을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보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선택한 학생들은 고교 전공 적성 일치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첫 직장의 고교 전공 연계성은 낮아 새로운 분야로의 탐색적 진학 경향을 보였다.

대학 전공 선택 이유가 ‘대학 내 재직자 전형으로 개설된 유일한 전공 이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고교 전공 적성 일치도는 높았으나 대학 전공에

대한 적성 일치도는 낮았고, 이들의 첫 직장 고교 전공 연계성도 3점 미만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이는 대학 진학 시 전공 선택의 자유도가 좁을수록 진학 후 학업에서 적성 불일치를 경험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10〉 선취업 후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전공 선택 이유

(단위: 명, %,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53 (13.7)	114 (29.5)	114 (29.5)	18 (4.7)	59 (15.2)	16 (4.1)	13 (3.4)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36 (13.3)	88 (32.6)	67 (24.8)	16 (5.9)	42 (15.6)	12 (4.4)
		9 (3.3)					
	불일치	17 (14.5)	26 (22.2)	47 (40.2)	2 (1.7)	17 (14.5)	4 (3.4)
고교 전공 적성 일치도	(3.96)	(3.92)	(3.87)	(3.83)	(3.71)	(4.00)	(3.62)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3.64)	(3.93)	(3.77)	(3.56)	(3.34)	(3.13)	(3.08)
첫 직장 고교 전공 연계성	(3.08)	(3.81)	(3.11)	(3.50)	(2.93)	(2.69)	(3.85)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해당 학과와 관련된 일자리 전망이 좋아서
 ② 현재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③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보고 싶어서
 ④ 회사와 협약이 체결된 학과여서
 ⑤ 대학 내 재직자 전형으로 개설된 유일한 전공이어서
 ⑥ 주변 선배/동료/지인 등의 추천이 있어서
 ⑦ 기타(예: 성적, 복수전공 가능, 고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여서 등)

다. 대학 입학 과정과 학업 과정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입학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의 영향력이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소재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서는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서는 실무 전문성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 계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계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입학 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실무 전문성이, 의약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전문교과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1〉 참조).

선취업 후진학자들의 대학 학업 경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대학에서의 학업이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잘 연계된다.’는 항목은 3.4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진학자의 특성에 따라 학업 경험에 대한 평가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자는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았던 반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자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항목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표 5-12〉 참조).

〈표 5-11〉 각 요소별 대학 입학 시 영향력(선취업 후진학 유형)

(단위: 점)

구분		보통교과 성적	전문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실무 전문성
대학 지역	총계	3.63	3.82	3.59	3.96	3.56
	수도권	3.64	3.81	3.58	3.96	3.53
	비수도권	3.54	4.00	3.71	3.96	4.08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3.57	3.90	3.73	3.94	3.55
	사회계열	3.67	3.79	3.52	4.02	3.56
	예체능계열	3.41	3.41	3.29	3.47	3.76
	의약계열	3.00	4.00	4.00	4.00	3.00
	인문/교육계열	3.88	3.88	3.75	4.00	3.88
	자연계열	3.91	3.91	3.27	3.73	3.36
	일치	3.60	3.89	3.52	3.92	3.57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불일치	3.71	3.66	3.74	4.04	3.54

자료: 연구자 작성

주) 5점 척도로 측정

〈표 5-12〉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학업 경험 평가

(단위: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3.51	3.93	3.65	3.73	3.58	3.61	3.42
대학 지역	수도권	3.46	3.93	3.62	3.71	3.55	3.59	3.38
	비수도권	4.33	3.96	4.04	4.04	4.13	4.00	3.96
대학 학년	1~2학년	3.42	3.95	3.65	3.77	3.58	3.57	3.35
	3~4학년	3.71	3.90	3.65	3.65	3.58	3.72	3.55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3.46	3.80	3.67	3.66	3.48	3.60	3.30
	사회계열	3.44	4.03	3.62	3.74	3.62	3.59	3.47
	예체능계열	4.29	3.82	3.76	3.88	4.00	4.00	3.35
	의약계열	3.00	4.00	4.00	4.00	3.00	3.00	3.00
	인문/교육계열	3.75	3.75	3.38	3.88	3.38	3.25	3.13
	자연계열	4.27	4.09	3.91	4.00	3.91	3.91	4.18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3.53	3.99	3.63	3.73	3.60	3.69	3.61
	불일치	3.47	3.81	3.70	3.72	3.55	3.44	2.97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높음	3.86	4.18	3.83	3.92	3.91	4.11	3.74
	보통	3.14	3.73	3.48	3.45	3.31	3.15	3.13
	낮음	2.60	3.07	3.05	3.36	2.50	2.07	2.33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②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관련 최신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소양(예: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
 ⑥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⑦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잘 연계된다.

라. 대학 졸업 후 진로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살펴본 결과, ‘현재 회사 퇴사 후 이직’하려는 계획이 49.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현재 회사에서 새 직무’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24.5%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지역이나 대학 전공 계열 등 진학자의 특성에 따라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자는 ‘현재 회사 퇴사 후 이직’을 계획하는 응답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자는 ‘현재 회사에서 새 직무’를 하려는 계획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대학 전공 계열로 살펴보면, 대다수 계열에서는 ‘현재 회사 퇴사 후 이직’을 계획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의약계열과 자연계열에서는 ‘특별히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 계획에 따른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는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4.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공 적성 일치도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학습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표 5-13〉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1)

(단위: 명, %, 점)

구분		현재 회사 퇴사 후 이직	현재 회사 퇴사 후 창업	현재 회사에서 새 직무	대학원 진학	특별히 없음	기타
총계		193(49.9)	11(2.8)	95(24.5)	28(7.2)	49(12.7)	11(2.8)
대학 지역	수도권	187(51.5)	11(3.0)	87(24.0)	23(6.3)	45(12.4)	10(2.8)
	비수도권	6(25.0)	0(0.0)	8(33.3)	5(20.8)	4(16.7)	1(4.2)
대학 학년	1~2학년	130(50.0)	6(2.3)	66(25.4)	15(5.8)	37(14.2)	6(2.3)
	3~4학년	63(49.6)	5(3.9)	29(22.8)	13(10.2)	12(9.4)	5(3.9)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58(41.1)	6(4.3)	44(31.2)	12(8.5)	17(12.1)	4(2.8)
	사회계열	122(58.4)	4(1.9)	45(21.5)	10(4.8)	23(11.0)	5(2.4)
	예체능계열	7(41.2)	1(5.9)	2(11.8)	3(17.6)	2(11.8)	2(11.8)
	의약계열	0(0.0)	0(0.0)	0(0.0)	0(0.0)	1(100.0)	0(0.0)
	인문/교육	3(37.5)	0(0.0)	2(25.0)	1(12.5)	2(25.0)	0(0.0)
	자연계열	3(27.3)	0(0.0)	2(18.2)	2(18.2)	4(36.4)	0(0.0)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142(52.6)	8(3.0)	65(24.1)	19(7.0)	27(10.0)	9(3.3)
	불일치	51(43.6)	3(2.6)	30(25.6)	9(7.7)	22(18.8)	2(1.7)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3.70	3.82	3.72	4.00	3.22	3.82

자료: 연구자 작성

현재 재직 회사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 ‘현재 회사 퇴사 후 이직’하려고 계획하는 진학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공기업/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새 직무’에 도전하겠다는 진학자가 많았다. 공기업/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재직 회사 조직 내에서의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하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14〉 선취업 후진학자의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2)

(단위: 명, %, 점)

구분	현재 회사 퇴사 후 이직	현재 회사 퇴사 후 창업	현재 회사에서 새 직무	대학원 진학	특별히 없음	기타
총계	128(48.5)	8(3.0)	77(29.2)	18(6.8)	30(11.4)	3(1.1)
대기업	27(56.3)	0(0.0)	14(29.2)	3(6.3)	4(8.3)	0(0.0)
중견/중소기업	81(53.3)	6(3.9)	36(23.7)	14(9.2)	13(8.6)	2(1.3)
공기업/공무원 /공공기관	17(30.9)	2(3.6)	25(45.5)	0(0.0)	10(18.2)	1(1.8)
기타	3(33.3)	0(0.0)	2(22.2)	1(11.1)	3(33.3)	0(0.0)

자료: 연구자 작성

마. 정책 요구도

선취업 후진학자의 정책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에 대한 요구가 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재직자가 입학할 수 있는 학과를 다양하게 증설’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진학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학 지역, 대학 학년, 대학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대학 진학자는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는 ‘전공과 관련된 직무 경험,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학점 인정 제도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학년별로는 1~2학년은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반면, 3~4학년은 '재직 중인 학습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컸다. 대학계열에 따라서는 공학계열, 사회계열은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예체능계열과 인문/교육계열은 '재직자가 입학할 수 있는 학과를 다양하게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의약계열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직무 경험, 기술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인정과 평가', 자연계열은 '취업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학 정보 제공과 입학 상담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고교와 대학의 전공 연계에 따라서는 일치, 불일치 모두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요구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재직자는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이 4.6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중견기업/중소기업 재직자는 '재직 중인 학습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가 4.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는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기타의 경우에는 '재직자가 입학할 수 있는 학과를 다양하게 증설'하는 것과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선취업 후진학자들은 현재 재직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공통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재직자의 특성에 따라 학과 다양화, 학점 인정, 장학금 등 필요로 하는 지원에 다소 차이가 있어 진입기회 확대와 함께 선취업 후진학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15〉 선취업 후진학자의 정책 요구도(1)

(단위: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총계		4.05	3.99	4.40	3.90	4.17	3.99	4.22	4.39	4.44
대학 지역	수도권	4.06	4.00	4.42	3.91	4.18	3.99	4.22	4.41	4.47
	비수도권	3.96	3.88	4.17	3.79	4.00	4.04	4.21	4.13	3.96
대학 학년	1~2학년	4.08	3.99	4.43	3.94	4.20	4.01	4.23	4.40	4.50
	3~4학년	3.98	4.00	4.35	3.81	4.13	3.97	4.20	4.38	4.31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3.91	3.94	4.36	3.91	4.09	3.84	4.20	4.33	4.39
	사회계열	4.12	4.04	4.44	3.95	4.27	4.08	4.25	4.44	4.55
	예체능계열	4.12	3.94	4.24	3.47	3.59	3.88	4.12	4.24	3.82
	의약계열	3.00	4.00	3.00	4.00	4.00	3.00	3.00	4.00	3.00
	인문/교육	3.88	4.13	4.88	3.50	4.63	4.50	4.63	4.88	4.50
	자연계열	4.45	3.82	4.36	3.64	4.09	4.18	4.00	4.27	4.18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3.99	3.94	4.39	3.87	4.15	3.94	4.21	4.37	4.43
	불일치	4.20	4.11	4.44	3.97	4.23	4.11	4.25	4.44	4.46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취업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학 정보 제공과 입학 상담 지원
 ② 대학 입학 전형에서 직무 경험, 기술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인정과 평가
 ③ 재직자가 입학할 수 있는 학과를 다양하게 증설
 ④ 대학 입학 전 수학, 과학 등 기초 학문에 대한 학습 공백 지원
 ⑤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 활성화
 ⑥ 재직 중인 학습자들을 위한 맞춤형 비교과 활동 지원 확대
 ⑦ 전공과 관련된 직무 경험,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학점 인정 제도 활성화
 ⑧ 재직 중인 학습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⑨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

〈표 5-16〉 선취업 후진학자의 정책 요구도(2)

(단위: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총계	4.05	4.00	4.39	3.89	4.14	4.00	4.25	4.47	4.52
대기업	4.25	4.02	4.58	4.02	4.31	4.19	4.19	4.63	4.65
중견/중소기업	3.95	3.96	4.34	3.74	4.03	3.94	4.26	4.43	4.41
공기업/공무원 /공공기관	4.15	4.05	4.33	4.09	4.22	3.98	4.25	4.47	4.67
기타	4.22	4.11	4.67	4.33	4.56	4.22	4.44	4.44	4.67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취업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학 정보 제공과 입학 상담 지원
 ② 대학 입학 전형에서 직무 경험, 기술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인정과 평가
 ③ 재직자가 입학할 수 있는 학과를 다양하게 증설
 ④ 대학 입학 전 수학, 과학 등 기초 학문에 대한 학습 공백 지원
 ⑤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 활성화
 ⑥ 재직 중인 학습자들을 위한 맞춤형 비교과 활동 지원 확대
 ⑦ 전공과 관련된 직무 경험,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학점 인정 제도 활성화
 ⑧ 재직 중인 학습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⑨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

3. 일반 진학자의 주요 특성

가. 진학 동기

일반 진학자의 과반은 고3 시기에 진학을 결심하거나, 졸업 이후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비교해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졸업 이후에 진학을 준비한 비율이 일반대학 진학자보다 더 높은 반면, 일반대학 진학자는 1~2학년 시기부터 비교적 조기에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비율이 전문대학 진학자보다 더 높았다.

〈표 5-17〉 일반 진학자의 대학 진학 준비 시기

(단위: 명, %)

구분	졸업 이후	3학년	2학년	1학년	소계
일반대학	89(25.6)	152(43.8)	51(14.7)	55(15.9)	347(100.0)
전문대학	117(30.2)	206(53.2)	38(9.8)	26(6.7)	387(100.0)

자료: 연구자 작성

‘졸업 이후’ 진학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반대학 진학자의 경우 ‘졸업 후 일시적으로 취업했으나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느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는 ‘졸업 후 일시적으로 취업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7.4%로 가장 높았다.

〈표 5-18〉 졸업 이후 대학 진학 준비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소계
일반 대학	15 (16.9)	25 (28.1)	10 (11.2)	14 (15.7)	4 (4.5)	8 (9.0)	7 (7.9)	6 (6.7)	89 (100.0)
전문 대학	32 (27.4)	20 (17.1)	14 (12.0)	14 (12.0)	7 (6.0)	6 (5.1)	17 (14.5)	7 (6.0)	117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졸업 후 일시적으로 취업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② 졸업 후 일시적으로 취업했으나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느껴서
 ③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 채 졸업하여서
 ④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⑤ 군 복무 후 취업을 위해 다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⑥ 대학 진학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있어서
 ⑦ 뚜렷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대안적 경로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
 ⑧ 기타(예: 고졸 직무 한계, 학업 열망, 소득 증대, 다른 진로 관심 등)

반면에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진학을 준비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반 대학 진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전공과 관련 있는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29.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고졸로 취업하기에는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18.6%)로 나타났다. 전문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5-19〉 고교 재학 중 대학 진학 준비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소계
일반대학	37 (14.3)	77 (29.8)	33 (12.8)	48 (18.6)	14 (5.4)	21 (8.1)	14 (5.4)	14 (5.4)	258 (100.0)
전문대학	37 (13.7)	86 (31.9)	29 (10.7)	38 (14.1)	26 (9.6)	32 (11.9)	10 (3.7)	12 (4.4)	270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고등학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② 고등학교 전공과 관련 있는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③ 고등학교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④ 고졸로 취업하기에는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⑤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취업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⑥ 고졸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이 좋을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있어서
 ⑦ 졸업 전 취업 시도를 해보았으나 생각보다 잘되지 않아서
 ⑧ 기타(예: 진로 목표상 대학 진학이 필요,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등)

나. 대학과 전공 선택

일반 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선택 이유(1순위)를 살펴보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대학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예: 통학거리, 접근성)’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본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일반대학

진학자와 전문대학 진학자 모두 비수도권 소재의 직업계고 졸업자가 많은데, 대학 선택 이유를 통해 이들이 상대적으로 지역 대학으로의 진학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일반대학 진학자의 대학 선택 이유는 ‘고등학교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을 고려해서’(24.2%), ‘대학에 개설된 전공 학과가 마음에 들어서’(19.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대학 진학자의 대학 선택 이유는 ‘대학의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이 있어서’(19.4%), ‘대학에 개설된 전공 학과가 마음에 들어서’(16.8%)의 순이었다. 일반대학 진학 과정에서는 ‘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했던 선취업 후진학자의 선택 기준과 대조된다.

〈표 5-20〉 일반 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선택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소계
일반대학	54 (15.6)	85 (24.5)	31 (8.9)	84 (24.2)	67 (19.3)	7 (2.0)	12 (3.5)	7 (2.0)	347 (100.0)
전문대학	46 (11.9)	101 (26.1)	75 (19.4)	48 (12.4)	65 (16.8)	20 (5.2)	18 (4.7)	14 (3.6)	387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대학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서
 ② 대학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예: 통학거리, 접근성)
 ③ 대학의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이 있어서
 ④ 고등학교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을 고려해서
 ⑤ 대학에 개설된 전공 학과가 마음에 들어서
 ⑥ 대학의 전반적인 취업률을 고려해서
 ⑦ 주변 부모님/선생님/선배 등의 추천이 있어서
 ⑧ 기타(예: 저렴한 등록금, 학교 시설, 수도권 대학이어서 등)

일반대학 진학자의 전공 선택 이유를 분석한 결과,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 보고 싶어서’(29.4%), ‘나의 적성에 맞을 것이라 생각되어서’(17.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 부모님/선생님/선배 등의 추천이 있어서’(5.5%)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일반대학 진학자가 전공을 선택할 때 외부 요인보다 새로운 학문적 탐색이나 개인의 흥미·적성 및 직업 전망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대학 진학자의 전공 선택 이유는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고교 및 대학의 적성 일치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고교-대학 전공이 일치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전공과 연계하여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어서’(25.4%)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 보고 싶어서’(44.3%)의 비율이 약 두 배 정도로 높았다. 이는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이 높은 진학자는 기존 전공의 학문적 확장을 추구한 반면, 연계성이 낮은 진학자는 새로운 진로 탐색으로서 진학을 고려했음을 시사한다.

〈표 5-21〉 일반대학 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전공 선택 이유

(단위: 명, %,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59 (17.0)	38 (11.0)	58 (16.7)	102 (29.4)	19 (5.5)	62 (17.9)	9 (2.6)
대학 진학 시기	졸업 직후	33 (14.9)	24 (10.9)	38 (17.2)	61 (27.6)	15 (6.8)	44 (19.9)	6 (2.7)
	졸업 이후 특정 시점	26 (20.6)	14 (11.1)	20 (15.9)	41 (32.5)	4 (3.2)	18 (14.3)	3 (2.4)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34 (18.0)	26 (13.8)	48 (25.4)	32 (16.9)	13 (6.9)	32 (16.9)	4 (2.1)
	불일치	25 (15.8)	12 (7.6)	10 (6.3)	70 (44.3)	6 (3.8)	30 (19.0)	5 (3.2)
고교 전공 적성 일치도		3.58	3.45	3.78	3.54	3.21	3.65	3.89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3.58	3.24	3.97	3.97	3.58	4.16	4.11

자료: 연구진 작성

- 주 1) ① 해당 학과와 관련된 일자리 전망이 좋아서
 ② 고등학교 성적 또는 수능 성적에 맞춰서
 ③ 고등학교 때 전공과 연계하여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④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 보고 싶어서
 ⑤ 주변 부모님/선생님/선배 등의 추천이 있어서
 ⑥ 나의 적성에 맞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⑦ 기타(예: 진로 계획에 맞아서, 관련 자격증이 필요해서 등)
- 주 2) 고교 전공 적성 일치도,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는 5점 척도로 측정

한편,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 보고 싶어서’(26.6%)와 ‘해당 학과와 관련된 일자리 전망이 좋아서’(25.6%)가 주요 선택 이유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때 전공과 연계하여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어서’(17.1%), ‘나의 적성에 맞을 것이라 생각되어서’(10.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졸업 이후 특정 시점에 진학한 집단에서는 ‘해당 학과와 관련된

일자리 전망이 좋아서'(34.9%)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 전문대학 진학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공 연계성에 따라 보면, 고교-대학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 대학 전공의 선택 동기는 '고등학교 때 전공과 연계하여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어서'(26.6%)가 가장 높았고,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와 관련된 일자리 전망이 좋아서'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 보고 싶어서'가 각각 32.0%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 진학 과정에서 고교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5-22〉 전문대학 진학자의 현재 재학 중인 전공 선택 이유

(단위: 명, %,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99 (25.6)	31 (8.0)	66 (17.1)	103 (26.6)	38 (9.8)	41 (10.6)	9 (2.3)
대학 진학 시기	졸업 직후	39 (18.1)	26 (12.1)	43 (20.0)	60 (27.9)	21 (9.8)	21 (9.8)	5 (2.3)
	졸업 이후 특정 시점	60 (34.9)	5 (2.9)	23 (13.4)	43 (25.0)	17 (9.9)	20 (11.6)	4 (2.3)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45 (20.6)	19 (8.7)	58 (26.6)	49 (22.5)	20 (9.2)	21 (9.6)	6 (2.8)
	불일치	54 (32.0)	12 (7.1)	8 (4.7)	54 (32.0)	18 (10.7)	20 (11.8)	3 (1.8)
고교 전공 적성 일치도		3.61	3.74	3.80	3.72	3.39	3.51	2.78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3.64	3.71	3.92	3.87	3.61	4.02	3.78

자료: 연구진 작성

- 주 1) ① 해당 학과와 관련된 일자리 전망이 좋아서
 ② 고등학교 성적 또는 수능 성적에 맞춰서
 ③ 고등학교 때 전공과 연계하여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④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 보고 싶어서
 ⑤ 주변 부모님/선생님/선배 등의 추천이 있어서
 ⑥ 나의 적성에 맞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⑦ 기타(예: 진로 계획에 맞아서, 관련 자격증이 필요해서 등)
- 주 2) 고교 전공 적성 일치도,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는 5점 척도로 측정

다. 대학 입학과 학업 과정

일반대학 진학자의 경우 대학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보통교과 성적’(3.48점)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3.46점)과 ‘전문교과 성적’(3.16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능 성적’(2.46점)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아, 직업계고 출신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받아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의 경우 보통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수도권 소재 일반대학은 전문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이 높은 경우 전문교과 성적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계고 학생의 일반대학 진학이 학업 성취와 전공 연계를 중심으로 한 입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무적 역량보다는 학업 기반의 평가 요소가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23〉 각 요소별 대학 입학 시 영향력(일반진학-일반대학 유형)

(단위: 점)

구분		보통교과 성적	전문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수능 성적
총계		3.48	3.16	3.21	3.46	2.46
대학 지역	수도권	3.59	3.06	3.00	3.29	3.08
	비수도권	3.43	3.21	3.31	3.54	2.16
	공학계열	3.52	3.07	3.30	3.40	2.83
대학 전공 계열	사회계열	3.51	3.26	3.33	3.43	2.47
	예체능계열	3.38	3.42	3.24	3.76	2.20
	의약계열	3.54	2.83	2.96	3.50	2.24
	인문계열	3.75	2.78	2.78	3.08	2.33
	자연계열	3.11	3.63	3.45	3.55	2.32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3.47	3.48	3.43	3.58	2.35
	불일치	3.50	2.78	2.94	3.30	2.60

자료: 연구자 작성

주) 5점 척도로 측정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3.56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대학보다 ‘전문교과 성적’(3.47점)과 ‘비교과 활동’(3.42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 입시가 학생의 실무역량과 현장 관련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5-24〉 각 요소별 대학 입학 시 영향력(일반진학-전문대학 유형)

(단위: 점)

구분		보통교과 성적	전문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수능 성적
총계		3.26	3.47	3.42	3.56	2.26
대학 지역	수도권	3.50	3.88	3.64	3.74	2.32
	비수도권	3.21	3.37	3.36	3.51	2.24
	공학계열	3.30	3.58	3.42	3.42	2.34
대학 전공 계열	사회계열	3.31	3.48	3.36	3.57	2.62
	예체능계열	3.14	3.39	3.71	3.86	2.71
	의약계열	3.25	3.15	3.09	3.39	1.86
	인문계열	3.38	4.50	4.38	4.38	4.38
	자연계열	3.23	3.72	3.76	3.80	2.04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3.28	3.72	3.62	3.63	2.19
	불일치	3.24	3.15	3.15	3.47	2.34

자료: 연구자 작성

주) 5점 척도로 측정

일반대학 진학자의 대학 학업 경험 평가를 살펴본 결과, 대학 전공 학습이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4.24점)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의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4.16점)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잘 연계된다.’(3.25점)는 점수가 가장 낮았다.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가 높을수록 학업 경험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신의 적성과 전공의 부합성이 학업 몰입과 긍정적인 교육 경험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표 5-25〉 일반대학 진학자의 대학 학업 경험 평가

(단위: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4.16	4.24	3.97	4.05	3.55	3.80	3.25
대학 지역	수도권	4.04	4.12	3.93	4.00	3.55	3.79	3.30
	비수도권	4.22	4.31	3.98	4.07	3.55	3.81	3.22
대학 학년	1~2학년	4.15	4.23	4.03	4.04	3.59	3.89	3.23
	3~4학년	4.19	4.27	3.88	4.06	3.49	3.68	3.28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4.11	4.24	4.01	3.99	3.67	3.76	3.36
	사회계열	3.92	4.03	3.65	3.97	3.26	3.58	3.13
	예체능계열	4.25	4.35	4.09	4.15	3.75	4.05	3.62
	의약계열	4.50	4.57	4.20	4.07	3.37	3.80	3.00
	인문계열	4.03	4.10	3.73	4.13	3.48	3.65	2.43
	자연계열	4.37	4.29	4.24	4.11	3.79	4.11	3.82
	기타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4.13	4.24	3.92	4.02	3.61	3.81	3.72
	불일치	4.20	4.25	4.02	4.09	3.47	3.79	2.68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높음	4.36	4.39	4.21	4.21	3.84	4.24	3.49
	보통	3.84	4.02	3.55	3.66	3.09	3.07	2.82
	낮음	3.33	3.50	2.92	3.79	2.21	1.88	2.33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1) 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의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②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관련 최신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소양(예: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
 ⑥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⑦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잘 연계된다.

주 2)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는 5점 척도로 측정

전문대학 진학자의 학업 경험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4.21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의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4.11점)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잘 연계 된다.’(3.30점)는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전문대학 소재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모든 항목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전문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의 질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이 불일치한 집단의 경우 관련 이론과 지식 습득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고, 대학에서의 전공 적성 일치도가 높을수록 이론습득과 전문성 향상 항목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 진학자가 실무와 학문을 병행하는 실용 중심의 학습 환경에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고교-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5-26〉 전문대학 진학자의 대학 학업 경험 평가

(단위: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4.11	4.21	4.07	4.02	3.55	3.77	3.30
대학 지역	수도권	4.14	4.39	4.09	4.12	3.70	3.99	3.75
	비수도권	4.10	4.17	4.07	3.99	3.51	3.72	3.19
대학 학년	1학년	4.08	4.23	4.09	4.09	3.66	3.84	3.36
	2~4학년	4.20	4.16	4.02	3.79	3.20	3.54	3.08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4.05	4.08	3.99	3.91	3.70	3.80	3.60
	사회계열	4.02	4.25	4.03	4.23	3.49	3.77	3.25
	예체능계열	3.96	4.04	4.29	4.43	3.68	3.86	3.79
	의약계열	4.26	4.32	4.10	3.96	3.47	3.62	2.63
	인문계열	3.88	4.75	4.00	4.50	4.25	4.13	4.00
	자연계열	4.12	4.22	4.11	3.88	3.39	3.89	3.69
	기타	3.91	4.01	3.91	3.91	3.49	3.77	3.25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4.11	4.17	4.08	3.95	3.52	3.78	3.70
	불일치	4.11	4.27	4.07	4.10	3.59	3.77	2.78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높음	4.30	4.43	4.29	4.22	3.86	4.20	3.55
	보통	3.91	3.95	3.77	3.68	3.06	3.06	2.90
	낮음	2.83	2.83	2.83	3.17	2.13	1.96	2.04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1) 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의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②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관련 최신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소양(예: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
 ⑥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⑦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잘 연계된다.

주 2)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는 5점 척도로 측정

라. 대학 졸업 후 진로

일반대학 진학자의 경우 ‘전공 분야 취업’을 희망한 비율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전공 이외 분야 취업’과 ‘창업’(9.8%), ‘특별히 없음’(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의 전공 관련 취업 희망 비율이 73.3%로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27〉 일반대학 진학자의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단위: 명, %, 점)

구분		전공 분야 취업	전공 이외 분야 취업	창업	편입 /대학원 진학	특별히 없음	기타
총계		235(67.7)	34(9.8)	34(9.8)	18(5.2)	21(6.1)	5(1.4)
대학 지역	수도권	65(56.5)	13(11.3)	18(15.7)	10(8.7)	8(7.0)	1(0.9)
	비수도권	170(73.3)	21(9.1)	16(6.9)	8(3.4)	13(5.6)	4(1.7)
대학 학년	1~2학년	131(64.5)	13(6.4)	30(14.8)	12(5.9)	14(6.9)	3(1.5)
	3~4학년	104(72.2)	21(14.6)	4(2.8)	6(4.2)	7(4.9)	2(1.4)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63(65.6)	10(10.4)	11(11.5)	7(7.3)	2(2.1)	3(3.1)
	사회계열	49(68.1)	10(13.9)	6(8.3)	1(1.4)	6(8.3)	0(0.0)
	예체능계열	32(58.2)	3(5.5)	10(18.2)	4(7.3)	4(7.3)	2(3.6)
	의약계열	40(87.0)	3(6.5)	0(0.0)	0(0.0)	3(6.5)	0(0.0)
	인문계열	26(65.0)	5(12.5)	1(2.5)	2(5.0)	6(15.0)	0(0.0)
	자연계열	25(65.8)	3(7.9)	6(15.8)	4(10.5)	0(0.0)	0(0.0)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129(68.3)	16(8.5)	23(12.2)	10(5.3)	8(4.2)	3(1.6)
	불일치	106(67.1)	18(11.4)	11(7.0)	8(5.1)	13(8.2)	2(1.3)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3.97	3.47	3.56	4.00	3.24	4.00

자료: 연구자 작성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도 ‘전공 분야 취업’(56.8%)이 가장 높았으나, 일반대학 진학자에 비해 ‘전공 이외 분야 취업’(11.6%)과 ‘창업’(17.1%)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 이외 분야 취업’과 ‘창업’ 비율이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보다 높았다. 전문대학의 경우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공 분야 취업을 계획한다는 응답률이 오히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5-28〉 전문대학 진학자의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단위: 명, %, 점)

구분		전공 분야 취업	전공 이외 분야 취업	창업	편입 /대학원 진학	특별히 없음	기타
총계		220(56.8)	45(11.6)	66(17.1)	27(7.0)	24(6.2)	5(1.3)
대학 지역	수도권	50(65.8)	5(6.6)	4(5.3)	11(14.5)	5(6.6)	1(1.3)
	비수도권	170(54.7)	40(12.9)	62(19.9)	16(5.1)	19(6.1)	4(1.3)
대학 학년	1학년	169(57.1)	35(11.8)	55(18.6)	16(5.4)	18(6.1)	3(1.0)
	2~4학년	51(56.0)	10(11.0)	11(12.1)	11(12.1)	6(6.6)	2(2.2)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60(58.8)	15(14.7)	12(11.8)	6(5.9)	8(7.8)	1(1.0)
	사회계열	31(50.8)	10(16.4)	7(11.5)	7(11.5)	6(9.8)	0(0.0)
	예체능계열	8(28.6)	6(21.4)	8(28.6)	3(10.7)	3(10.7)	0(0.0)
	의약계열	88(77.2)	4(3.5)	8(7.0)	9(7.9)	4(3.5)	1(0.9)
	인문계열	3(37.5)	3(37.5)	2(25.0)	0(0.0)	0(0.0)	0(0.0)
	자연계열	30(40.5)	7(9.5)	29(39.2)	2(2.7)	3(4.1)	3(4.1)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120(55.0)	27(12.4)	35(16.1)	18(8.3)	16(7.3)	2(0.9)
	불일치	100(59.2)	18(10.7)	31(18.3)	9(5.3)	8(4.7)	3(1.8)
대학 전공 적성 일치도		3.89	3.56	4.00	3.63	3.00	4.00

자료: 연구자 작성

마. 정책 요구도

정책 요구도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진학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 진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전공과 연계된 대학 전공과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교과(전공과목) 성적, 대회 수상, 자격증 취득 등의 경험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입시 제도 개선’, ‘고등학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타 전공 수업을 듣거나 학과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반면, ‘고교 이수 과목이나 자격증의 대학 학점 인정’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공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에서 대학 입학 전 기초 학문(수학, 과학) 학습 공백 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른 계열보다 높았는데, 이는 제4장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학·과학 등 기초 학문의 중요성이 큰 전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예체능계열은 고교 전공 적성 불일치 시 전공 전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고교-대학 전공 연계가 불일치한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 타 전공 수강이나 학과 변경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시기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았음에도 타 전공으로 변경할 기회가 없어 대학 진학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시사한다.

〈표 5-29〉 일반대학 진학자의 정책 요구도

(단위: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계		4.21	4.15	4.24	4.21	4.23	4.15	4.28	3.96
대학 지역	수도권	4.13	4.12	4.17	4.14	4.18	4.10	4.23	3.83
	비수도권	4.25	4.16	4.27	4.25	4.26	4.18	4.31	4.03
대학 학년	1~2학년	4.17	4.17	4.26	4.22	4.30	4.17	4.27	4.07
	3~4학년	4.28	4.13	4.21	4.20	4.15	4.13	4.31	3.81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4.05	4.11	4.29	4.43	4.16	4.09	4.23	3.98
	사회계열	4.32	4.10	4.17	4.15	4.14	4.17	4.10	3.92
	예체능계열	4.05	4.18	4.09	3.91	4.36	4.09	4.25	3.96
	의약계열	4.54	4.28	4.43	4.30	4.39	4.24	4.50	4.07
	인문계열	4.25	4.08	4.03	4.08	4.15	4.13	4.45	3.85
	자연계열	4.21	4.21	4.42	4.26	4.32	4.26	4.37	4.00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4.20	4.19	4.26	4.21	4.21	4.17	4.31	4.04
	불일치	4.23	4.11	4.20	4.22	4.27	4.13	4.25	3.87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취업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학 정보 제공과 입학 상담 지원
 ② 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에 대한 대학 과목 사전 이수 제도 마련
 ③ 교과(전공과목) 성적, 대회 수상, 자격증 취득 등의 경험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입시 제도 개선
 ④ 대학 입학 전 수학, 과학 등 기초 학문에 대한 학습 공백 지원
 ⑤ 고등학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타 전공 수업을 듣거나 학과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
 ⑥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취업/진학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졸업 이후의 소속 기관을 제공하여 진로 준비 지원
 ⑦ 고등학교 전공과 연계된 대학 전공과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⑧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이나 취득한 자격증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높은 정책 요구 수준을 보였으나, 일반대학 진학자에 비해 항목별 편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요구가 높은 항목은 ‘고등학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타 전공 수업을 듣거나 학과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4.17점)과 ‘고등학교 전공과 연계된 대학 전공과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4.14점)으로 나타났다.

대학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진학자가 ‘대학 입학 전 수학, 과학 등 기초 학문에 대한 학습 공백 지원’과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취업/진학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졸업 이후의 소속 기관을 제공하여 진로 준비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진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대학 진학자 중에는 고교 졸업 이후 특정 시점에서 대학 진학을 선택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교 졸업과 대학 진학 사이의 공백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대학 진학자는 진학 정보 접근성 제고와 입시 평가 기준 개선을, 전문대학 진학자는 고교 전공 전환과 진학 이후 지원 제도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 재설계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시사한다.

〈표 5-30〉 전문대학 진학자의 정책 요구도

(단위: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계		4.00	4.13	4.06	4.06	4.17	4.12	4.14	4.13
대학 지역	수도권	4.05	4.21	4.21	4.24	4.18	4.22	4.20	4.07
	비수도권	3.99	4.12	4.03	4.02	4.17	4.09	4.13	4.15
대학 학년	1학년	3.98	4.14	4.04	4.13	4.16	4.06	4.10	4.17
	2~4학년	4.07	4.12	4.13	3.86	4.21	4.30	4.30	4.01
대학 전공 계열	공학계열	4.05	4.02	4.03	4.06	4.06	4.08	4.08	4.03
	사회계열	3.95	4.33	4.10	4.08	4.18	4.20	4.05	4.25
	예체능계열	3.79	4.21	4.25	4.21	4.21	4.21	4.43	4.29
	의약계열	4.08	4.09	4.00	4.11	4.20	4.11	4.22	4.12
	인문계열	3.50	4.88	3.88	4.63	4.88	4.13	4.38	4.13
	자연계열	4.00	4.09	4.14	3.85	4.19	4.09	4.07	4.14
고교-대학 전공 연계성	일치	3.95	4.06	4.03	3.98	4.08	4.11	4.08	4.11
	불일치	4.07	4.23	4.11	4.17	4.30	4.14	4.22	4.17

자료: 연구자 작성

- 주) ① 취업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학 정보 제공과 입학 상담 지원
 ② 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에 대한 대학 과목 사전 이수 제도 마련
 ③ 교과(전공과목) 성적, 대회 수상, 자격증 취득 등의 경험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입시 제도 개선
 ④ 대학 입학 전 수학, 과학 등 기초 학문에 대한 학습 공백 지원
 ⑤ 고등학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타 전공 수업을 듣거나 학과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
 ⑥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취업/진학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졸업 이후의 소속 기관을 제공하여 진로 준비 지원
 ⑦ 고등학교 전공과 연계된 대학 전공과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⑧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이나 취득한 자격증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직업계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 1,121명을 대상으로, 진학 유형별(선취업 후진학자, 일반대학 진학자, 전문대학 진학자)로 고교 교육 경험, 대학 진학 과정 및 대학 교육 경험, 향후 진로 계획, 정책적 지원 요구를 조사한 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학 유형에 따라 고교 시절의 교육 경험과 대학 교육 경험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 대학 진학 유형별로 진학자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취업 후진학자는 고교 시절부터 우수한 교육 경험을 축적한 집단으로, 다른 진학 유형과 비교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보통교과 학업 성취수준 모두 중상위권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은 다른 진학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고교 전공 적성 수준이 높았고, 대다수가 고교 시절부터 취업을 목표로 설정하여 교육활동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특징을 보였다. 이는 선취업 후진학자가 전공에 대한 높은 적성 만족도를 토대로 진로 준비의 자기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임을 시사한다.

이들의 대학 진학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전이 41.1%로 가장 많았으나, 취업 후 3년 차에 진학을 결정한 경우도 19.6%에 달해 선취업 후진학을 염두에 둔 전략적 진로 설계와 취업 경험 이후의 진학 결정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중 다수는 ‘학위 취득 후 동일 업계의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 진학하였으며, 제4장 면담에서 도출된 제도적 지원 부족이나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에 의한 진학보다는 대체로 이직을 목적으로 한 진학이 보편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선택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평판’과 ‘개설된 전공

학과와 매력도'가 주요 요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 시 전공 선택의 폭이 좁아 정책 요구에서 전공 다양화, 부·복수 전공 제도 확대 등이 제기되었다. 고교 전공 내용과 대학 전공 내용의 연계성이 낮게 나온 것 또한 제도적으로 전공 선택의 폭이 좁아 연계가 어려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재직자 대상 후진학 경로의 다양화와 전공 선택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취업 후진학자들의 진학 과정은 이들이 축적한 일 경험과 실무 전문성보다 대학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학습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 일반대학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선취업 후진학자의 69.8%가 고교-대학 전공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고교 때 배운 내용과 대학 학업의 연계성을 가장 낮게 평가한다는 점은 직업교육 과정과 대학 교육과정 간의 연계 부족 문제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선취업 후진학이 일반 진학과 달리 평생학습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기관의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가 현재와는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일반대학 진학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인 비율, 고교 전공 적성, 교육활동 참여도에서 선취업 후진학자보다는 낮지만 전문대학 진학자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일반대학 진학자의 보통 교과 성적은 전문대학 진학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내에서도 학업 성취수준에 따라 진학 대학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대학 진학자 중 졸업 후 진학을 준비한 경우, 주된 이유는 졸업 후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전공이나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교 재학 중 진학을 준비한 경우에는 고교

전공 관련 공부 심화와 고졸 취업의 처우·사회적 인식 문제가 주된 동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대학 진학자의 특성은 앞 장에서 제기된 직업계고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고교 시절 취업과 진학 준비가 병행되는 양상은 제4장에서 지적된 특성화고의 이중적 정체성 문제를 재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졸업 후 진학을 결정한 주된 이유가 고졸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라는 점은 제4장에서 분석된 노동 시장에서의 학력 차별 문제가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진로 선택에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진학 과정에는 보통교과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수능 성적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고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내신 중심의 입시 제도를 통해 진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고교와 대학 전공 간 연계성이 선취업 후진학자보다 불일치한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났다. 대학 진학 시 전공 전환이 빈번한 만큼, 고교 단계에서 전공탐색과 진로상담을 강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일반대학 진학자의 대학 학업 경험은 선취업 후진학자와 동일하게 고교에서 배운 내용과의 연계성이 낮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고교 때 배운 내용과 대학 학업의 연계성이 낮다는 평가는 전공 전환의 이유도 있겠으나 동일 계열로 진학하더라도 연계 정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대학 진학자의 정책 요구도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들은 고교 전공과 연계된 진로 정보 제공 체계의 강화, 입시 제도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전공 교과 성취도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 평가 확대, 고교-대학 전공불일치 학생을 위한 전공 전환 지원 제도 마련 등에 대해 강한 요구도를 보였다. 앞서 진학 과정이 고등교육 제도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러한 진로지도는 직업계고 내에서의 진로상담 강화, 전공 전환 제도 마련 등 변화가 일정 부분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전문대학 진학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인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주변의 추천으로 전공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교육 활동 참여도는 낮았다. 또한 고교 시절 진로 준비 유형에서 '기타/미결정'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아 진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 준비 시기는 졸업 이후가 30.2%로 일반대학 진학자보다 높았으며, 졸업 후 진학을 준비한 주된 이유는 일시적 취업 이후의 적성 불일치와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었다. 이는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교 전공 선택의 제약성 문제와 노동시장에서의 학력 차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문대학 진학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대학 진학자의 특징 중 하나는 전공 선택 시 해당 분야의 일자리 전망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으로, 특히 졸업 후 진학한 집단은 이를 가장 중시하였다. 일반대학 진학자들이 고졸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학위 취득에 초점을 두었다면, 전문대학 진학자들은 취업 이후 적성 불일치를 경험하고 재취업을 위해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의 경우 진학 과정에서 일반대학보다 전문교과 성적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문대학에서의 학업 경험 또한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이론적 지식 습득에서 가장 큰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에 비해 최신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평가가 높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서의 학업과 교수학습의 토대가 학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대학 진학자들은 일반대학 진학자에 비해 고교에서 배운 내용과의 연계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그 수준이 충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이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중등-고등 단계의 직업 교육 간 연계성에는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수도권 전문대학 재학생의 학업 경험 평가 점수가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 소재지에 따른 학습 경험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전문대학 진학의 매력도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6장

결론 및 주요 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주요 과제 제언

제6장 | 결론 및 주요 과제

제1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 기초 통계 및 패널데이터 분석, 개별 면담, 설문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들어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한 후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그간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 현상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았다. 2004년 동일계열 특별전형, 2010년 재직자 특별전형이 도입된 이후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부재하였고, 중등 직업교육 분야 또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추가적인 대책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고졸 취업’을 강조하던 기조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기조 변화가 학생들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결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직업계고 졸업자들을 위한 ‘진학’ 기회가 다양하게 열려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의 맹점은 진학 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 경험, 즉 직업교육의 특수성과 경험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반대학에서의 학생 선발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이며, 소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직업계고 졸업자를 위해 도입된 동일계열 특별전형 또한 지원 요건에만 제한이 있을 뿐 입학 전형 자체는 교과 성적, 특히 보통교과 성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지점은 직업계고가 일반고를 대신한 일반대학 진학의 우회적 경로로 작동하게 만들고 있으며, 직업계고 또한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을 위해 보통교과 선택 과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직업계고 입학생 모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화 될 경우 직업계고 존립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

또 다른 맹점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을 동일한 성격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학생들의 상태를 취업과 진학으로 양분화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 기술사관, 계약학과, 일학습병행 등의 사업 참여자들은 졸업 후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어 ‘진학자’로 분류된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5). 정책적으로 고교와 대학 단계의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정책이 강화될수록 현재 기준의 ‘진학률’ 지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높아지는 진학률은 직업계고가 어떠한 정체성과 역할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지만, 이는 곧 정책적으로 중등 직업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가의 문제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직업계고가 가지는 직업교육적 특성을 강화하되, 진학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경로를 열어두자는 관점을 취한다.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에서 일부 학생들이 외국어, 국제학, 기초 과학 분야로 진학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교 교육의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듯 직업계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교 졸업 이후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진로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직업계고 졸업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졸업 시점에서의 취업이나 진학이냐의 논쟁을 벗어나, 직업계고가 ‘직업교육’의 본질적 성격을 살린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 직무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기술과 자격,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진로 경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 교육 정책 전반의 관점에서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 경로를 폐쇄적으로, 즉 중등 직업교육(직업계고) → 고등 직업교육(전문대학 또는 폴리텍대학)으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보다 유연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전공 연계 진학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 간 강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진학은 오히려 경로의 폐쇄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강력한 매력 요인(예: 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처로의 취업 연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정책 효과가 미비하거나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체제의 특수성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

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제도를 연계·조정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경험한 직업교육적 활동이 대학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접목될 때 새로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 과정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복잡하게 분산된 후학습 경로는 일원화하고 제공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은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유형과 주된 특징은 무엇인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고등교육 참여 유형은 크게 미진학, 일반 진학, 선취업 후진학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고교 전공과 연계된 진학과 그렇지 않은 진학 혹은 일반대학으로의 진학과 전문대학으로의 진학 등으로 세분화됨을 확인하였다. 제3장의 기초 분석 및 시퀀스 분석, 제4장의 면담, 제5장의 설문조사에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면, 크게 선취업 후진학자와 일반 진학자 중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진학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요 특징을 요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 6-1>과 같다.

〈표 6-1〉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유형별 주요 특징

구분		주된 특징
선취업 후진학	고교 교육 경험 특성	•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성취수준이 높음 • 고교 전공에 대한 적성 일치도가 높고, 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 참여 빈도도 높음
	대학 진학 특성	• 대학 진학을 고등학교 졸업 이전부터 계획해 옴 • ‘이직’과 ‘업무 관련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 진학함 • ‘사회적 평판’과 ‘전공 학과 매력도’를 고려하여 입학 대학을 선택하나 전공 선택의 폭이 제한적임 • 새로운 분야 탐색을 위해 전공 변경을 시도하기도 하나, 학업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음 • 일-학업 병행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일반 진학 (일반대학)	고교 교육 경험 특성	• 고교 전공에 대한 적성 일치도가 선취업 후진학자에 비해 낮고, 대체로 고3 시기에 진학을 결정하고 준비함 • 타 집단에 비해 고교 재학 시절부터 ‘진학’을 염두에 둔 비율은 높으나, 취업 준비 관련 활동 참여 빈도는 낮음
	대학 진학 특성	• 지리적 여건과 성적을 고려하여 입학 대학을 선택함 •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으로의 진학이 지배적임 • 진학 시 전문교과 성적보다 보통교과 성적의 영향이 더 큼 • 동일계열 진학과 비동일계열 전공으로의 진학 비중이 유사함
일반 진학 (전문대학)	고교 교육 경험 특성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가 타 집단에 비해 낮음 • 타 집단에 비해 진로 미결정 상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고교 재학 중 취업 준비 관련 활동 참여 빈도가 낮음
	대학 진학 특성	• 지리적 여건, 취업 가능성,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여 입학 대학을 선택함 • 보건계열과 같이 취업 분야가 뚜렷한 전공으로의 전공 전환 비율이 높음 • 고교 졸업 후 일시적 취업을 경험하였으나, 적성 불일치를 겪은 후 재취업을 위해 전문대학을 선택함 • 진학 시 보통교과 성적보다 전문교과 성적의 영향이 더 큼 • 일반대학 진학자와 유사하게 동일계열 진학과 비동일계열 전공으로의 진학 비중이 유사함

자료: 연구자 작성

3.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가. 선취업 후진학자

선취업 후진학의 진학은 첫째, 이직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선취업 후진학 학생들의 첫 직장 유형은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보다 중견/중소기업이 63.0%로 가장 높았으며(〈표 5-4〉 참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고교 졸업 - 취업 - 진학 -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이라는 장기적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진학 결정이 고교 졸업 전에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41.1%였던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표 5-7〉 참조) 이러한 진로 계획은 대체로 고교 시절부터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첫 직장과 고교 전공 간의 연계성이 ‘3.31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에 그치고 있어(〈표 5-4〉 참조) 전공 적합도가 높은 직장으로서의 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학생들의 이직 욕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학 전공 선택에 있어서도 고교 전공 적성 일치도는 높은 편이나 (3.87), 첫 직장과 고교 전공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3.11) 고등학교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표 5-10〉 참조).

둘째, 사회적 지위와 계층 이동을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수도권 일반대학의 직업계고 출신 졸업자 중 40%가 넘는 비율이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경우였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의 충원율은 높지 않은 반면, 수도권 일반대학의 충원율은 100.0%에 가깝다(〈표 3-10〉 참조). 이를 통해 재직자 특별전형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반전형을 통한 진학보다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설문에서도 선취업 후진학자 학생들은 입학 대학 선택 시 지리적 여건보다 ‘대학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는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다(〈표 5-9〉 참조). 이는 일반 진학자들이 고교 성적이나 통학거리 등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여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것과는 상반된 특징이다. 면담 과정에서도 계약학과가 아닌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입학 대학을 결정하고 입시 과정에서 재직자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대학의 인지도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선택은 이직을 위한 준비 욕구와도 맞물려 있으며, 자신의 직무 경험과 상위권 대학의 졸업 학위를 통한 사회이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숙련의 향상과 직무역량 개발보다 대졸 학위 취득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고교 전공, 현재 직무, 대학 전공 간의 연계성이 강한 학생들도 있지만, 세 가지 요소가 조합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설문조사에서 대학 교육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51점에 그쳤으며(〈표 5-12〉 참조), 면담 과정에서도 직무와 대학 학업 간의 연계성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령기 학생들과는 다른 학사 제도, 대학 차원의 지원 수준 차이, 제한적인 전공 선택의 폭, 부·복수전공 기회 제약 등으로 인해 선취업 후진학 학생들이 대학에서 직업교육적 의미나 성과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공 선택의 폭이 좁은 현실도 대학 진학의 의미를 넓히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 대학에서 개설한 후진학자 전형의 전공을 개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계약학과 제도의 경우 기업이 협약한 대학으로 입학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후학습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기는 하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융합형 학과를 개설하는 경향이 있어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초점화된 교육은 제한적이다. 계약학과인 경우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제고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적성에 맞는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다. 또한 기업의 직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경우 대학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학업과 일이 통합된 형태가 아니라 병행선 상태의 이원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선취업 후진학자의 진학은 평생학습과 경력 개발의 측면보다 학위 취득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는 경향이 있다.

나. 일반 진학: 일반대학

첫째, 전공의 전환과 전공의 확장이라는 두 측면이 공존하는 진학으로, ‘진로 탐색 기간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대학 진학자 중 고교 전공과 동일계열로 진학한 학생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심화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으며, 비동일계열로 진학한 학생들은 고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새로운 분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재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대학 진학자들은 고3 시기에 진학을 결정하며, 대학의 전공 선택은 고등학교 때 경험한 적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진학 과정에서 일반고와 유사하게 자신의 성적에 따라 합격 가능한 대학을 지원하면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공존한다. 따라서 이들의 진학은 결과적으로 고교 전공을 전환하거나 고교 전공을 학문적으로 확장하는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대학 졸업 후의 뚜렷한 진로 방향성이나 취업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이 담겨 있지는 않았으며, 대학 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결정해 나가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일반대학으로의 진학은 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연시키면서 진로 탐색을 연장하는 성격을 지닌다.

둘째, 직업교육에서 일반(학문)교육으로의 '전환' 과정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 일반대학의 직업교육적 속성이 강조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반대학으로의 진학은 학문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지배적이며, 실제로 학생들 또한 관련 분야의 최신 기술보다 이론 지식을 습득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실무 중심의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미적분, 기초 화학, 기초 물리 등 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기초 준비가 부족하였고, 문해력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대학의 학업 및 평가 과정에서도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고교 전공과 동일 계열로 진학한 사례, 비동일계열로 진학한 사례 모두에서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며, 현재 직업계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업계열 졸업자들이 공과대학으로 진학할 때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였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 대해 별도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정책적 요구는 학문적 공백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일반 진학: 전문대학

일반 진학자 중 전문대학을 선택하여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진학은 첫째, '졸업 직후의 (재)취업을 목표로 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 전문대학 진학자 중 33.9%가 고교 졸업 후 재직 경험이 있었고, 평균 24.3개월이라는 재직 기간 이후에 다시 진학으로 경로를 변경한 학생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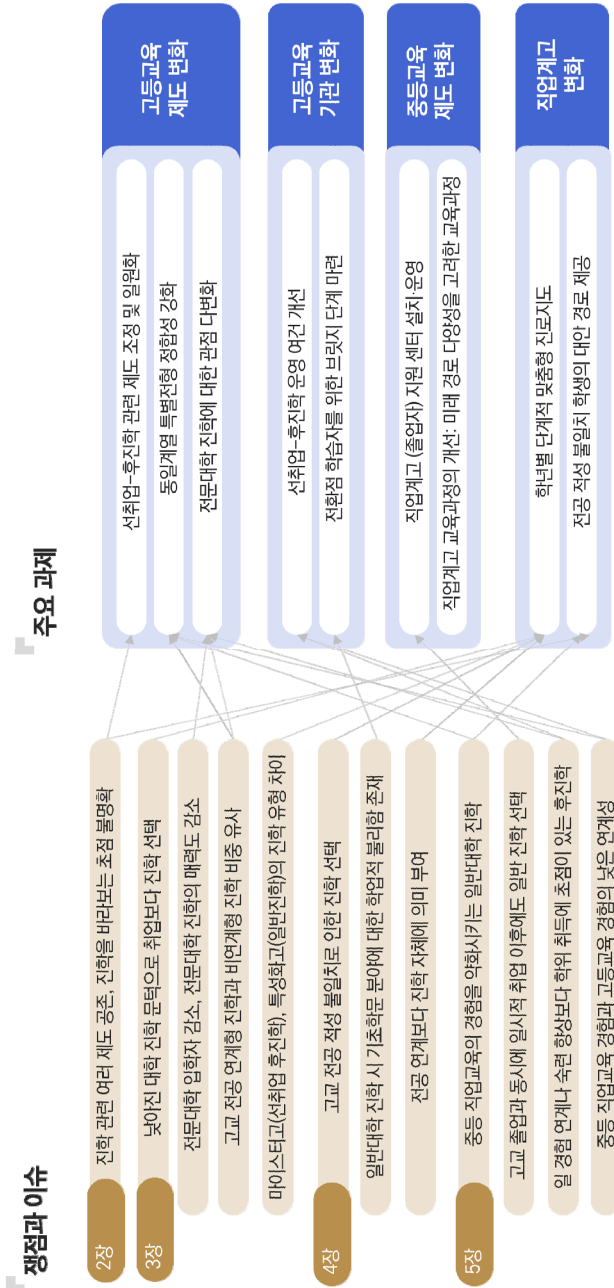
있었다(〈표 5-4〉 참조). 다만 이들은 첫 직장과 고교 전공 간의 연계성이 3.10점 수준으로 ‘보통’ 수준에 그쳤다(〈표 5-4〉 참조). 이들은 직업계고에서의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을 직접적으로 준비하여 졸업 시점에 취업하였으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에 진입하면서 적성 불일치를 경험하였고, 이에 재취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전문대학 진학을 선택하였다. 전문대학 진학자들은 일반대학 진학자들과 달리 전공 선택에서 ‘취업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에서 주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간호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등 의약계열 전공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크고 전문대학만의 고유한 인력양성 분야가 뚜렷하다면 전문대학 진학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은 중등에서 고등 수준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의 연계성이 비교적 느슨하게 형성되는 경로를 볼 수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도 고교-대학 전공의 일치와 불일치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점은 직업계고-전문대학으로의 진학이 강한 직업교육적 연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동일계열로 진학하더라도 학생들은 이론이나 지식, 최신 기술 학습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고교 단계의 내용과 잘 연계되거나 입학 전 기대했던 바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보였다. 비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라면 전문대학 진학은 고등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 진학자 내에서도 학습자 특성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유연화할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제2절 주요 과제 제언

연구를 통해 장별로 도출된 쟁점 및 이슈와 주요 과제 간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6-1]과 같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에서의 변화를 제언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크게는 이 두 축에서 과제를 제언 하되 각각의 교육이 실행되는 교육기관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과제를 추가로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6-1]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 과제 간의 관계



자료: 연구자 작성

1. 고등교육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

가. 선취업-후진학 관련 제도 조정 및 일원화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은 여러 정책이 혼재된 상태로,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후진학 관련 제도들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6-2>에 제시된 K대학의 경우 기계자동차공학부를 제외하면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학과와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운영학과가 동일하다. 이들 전형은 학생 선발 단계에서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학사 과정은 야간 및 주말 과정으로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6-2> K대학의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 현황(2026학년도 기준)

모집단위(학부/학과)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야간 및 주말 과정 유무
지원 자격	만 30세 이상	직업계고 졸업 후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
경영학과	○	○	○
전기전자제어공학부	○	○	○
기계자동차공학부		○	○
식물자원학과	○	○	○
원예학과	○	○	○
식품공학과	○	○	○

자료: 해당 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H대학 또한 계약학과, 일학습병행, 재직자 특별전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제도마다 입학 자격 요건, 장학금 지원처(예: 산업체, 한국장학재단),

입학 전형 방법 등은 모두 다르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형태가 동일하지만, 제도별로 구체화된 트랙이 존재하며 주된 대상이 직업계고 졸업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수요자가 중첩된다. 대학 입장에서든 여러 지원 제도에 참여하면서 후진학 학습자를 위한 지원 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계약학과와 계약학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관련 입학 유형이 제시되지 않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일학습병행 또한 별도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계약학과와 일치할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 간의 이점을 통합하여 전형을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3〉 H대학의 계약학과, 일학습병행,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현황(2026학년도)

모집단위(학부/학과)		운영학과
일반 계약학과	학사 (3학년 편입)	기계제조공학과 환경안전경영학과 기업경영학과
	석사	복지행정학과 바이오환경안전공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사 (3학년 편입)	반도체기계시스템공학과 메카트로닉스시스템공학과 스마트컴퓨터융합공학과
	석사	스마트시스템융합공학과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학사(신입학)	컴퓨터전자공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신입학)	산업융합공학과 디지털경영학과

자료: 해당 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여러 부처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제도를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조정하여 후학습 제도를 크게 ‘기업연계형’과 ‘개인선택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기업연계형은 기업과 대학의 협약을 통해 정해진 대학과 전공으로 입학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학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은 대학과 전공에 대한 선택의 폭은 좁으나 재직 도중 학비를 지원받아 상위 수준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반면 개인선택형은 고교 유형, 연령 구간 등과 관계없이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다면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연계형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진학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재정 지원은 소속 기업이 아닌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후진학과 관련된 이러한 전형 유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대학 입학 전형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예: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 면접 전형)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4〉 후진학 제도 개선(안)

전형 유형	제도 개요
기업연계형	•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재직 근로자들의 재교육을 지원 • 재직자들은 소속 기업과 협약된 대학의 전공 학과에 입학함 - (지원자격) 해당 기업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기업 직무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흐른 후에 지원 - (재정지원) 기업체 학비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에 참여,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의무 재직 • 대학은 산업체 맞춤형 입학 전형, 교육과정 및 학사 제도 운영
개인선택형	• 개인이 자신의 진로 계획에 따라 입학 대학을 결정하여 후학습에 참여 • 재직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함 - (지원자격)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 보유한 자 - (재정지원) 국가 장학금 제도 (일부)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에 참여, 고등교육기관 재학 도중 산업체 근무를 유지 • 대학은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 전형, 교육과정 및 학사 제도 운영

자료: 연구자 작성

나. 동일계열 특별전형 정합성 강화

1) 동일계열 학과 지원 기준 개선

동일계열 진학은 고교 단계에서 형성한 기초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 경험을 일반대학 진학을 통해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확장하는데 초점을 두며, 이는 특정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래 〈표 6-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계열 수준에서 동일계열 진학이 이루어질 경우, 직업계고에서의 학습과 대학에서의 학습 간 연계성이 떨어지게 된다.

〈표 6-5〉 A대학의 2025학년도 특성화고 등 졸업생 대상 동일계열 특별전형 기준학과

대학	모집단위(학부/학과)	지원가능한 특성화고 기준학과
공과대학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전기과, 전자과, 농업기계과, 항해과, 기관과, 정보컴퓨터과, 산업안전과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과, 전자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산업안전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정보컴퓨터과
	경제학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정보컴퓨터과,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행정학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정보컴퓨터과,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자료: 해당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취지와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반 대학이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과별 기준학과를 매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직업계고 졸업자가 매칭된 기준학과와 관련된 전문교과 과목을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별도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준학과만 매칭된다면 고교에서의 해당 기준학과와 관련된 과목 학점 이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는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학과와 다른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라면 해당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30학점 정도가 고교-대학 전공 간 동일계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 학생들의 3개 년간 전문교과 평균 이수 학점이 99학점인 점을 고려했을 때(김남희 외, 2023) 30학점 기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련 기준학과 과목으로 절반 이상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한다.

〈표 6-6〉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 10. 1., 타법개정]	개정(안)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생략) 14. (생략)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 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생략) 14. (생략)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 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단, 졸업자는 이수한 학과에 해당하는 전문교과 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자료: 연구자 작성

〈표 6-7〉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개정(안) (1)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개정(안)
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운영기준 ○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준학과가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	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운영기준 ○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준학과가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5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

자료: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b)’,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동일계열 특별전형 입학 제도 개선

대학에서 동일계열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동일계열 확인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학점 등을 검토하는 ‘전공 적합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나(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b), 각 대학에서는 대부분 고교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생부(교과)’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이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 전형(교과/비교과 모두 포함)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교과 성적의 반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8년에 발표된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과 뒤이어 2019년에 발표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자격증, 수상경력 등을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재학 중 취득한 다양한 자격증과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각종 대회 참여 등이 입학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표 6-8〉 학교생활기록부 구성 항목 및 대입 전형 반영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세부 내용	반영 여부
1	출결사항	결석, 지각, 조퇴 등	반영
2	수상경력	교내 수상	미반영
3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재학 중 취득 자격증, 인증	미반영
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활동 실적	반영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미반영)
5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반영
6	독서활동상황	제목, 저자	미반영
7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교사 기록	반영

자료: '교육부(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 요건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등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 이수가 자격 취득으로 연계되어 실무 중심 교육이 보편화하고 있으므로 직업계고 졸업자만 '학교 교육과정 활동' 범위로 한정하여 취득한 자격,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등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3년에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이후 추가적인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책적으로 발표될 대입제도 개편(안)에 이를 포함시키고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6-9〉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개정(안) (2)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개정(안)
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운영기준 ○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심의 시 동일계열 확인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학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심사항목에 포함함	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운영기준 ○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심의 시 동일계열 확인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학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심사항목에 포함함 ○ <u>본 전형 운영에 한해 학생부 평가 항목으로 학교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수상경력을 평가할 수 있음</u> ○ <u>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평가할 경우 전문 교과 성적을 포함하여 평가함</u>

자료: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b).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이와 같은 개선은 동일계열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업계고 졸업자가 그 외 전형에 지원할 때는 타 고교 유형의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입학 자격을 평가받아야 하므로 현행 평가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선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상대적 이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전문대학 진학 관점 다변화

그간 전문대학 진학을 접근하는 정책적 관점은 직업계고와의 교육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6년에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는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을 2+2 연한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고, 2000년에 발표된 '실업계고 육성 대책'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는 교육 연한을 단축하여 이수할 수 있는 모델로 정착되지 못한 채 특정 정책사업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현재 남아 있는 형태는 제2장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기술사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학생들의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진학자'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전히 다수의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전문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들 중 절반은 고교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진학한다. 이는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고교 전공과 대학 전공 간의 연계 수요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1) 지리적 여건, 2) 재정적 지원, 3) 취업 가능성(제5장 참조)으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와 안정적인 취업 가능성이 더욱 우선시되고 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 이후 일시적인 취업 경험을 거친 후 새로운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한다면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전문대학 진학을 '대학 진학'으로만 간주하기보다 직업교육 경로에서의 취업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 통계 조사에서 전문대학 진학자를 ‘진학자’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취업준비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대학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위한 정원 내 특별전형,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별전형 등으로 직업계고 졸업자를 선발하며, 전문대학 전체 입학 정원 중 약 10% 내외를 차지한다. 이 중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고교 전공과 동일계열로 진학하기도 하지만 전공을 전환하기도 한다. 다만 전문대학 진학의 과정과 학습은 직업교육 경로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일반대학 진학자와 동일한 속성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제도적으로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이 마련된 상태에서 전문대학 진학까지를 진학률로 간주할 경우, 정책적 기초와 무관하게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취업이나 노동시장 이행 준비를 하지 않고 학문 중심의 진학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표 6-10〉 전문대학의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위한 특별전형 모집 현황

구분	전형명	2027학년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특별전형 (정원 내)	특성화고 특별전형	14,090(8.5)	15,684(9.2)	17,309(10.2)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673(0.4)	832(0.5)	1,105(0.7)

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24b).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 발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25a).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 발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주 1) () 비율은 전체 선발 인원 중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규정하는 전형 명칭으로 실제 운영 시에는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 졸업자까지 포함시켜 선발함(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4b)

둘째, 전형의 재구조화와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연계 교육 형태를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 진학 시 고교 전공과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모든 학생을 연계교육 트랙에 포함 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약’으로 국한할 경우 ‘협약’이 체결된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해당 학생들 이외에도 직업계고 졸업자 중 전문대학 진학자의 절반가량이 동일계열 진학자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동일계열로 취업을 목표로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연계 교육’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여 고교 3학년 1학기 말에 진학을 확정하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 전문대학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1학년 1학기 학점 이수 과목 일부를 고교 3학년 2학기에 선이수하여 고교 졸업 학점과 전문대학 졸업학점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제시 하는 등 일반대학 진학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은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학교 밖 교육과정 제도를 통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은 고교 단계에서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보다는 학교장 추천서 등 서류평가로 전형이 진행된다. 그러나 전공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서류평가 이외에도 고교 시절의 전문교과 성적,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 역량(예: 자격증 취득 현황, 실기 평가)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전문대학 진학 시 전공을 전환하는 학생들에게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통해 새로운 경로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직업계고 졸업 생을 고교 성적 기준으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업 분야의 적성 검사 결과, 진로 계획서(서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도 “직업교육의 특성과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학업 성적 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적극 활용”(p.8)(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4b)할 것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성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대학 입학 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전문교과 성적이 보통교과 성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보통교과 성적을 강조하는 일반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에서는 고교 3개년 성적 중 우수 학기의 전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5b). 따라서 전공을 전환하는 학생들이 일시적인 관심이나 흥미에 의존하여 전공을 선택하지 않도록 진로 적성에 초점을 맞추어 선발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표 6-11〉 전문대학 진학 전형 개선(안)

구분	현재(As-is)	향후(To-be)
특성화고 특별전형	•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 졸업자 • 지원전공: 개인이 희망하는 전공에 지원 • 전형방법: 학생부(교과) 위주 평가	•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 졸업자 • 지원전공: 고교 전공과 비동일계열 전공에 지원 • 전형방법: 전공 적성 평가, 진로 계획서 서류평가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 연계교육 특별전형	• 대상: 해당 대학과 협약을 맺은 고교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지원전공: 협약을 맺는 전공 • 전형방법: 학교장 추천서 서류평가 • 선발시기: 3학년 2학기	•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 졸업자 중 동일계열 진학자 • 지원전공: 고교 전공과 동일계열 전공에 지원 • 전형방법: 전문교과 성적,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 실기·실습(면접) 평가 • 선발시기: 3학년 1학기(조기 모집), 3학년 2학기(추가 모집)

자료: 연구자 작성

2. 고등교육기관 차원의 개선 과제

가. 선취업-후진학 운영 여건 개선

1) 학사 운영 기준(안) 마련

후진학 제도 중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 대학별 학사 관리 및 운영 제도가 상이하여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에 따라 교육 경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첫 번째 차이는 수업 운영 시간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서는 ‘제2항 제14호 다목(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자)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평일 야간과 주말 시간대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일반 진학자와 동일하게 주간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가천대학교의 경우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재직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일반 진학자와 동일하게 주간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차이는 학생들의 재직 상태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식이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직장 과 학업을 병행하는 형태를 명확히 전제하고 있으나,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일반대학 중에는 입학 시점에서만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 재학 도중의 재직 상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간 수업 운영과 재직 상태가 의무 조건이 아닌 대학의 경우 재직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 생활에 전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선취업 후진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8%가 현재

재직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참조).

세 번째 차이는 부복수전공 등에 대한 참여 요건의 차이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도 대학 내 대부분의 전공에 대해 복수전공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몇몇 대학에서는 복수전공을 허용하지 않거나, 같은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내에서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타 단과대학이나 타 전공으로의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타 전공의 수업이 모두 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직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를 이수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일정 기준(안)을 제시하고 대학이 해당 틀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우 외(2017)는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운영 표준 모델(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기준을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지침)으로 수립하여 대학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표 6-12〉 후진학자를 위한 대학 학사 운영 지침(안)

구분	주요 내용
학생 모집	○ 모집단위 규모화: 후진학자(성인학습자,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등)를 위한 단과대학 수준의 규모를 확보 - 단과대학 내 인문·사회, 자연, 공학 등 분야별 핵심 전공을 개설 - 단과대학 내 전공별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을 모집 - 별도의 전담 학사 지원 조직을 구축
학사 운영	○ 수업 운영: 후진학자 대상 학과의 경우 학과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야간주말 시간대에 필수적으로 운영 ○ 학점 이수: 학사 학위 기준 총 이수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설정 - 후진학자의 상황에 따라 주간 수업 이수가 가능한 경우 주간 수업 중 유사 과목을 전공과목 이수로 인정 - 졸업 학점 중 일부를 실무 경력(포트폴리오 제출) 또는 대학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으로 인정(「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학칙으로 기준 설정)

구분	주요 내용
	- 졸업 학점 중 일부를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 인정(학칙으로 비율 설정), 즉 대학 자체 온라인 콘텐츠 외 K-MOOC 등을 활용한 학점 이수 인정 ○ 복수전공 이수: 일반 진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타 전공에 대한 부·복수전공 선택권을 부여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교양 + 전공 수업으로 구성 - 교양 과정으로 기초 과목(기초 수학, 기초 물리, 기초 화학, 기초 영어 등) 운영, 입학 전 겨울 계절학기를 통해 사전 이수를 허용 - 전공 수업은 전공 필수, 전공 선택으로 구성하되, 실습 또는 프로젝트 과목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운영 - 복수전공 미이수자는 전공 심화 트랙으로 전공 학점 추가 이수 경로를 제시하고,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복수전공 이수 트랙으로 운영

자료: 김종우 외(2017)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수정·보완

2) 지역대학의 후진학 관련 제도 운영 형태 개선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직자 특별전형은 수도권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대학의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역시 일부 소수 대학에서만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춘 입학생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후진학이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집중될 경우 지역에서 직업계고를 졸업한 이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대학으로 후진학자 충원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후진학자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1) 대학의 사회적 평판, 2) 해당 대학에 설치된 전공에 대한 매력도, 3) 지리적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즉, 지역대학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한정적인 전공, 대학의 지리적 위치 등은 입학 선호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지역대학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과 성인학습자(만학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전공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표 6-13〉 참조).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려는 20대 중·후반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연령대가 높은 성인학습자와 다를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 중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5개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립목포 해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는 해당 전공을 재직자 특별전형과 성인 학습자 특별전형으로 공동 모집하고 있는데, 관련 전공이 대체로 AI, 경영, 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등 재직자 맞춤형 학과라기보다는 평생학습 차원의 전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2025학년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살펴 보면, 국립목포해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등록 인원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3〉 광주·전남 지역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 대학 현황

대학	개설 전공		2025학년도		비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전남대(여수)	공과대학	산업기술융합공학과	40	9	성인학습자 (만학도) 특별전형과 공동 모집
조선대	미래 융합대학	부동산비즈니스전공 스마트비즈니스전공 뷰티실버복지전공 건강여가복지전공 스마트ICT융합전공 소방에너지시스템전공	120	44	
국립목포대	미래 라이프대학	레저스포츠지도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국제차문화학과 회계세무학과 스마트에너지학과 스마트조선시스템학과	24	3	
국립순천대	미래 융합학부	동물생명산업전공 정원문화산업전공 물류비즈니스전공	8	4	

대학	개설 전공		2025학년도		비고
			모집 인원	등록 인원	
	융합산업전공 스포츠레저전공				
국립목포해양대	해양산업융합학과		23	20	-

자료: 1) 개설전공

전남대학교(2024). 2025학년도 전남대학교 수시모집요강.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2025). 2025학년도 조선대학교 수시모집요강. 조선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2024).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2024). 2025 국립순천대학교 수시모집요강. 국립순천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2024). 2025학년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수시모집요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 모집인원 및 등록인원

대학알리미(2025).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대학/전문대학)(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 2025. 6. 30.)

주) 모집 인원, 등록 인원은 재직자 특별전형에 한함

후진학자들이 비록 재직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지만, 일반 진학자와 유사한 대학 경험과 교육의 질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 대학의 후진학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 중 가장 많은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을 모집하는 공주대학교의 경우,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과 명칭을 유지한 채 야간주말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주대학교에서는 경영학과,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식품공학과에서 일반전형으로도 학생들을 모집하지만 재직자 특별전형으로도 모집하고 있으며, 해당 학과에서는 일반전형 학생들은 주간에,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들을 위해서는 야간주말에 수업을 운영한다. 해당 학과는 성인 학습자 특별전형으로도 학습자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대학과 달리 일반대학 생활과 유사한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업계고 졸업자 다수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업, 공업, 농생명 계열의

학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권역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한 이후 해당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 용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역대학은 현재와 같이 대학별로 분산된 체제, 평생학습대학 사업과 통합된 체제를 고려하기보다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일반대학 전공 중 재직자들의 요구가 있는 학과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고려하여 개설하는 규모의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지리적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 내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후진학 학생들을 위한 학점 교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환점 학습자를 위한 브리지(bridge) 단계 마련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학습 경험의 부재이다. 이는 일반 진학, 선취업-후진학 모두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슈이며, 특히 이는 이공계열 전공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성상 수학, 과학은 1학년 시기 공통과목 수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2~3학년 시기에는 전공과 관련된 전문교과 편성이 두드러지면서 수학, 과학 등 보통교과의 선택 과목(예: 물리학, 화학, 미적분 등)을 편성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진학 후 스스로 부족한 학습 내용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직업계고 졸업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타 고교 유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학생들이 고교 시절 어떠한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지에 따라 대학 전공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K-MOOC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학 전에 이수해야 할 기초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1학년 입학 전에 이를 이수하여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른바 ‘브리지(bridge)’ 학습 단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6-14>와 같이 기개발된 수학, 과학 분야의 기초 학습 콘텐츠를 브리지 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입학 전 이수를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K-MOOC를 추진하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대학이 필요에 따라 여러 강좌를 조합하여 하나의 코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수요가 있는 영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개발하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콘텐츠 개발을 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과정(course)을 기획하고(예: 이공계 진학 입학생을 위한 기초 과정) 그에 맞는 콘텐츠(예: 기초 수학, 기초 화학, 기초 물리학)를 개발할 수 있는 대학을 모집하여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활용 용이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6-14> K-MOOC를 활용한 브리지 단계

코스명	K-MOOC 강좌명	제작 대학
이공계열 진학자를 위한 브리지 강좌	고등학교 과정 중심 기초 미적분	세한대학교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 화학	한양대학교(ERICA)
	공대생을 위한 기초 물리학	충남대학교
	인공지능 수학 기초	성균관대학교

자료: K-MOOC 홈페이지(www.k-mooc.kr)에서 조회하여 연구자 작성(검색일: 2025. 12. 30.)

3. 직업교육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

가. (가칭) 직업계고 졸업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과 진학은 고교 졸업 직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졸업 이후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후진학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진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개별적으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여 진학을 준비하며,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전담 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다수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후 이직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후진학 대학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보 탐색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舊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을 도입하고(교육부, 2020; 교육부, 2023b)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미취업자나 군 전역 후 경력단절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직업계고 졸업자 중에서도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6-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자를 위한 지원 기구는 취업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중앙취업 지원센터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 간 일부 역할의 중첩도 나타난다. 직업계고 졸업 이후의 경로가 취업, 진학으로 나뉘고 그 과정에서도 이직, 전직, 전공 전환 등 여러 욕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이 미취업자 대상의 취업 지원에 국한하기보다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위한 종합

적인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15〉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과 관련된 지원 기구

구분	취업지원센터 운영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
지원대상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
방법	중앙 및 시도단위 센터 운영	24개 거점학교
역할	• 고졸(예정)자 채용 현황, 기업 정보 등 취업 정보 발굴 및 제공 • 직업계고 인식 개선 및 홍보 • 현장실습 지원(기업 정보, 매뉴얼) • 양질의 고졸 취업처 발굴 •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예정)자 일자리 매칭 등	• 졸업생 이력 관리 • 전용 취업 준비 공간 제공 •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채용 정보, 면접 컨설팅 등 취업 지원

자료: '교육부·한국장학재단(2025). 2025년 고졸청년 지원 사업.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자 작성

이를 위해서 현재의 분산된 정책 추진 역량을 종합하여 가칭 '직업계고 졸업자 지원센터'를 중앙단위에서 설치하고, 온라인 상담 채널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된 역할로는 분야별 취업처 발굴(고용센터와 연계),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 진학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분석(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계), 취업 및 진학 컨설팅·상담, 직업계고 기술인재 DB 구축 및 재학생·졸업생과의 매칭,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다양한 경력 성공 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졸업자 중에는 재직자와 미취업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 수요자들이 쉽게 컨설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취업과 진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인력 및 AI 상담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여 체계적인 상담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안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취업지원센터나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과 달리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졸업자가 회원가입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아울러 2023년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에 발표되었으나 아직 추진되지 못한 고졸자 후속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¹⁰⁾ 마련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10)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후속 관리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관련 법 내 특례 규정 마련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23c).

〈표 6-16〉 직업계고 (졸업자) 지원센터 역할(안)

구분	주요 역할
취업 지원	• 분야별 고졸(예정)자, 전문대졸, 대졸자 채용 현황 및 기업 정보 제공 • 지역별 양질의 고졸 취업처 발굴 및 직업계고 현장 정보 제공 • 현장실습 기관 발굴 및 지원 • 졸업예정자, 미취업 졸업자, 이직 희망자 등 맞춤형 취업 정보 매칭
진학 지원	• 선취업 후진학, 동일계열 특별전형, 일반 진학 등 분야별 진학 학과 및 진학 현황 정보 제공 • 입학 전형에 대한 해설과 상세 안내 자료 제작 및 보급
정보 구축	• 직업계고 졸업자 기술 인재 DB 구축 - 직업계고 졸업 후 특정 직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자 - 취업처 분야별(예: 공공부문,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경력 경로별(직업계고-취업-진학, 직업계고-전문대학/일반대학 진학-취업) DB 구축
컨설팅 상담	• 졸업자 대상 맞춤형 취업 컨설팅 및 상담 - 이력서 작성, 면접 지원 등 • 졸업자 대상 맞춤형 진학 컨설팅 및 상담 - 전공 선택 상담 - 지원 대학 유형 및 입학 전형 상담 등 • 기술 인재 DB에 등록된 자와 취업·진학을 준비하는 졸업자 간 멘토링 매칭 • 상담 이후 성과에 대한 후속관리
네트워크 및 기반 구축	•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 구축(시도교육청, 기업, 대학 등) • 전문 상담 인력 양성

자료: 연구자 작성

나.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고졸 취업을 위한 완결성 있는 교육이어야 하는 동시에 이후의 학습 단계와의 연결성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타 고교 유형과 달리 직업계고 졸업 이후의 진로 경로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고졸 취업을 위한 완결성 있는 교육의 성격을 띠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 내용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구조화된 교과가 필요하며, 이후 학습 단계와의 연결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공과 학문 분야와 연계된 교과(군) 및 기준학과 설정, 전공 기초 과목의 내용 설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우 산업분류체계의 일종인 NCS 대분류에 따라 교과(군)를 설정하고 교과(군) 내 학과는 학문 분야별로 설정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산업체, 대학, 학교 현장의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개발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기준 측면에서도 유연성과 자율성은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으나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계고에서는 학과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각 학과마다 1~2개 내외의 기준 학과를 매칭하고 있으나, 기준학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여러 교과(군)와 기준학과에 해당하는 과목이 뒤섞여 편성되면서 교육과정의 초점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표 6-17〉 참조). 따라서 제도적으로 일반대학, 전문대학 모두 ‘연계’를 키워드로 한 진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직업계고 교육과정 또한 이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하다.

〈표 6-17〉 G고등학교의 미디어메이크업아티스트과 교육과정

구분	해당 교과(군)	편성 과목	학점
전문교과	경영·금융	상업 경제 사무 행정	9
	관광·레저	관광 일본어 관광 영어	7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영상 제작 기초 편집·사운드* 광고 콘텐츠 제작	8
	정보·통신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일반	2
	미용	미용의 기초 미용 안전·보건 색채 디자인 메이크업 헤어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실무 헤어 미용2(고시 외)	56

자료: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www.schoolinfo.go.kr)(검색일: 2025. 12. 30.)

주) 2025학년도 신입생 기준 3개년 교육과정 편성에 제시된 과목이며, 해당 학과의 기준학과는 미용과, 문화콘텐츠과임

이에 향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산업체, 대학, 직업계고 현장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공별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과목 경로뿐만 아니라 해당 과목을 이수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경력 경로와 고등교육 진학 시 선택할 수 있는 전공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개념 정의와 이수 기준을 마련하여 고등교육 단계 학습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학과 중심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나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이후 부전공 등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학생이 선택한 주전공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전통적인 단일 학과 교육과정 이수 모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공, 부전공 이수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각 전공별로 이후 진로와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제안한 동일계열 학과 지원 기준 개선 과제와 연계하여서도 전공에 대한 이수 기준을 교육과정 상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년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과목 이수가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고학년 시기에 갑작스러운 진로 전환이나 전공 전환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전문교과 학습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저학년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학점이 보통교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4. 직업계고의 변화

가. 학년별/학생 특성별 맞춤형 진로지도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이 재학 도중 ‘취업’을 준비하다가 졸업 전 ‘진학’으로 진로 경로를 바꾸는 경향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직업계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대학 진학을 통해 전공을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나타난다. 직업계고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이슈는 학생들이 고3 졸업 시기를 앞두고 졸업 이후의 ‘소속’을 결정하기 위해 급하게 ‘진학’

으로 경로를 바꾸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대학 진학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보다는 흥미와 일시적인 관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었다. 직업계고 특성상 교사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취업 지도를 중점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해당 분야로의 취업 혹은 진학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나 그 외 전공에 대해서는 취업과 진학 모두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전공 전환을 고려하는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지원은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직업계고를 위한 ‘진로지도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진로지도 표준모델은 학년별로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로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에 해당한다. 본 연구 면담에서 전공을 전환한 학생들은 대체로 2학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전공과목이 증가하면서 해당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는데, 2학년 시기에 전공불일치를 경험할 경우 타 학교로의 전학이나 타 학과로의 전과가 쉽지 않으며, 결국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3학년 때까지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1학년 때부터 선택한 전공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나, 현재 교육과정 구조상 학교가 별도의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지 않는 이상 1학년 시기는 전공에 대한 학습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자신의 전공을 이해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표 6-18〉 참조).

〈표 6-18〉 직업계고 학년별, 학기별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편성 학점(평균)

구분	1-1	1-2	2-1	2-2	3-1	3-2
보통교과	20학점	20학점	15학점	15학점	4학점	3학점
전문교과	9학점	9학점	14학점	14학점	25학점	27학점

자료: 김남희 외(2023). 직업계고 전문 교과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p.97

주) 해당 연구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한 3개년 교육과정 편성을 분석한 결과로, 전체 직업계고 중 150개교를 표집하여 분석한 결과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첫 번째로 학년별로 고교 전공에 대한 탐색(1학년)-이해(2학년)-심화/결정(3학년)의 단계로 나아가며 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와 직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때의 진로교육은 단편적으로 적성검사나 전공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는 견학 활동, 전공과 관련된 프로젝트, 전공과 관련된 경력 경로에 대한 학습, 관련 분야 기초 자격 취득 경험과 같이 구체적인 수행 중심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직업계고 내 전반적인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취업과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직업계고에서는 진로지도에 대한 역할 분담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전공과목 교사이지만, 교사들은 각 과목 중심으로 교과 수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진로지도에 대한 책임감이나 책무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학교별로 1인 내외로 배치된 진로진학 상담 교사의 경우 직업계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과 진로 경로(취업, 진학 등)를 고려하여 세밀한 상담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담임교사도 학기 초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지만, 담임교사의 전공에

따라 학생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전반적으로 직업계고 내 구성원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되 특히 전문 교과 교사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전공별로 경력 경로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일정한 경력을 축적한 후의 진학, 진학 이후의 취업 등 여러 가지 경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각 경로를 이행한 졸업자들이 어떠한 경력을 축적하고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졸업 직후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와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질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 고교 단계에서 충분히 정보를 습득한 후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전공 적성 불일치 학생의 대안 경로 제공

전공에 대한 적성 불일치를 겪는 학생이 진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전공 선택의 실수를 경험하지 않도록 직업계고 내에서 대안 경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직업계고 내에서 대안 경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부전공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이후 ‘부전공’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도 ‘부전공’의 개념이 반영(교육부 고시 제2022-2호)되면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부전공’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이 대안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훈 외(2024)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후 부전공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의 19.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¹¹⁾, 부전공 이수 필요성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과 교사 인원 부족, 학과 공간 부족, 학급 수 부족 등과 같은 교육 환경 관련 요인들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는 현재와 같은 학과 중심의 직업계고 운영 체제에서는 부전공 운영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전공을 통해 전공에 대한 대안적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의 운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내 여러 전공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부전공 자체의 운영이 어렵고, 그만큼 학생들이 대안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폭 역시 좁아지게 된다. 앞서 제안한 학년별 맞춤형 진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전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2학년 시기에 부전공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제시한다면 전공 적성 불일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전공과 부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이후 부전공에 대해서는 24학점을 이수하는 모형만 제시되었을 뿐 주전공과 부전공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교는 자체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부전공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하기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같은 학과 내에서도 부전공을 선택한 학생과 선택하지 않는 학생 간의 교육과정 이수 경로, 학급 편성, 학과 수업 배치, 교수학습 및 평가 등 교육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UMMARY

The Transition from Vocational High School to Higher Education: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Nam-Hui Kim, Soo-Jeong Lee, Ji-Eun Ryu,
Sang-Hun Lee, Mihee Park, Hae-Kyoung Lim, Seoni Hong

The increasing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Korea who pursue higher education has led to heightened national interest in their transition experienc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experiences and patterns of vocational students, including how their career paths evolved and the factors that shaped their decision to pursue higher education.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ata from Korea education statistics have suggested that while the enrollment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four-year universities is increasing, their enrollment rate in junior colleges is decreasing. Furthermore, four-year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howed an overwhelmingly higher proportion of admissions through special admission tracks for currently employed individuals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in non-metropolitan areas.

Second, Using data from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II, this study targeted 1,930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s of February 2018. We examined changes in their higher education enrollment and employment status over 60 months following graduation and categorized their higher education progression patter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five types were identified as follows: 1) Non-enrollment in higher education, 2) High school major-university major consistent enrollment, 3) High school major-university major inconsistent enrollment, 4) Work-first, Higher education-later, 5) Junior college enrollment.

Thir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6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s a result,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pursued higher education primarily due to perceived limitations in high school-level employment opportunities or a mismatch between their high school major and personal aptitude. Also, all interviewees reported facing academic challenges after entering university, often stemming from differences i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ies.

Fourth,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students who followed the "Work-First, Higher education-Later" pathway generally had a high congruence between their high school major and aptitude. In contrast, students who directly pursued higher education showed a lower level of major-aptitude fit. Additionally, most students who immediately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tended to shift their career aspirations from employment to further study during the third year of high school.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경중, 김종우(2002). 생애능력 함양을 위한 실업교육 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고용노동부(2021). 직업계고 졸업에서 전문학사까지! 2022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60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12. 23.).
- 관계부처합동(2018).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 교육부(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 교육부(2020).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 교육부.
- 교육부(2022). 2022년 4~5월 해외교육정보 동향자료. 교육부.
- 교육부(2023a). 계약학과 운영 매뉴얼. 교육부.
- 교육부(2023b). 2023년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3c).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 계획 및 조사지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2025). 2025년 고졸청년 지원 사업. 교육부·한국장학재단.
- 국립목포대학교(2024).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국립목포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2024). 2025학년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수시모집요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2024). 2025 국립순천대학교 수시모집요강. 국립순천대학교.
김남희, 변숙영, 최동선(2021).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원격수업 경험과
의미 탐색. **직업교육연구**, 40(1), 1-32.

김남희, 이수정, 이수현, 오관택, 박아름(2023). 직업계고 전문 교과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도협(2013). 독일의 단계별 교육시스템과 진로교육에 관한 고찰. **교육법학
연구**, 25(1), 49-75.

김영종(2019). 일본 전문직대학의 제도와 특징. **THE HRD REVIEW**, 22(1),
146-154.

김종우, 김성남, 이미란, 곽미선, 최수정(2017). 2017년 마이스터고 지원센
터 운영 지원 사업: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운영 표준 모델 연구.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지영(2023).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위기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교육사회
학연구**, 33(2), 191-225.

김진모, 최수정, 김영흥, 박자경, 정지용(2021). 특성화·마이스터고졸 초기
경력자의 후진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직업교육연구**, 40(4),
83-107.

김충환, 문인영, 박신희, 김지현(2020).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 국내 직업
교육의 변천 과정 고찰.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5(2), 21-45.

김현수(2022). 1995년 이후 한국 고등교육의 기능 분화 양상과 특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해동, 이병욱, 최규남(2003). 임시 정책 변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흥기, 김지훈, 김양현(2017). 왜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가?: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수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 18(2), 35-69.
- 남기원(2021). 대학의 역사. 위즈덤하우스.
- 대학알리미(2022~2025).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대학/전문대학) [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 2025. 6. 30.)
- 대학알리미(2022~2025).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대학/전문대학)[데이터 세트]. <https://www.academyinfo.go.kr/> (자료인출: 2025. 6. 30.)
- 류지은, 박동열, 임해경, 고귀영(2019).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사업 자문 및 성과분석 연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류지은, 김대영, 김성남, 손규태, 정운경, 최지연, 최지희(2024). 신산업분야 고졸 인력 성장경로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종성, 김민규, 손규태, 문상균, 박동진, 오호영, 김봄이, 이동임, 이지은, 조서연, 나영선, 민지식(2023). 일학습병행 제2차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백승주, 금종예, 민윤경, 손윤희, 이승호, 임종현, 임후남, 강충서, 서재영, 조혜진(2022). 대졸자 이행 실태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성과 제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모영민(2023). 지방대학의 위기와 과제: 신입생 충원율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서영복, 박찬권(2016). 계약학과 학위교육의 교육만족도와 직무유용성에 관한 연구: 직장 재직자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31(2), 311-333.
- 안재영, 김세훈(2022).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동향 및 경기지표와의 관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오호영(2015). 대학서열화와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18(2), 8-13.

유진영(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대응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훈, 최동선, 김종욱, 이정민, 박미희(2024). 2024년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센터 운영 사업 3. 직업계고 학과 내 및 학과 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교육부·광주광역시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영호(2002).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의 동일계 대학 입시전형방안 연구. **상업교육연구**, 5, 245-271.

전남대학교(2024). 2025학년도 전남대학교 수시모집요강. 전남대학교.

전홍주, 권현조, 조미숙(2018).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상업계열 특성화고교 출신자의 대학입학 전·후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9(2), 51-78.

조선대학교(2025). 2025학년도 조선대학교 수시모집요강. 조선대학교.

주휘정, 양정승(2021). 학령인구 감소 시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2025). 2025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모집 공고. 중소기업부 공고 제2025-258호.

최정운, 김은영, 김혜진, 박성호, 서재영, 우선영, 이선영, 남수경, 김성열 (2018). 한국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운, 임후남, 김지하, 조옥경, 민숙원, 채창균, 정지운, 오선정, 허재준, 박기범, 엄미정(2019).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고등·평생·직업교육의

- 과제와 미래 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교육개발원(20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별·학과별 학급 수, 학생 수 및 졸업 후 상황(2011-2025)[데이터 세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자료인출: 2025. 12. 30.)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a).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b).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산업인력공단(2023). 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승희, 이은정(2016). 고등교육 보편화와 체제적 복잡화: 고등교육과 평생 학습의 화학적 결합. **평생학습사회**, 12(1), 1-31.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24a).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24b).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 발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24. 5. 30.).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25a).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 발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25. 5. 28.).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25b).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문대학 입학정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Kropp, P. (2023).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국외 문헌〉

- Barber, T., & Netherton, C. (2018). Transitioning between vocational and university education in Australia: The impac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experience on becoming a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70(4), 600-618.
- Berk, S. (2022). *General education versus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its future*. In Education Policies in the 21st Century: Comparative Perspectives (pp. 131-158). Singapore: Springer Nature Singapore.
- Catterall, J., Davis, J., & Yang, D. F. (2014). Facilitating the learning journey from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33(2), 242-255.
- CEDEFOP. (n.d.). *Initi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IVET)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https://www.cedefop.europa.eu/files/IVET_Review_08.pdf (검색
일: 2025. 10. 30.)
- CEDEFOP. (2014). *Attractiveness of initi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dentifying what matt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 CEDEFOP. (2017). *The changing nature and rol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Volume 2: Results of a survey among European VET expert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 Farran, I., & Núñez, I. (2025). Converging pathways: new approaches to integrate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77(4), 1147-1165.
- Harris, R., & Rainey, L. (2012). Learning pathways between and within vocational and higher education: towards a typology? *The Australian Educational Researcher*, 39(1), 107-123.
- Houtte, M. V., Demanet, J., & Stevens, P. A. (2012). Self-esteem of academic and vocational students: Does within-school tracking sharpen the difference? *Acta Sociologica*, 55(1), 73-89.
- Jarausch, K. H. (1982). *Higher education and social change: some comparative perspectives*. In K. H. Jarausch (Ed.), *The transformation of higher learning 1860-1930: expansion, diversification, social opening and professionalization in England, German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pp. 9-36). Stuttgart: Klett-Cotta.
- Maclean, R. (2007, April 17-19). *Vocational and higher education: Issues, concerns and prospects*. [Paper Presentation]. In Fourth International Congress. Quality Management in the Systems of Education and Training. Casablanca, Morocco.
- Marks, A. (1999). Really useful knowledge: The new vocationalism in higher education and its consequences for mature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7(2), 157-169.
- Mordhorst, L., & Jenert, T. (2023). Curricular integration of academic and vocational education: a theory-based empirical typology of dual study programmes in Germany. *Higher Education*, 85, 1257-1279.

- OECD. (1998). *Redefining Tertiary Education*.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0). *Learning for Job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2). *Pathways to Professions: Understanding Higher Vocational and Professional Tertiary Education System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3). *Spotlight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ndings from Education at a Glance 2023*.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5). *Education at a Glance 2025*. Paris: OECD Publishing.
- Trow, M. (1970). Reflections on the transition from mass to universal higher education. *Daedalus*, 1-42.
- Trow, M. (1973).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CA: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 Wolter, A., & Kerst, C. (2015). The 'Academization' of the German Qualification System: Recent Development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Vocational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 in Germany. *Research in Comparative & International Education*, 10(4), 510-524.

〈웹 사이트〉

도쿄농업대학 홈페이지(n.d.)

https://www.tuat.ac.jp/admission/nyushi_gakubu/youkou/ (검색일: 2025. 4. 1.)

문부과학성(n.d.). 2018년 대학 입학자 선발 실시 요강에 대하여.

https://www.mext.go.jp/content/20200624-mxt_daigakuc02-100001251_1.pdf (검색일: 2025. 4. 21.)

이와테현립대학 홈페이지(n.d.)

https://www.iwate-pu.ac.jp/examination/exam_detailedinfo.html
(검색일: 2025. 4. 1.)

일학습병행 홈페이지(n.d.).

<https://pdms.ncs.go.kr/cmnm/com/content/incumType.do>
(검색일: 2025. 10. 30.)

학교알리미 홈페이지(n.d.)

<https://www.schoolinfo.go.kr> (검색일: 2025. 12. 30.)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2024). Bildung in Deutschland 2024. Bielefeld.

<https://www.bildungsbericht.de/de/bildungsberichte-seit-2006/bildungsbericht-2024/pdf-dateien-2024/bildungsbericht-2024.pdf>
(검색일: 2025. 4. 23.)

Bildung Köln(n.d.). Schulpflicht.

<http://www.bildung.koeln.de/schule/schullaufbahn/schulpflicht/>
(검색일: 2025. 4. 23.)

ITE(n.d.). Admissions-Certification System.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https://www.ite.edu.sg/admissions/certification-system>
(검색일: 2025. 4. 21.)

Karrierebibel(n.d.) Hochschulreife: Mehr als Abitur, Bedeutung & Unterschiede.

<https://karrierebibel.de/hochschulreife/#Die-drei-Arten-der-Hoc>

hschulreife (검색일: 2025. 4. 23.)

KMK(n.d.-a). Vollzeitschulische Ausbildung an Berufsfachschulen.

<https://www.kmk.org/themen/berufliche-schulen/schulische-berufsausbildung.html> (검색일: 2025. 4. 23.)

KMK(n.d.-b). Hochschulreife über berufliche Bildungsgänge.

<https://www.kmk.org/themen/berufliche-schulen/hochschulzugang-ueber-berufliche-bildung.html> (검색일: 2025. 4. 23.)

K-MOOC 홈페이지(n.d.)

<https://www.k-mooc.kr> (검색일: 2025. 12. 30.)

MEXT(n.d.-a). Principles Guide Japan's Educational System.

<https://warp.ndl.go.jp/info:ndljp/pid/11293659/www.mext.go.jp/en/policy/education/overview/index.htm> (검색일: 2025. 4. 22.)

MEXT(n.d.-b). 高等学校卒業者の学科別進路状況(고등학교 진로별 학과 상황).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hinkou/genjyo/021203.htm (검색일: 2025. 4. 22.)

MEXT(n.d.-c). 大学入学資格について (대학 입학 자격에 대해).

https://www.mext.go.jp/a_menu/koutou/shikaku/07111314.htm
(검색일: 2025. 4. 22.)

MOE(n.d.-a). Secondary school experience under Full SBB.

<https://www.moe.gov.sg/microsites/psle-fsbb/full-subject-based-banding/secondary-school-experience.html> (검색일: 2025. 4. 21.)

MOE(n.d.-b). Polytechnic Early Admissions Exercise (Poly EAE).

<https://www.moe.gov.sg/post-secondary/admissions/poly-eae>
(검색일: 2025. 4. 21.)

MOE(2023). ITE to polytechnic admission requirements.

- <https://www.moe.gov.sg/news/parliamentary-replies/20230803-ite-to-polytechnic-admission-requirements> (검색일: 2025. 4. 21.)
- MOE(2024a). Education Statistics Digest 2024.
<https://www.moe.gov.sg/-/media/files/about-us/education-statistics-digest-2024.pdf> (검색일: 2025. 4. 21.)
- MOE(2024b). Infosheet 1: ITE Progression Award [Press Release].
<https://www.moe.gov.sg/news/press-releases/20240304-infosheet-1-ite-progression-award> (검색일: 2025. 4. 21.)
- NTU(n.d.). Diploma awarded by a Polytechnic or equivalent institution in Singapore.
<https://www.ntu.edu.sg/admissions/undergraduate/admission-guide/diploma-awarded-by-a-polytechnic-or-equivalent-institution-in-singapore> (검색일: 2025. 4. 21.)
- NUS(n.d.). Polytechnic Diploma from Singapore: Admission Requirements.
<https://nus.edu.sg/oam/admissions/polytechnic-diploma-from-singapore/admission-requirements> (검색일: 2025. 4. 21.)

부 록

1. 설문조사지

〈부록 1〉 설문조사지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우리 기관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라는 제목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해당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동기와 교육 경험, 정책 지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 시간은 약 15분 내외로 예상되며, 각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 9.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조사 기간: 2025. 9. 10. ~ 9. 23. (2주간)

〈 응답자 판별 문항 〉

- 귀하의 졸업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특성화고 ② 마이스터고 ③ 그 외 고교 유형 (→ 응답 종료)
- 귀하는 현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습니까? ※ 휴학 상태도 포함
 ① 대학교(4~6년제) 재학 중 ② 전문대학(2~4년제) 재학 중
 ③ 재학 중 아님 (→ 응답 종료)

244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3. 귀하의 대학 진학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일학습병행 등 선취업 후진학(재직자 상태에서 진학)
- ② 일반적인 수시/정시 모집을 통한 진학(특성화고 동일 계열 특별전형, 기회균등 특별전형 등)

→ ①은 A, B, C, D 섹션 응답, ②는 A, B, E, F 섹션 응답

A. 인구통계학적 정보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A2. 귀하가 졸업한 고등학교 학교명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A3. 귀하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전공 학과명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A4. 귀하의 고등학교 졸업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년 ()월

A5.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까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 아르바이트 형태가 아닌 공식적으로 취업한 경험을 의미함

- ① 있음 (A5-1로 이동) ② 없음(A6으로 이동)

A5-1.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총 몇 개입니까? ()개

A5-2.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는 회사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재직 기간에 '입사 연도/월 ~ 2025년 9월'로 입력

※ 아르바이트 경험을 제외하고 입력

직장 구분	재직 기간	회사 소재지		기업 유형	고등학교 전공과 관련성
		시도	시군구		
첫 번째 직장	()년 ()월 ~ ()년 ()월	① 서울 ... ⑰ 제주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중견기업 ③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④ 기타	5점 척도
두 번째 직장	...				

A6.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명과 지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A7. 귀하의 대학교 전공명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A8.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은 언제 입학하하셨습니까?

()년 ()월

A9. 귀하는 현재(2025학년도 2학기) 대학교 몇 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까?

- ① 1학년(현재까지 다닌 학기가 총 1~2학기)
- ② 2학년(현재까지 다닌 학기가 총 3~4학기)
- ③ 3학년(현재까지 다닌 학기가 총 5~6학기)
- ④ 4학년 이상(현재까지 다닌 학기가 총 7학기 이상)

B.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 배경과 진로

B1. 귀하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입학을 결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중학교 3학년 2학기 ② 중학교 3학년 1학기
- ③ 중학교 2학년 시기 ④ 중학교 1학년 시기
- ⑤ 중학교 1학년 이전

- ① 해당 학과가 나의 적성에 맞으리라 생각되어서
- ② 해당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에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 ③ 해당 학과가 나에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주변의 추천이 있어서
- ④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될 것 같아서
- ⑤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대학 진학이 잘될 것 같아서
- ⑥ 기타: ()

B6. 귀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공 학과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 ① 인터넷 게시물
- ② 유튜브 등 관련 동영상
- ③ 중3 담임 선생님 또는 진로상담 선생님
- ④ 부모님 또는 주변 지인
- 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홍보를 나온 선생님 또는 선배
- ⑥ 기타: ()

B7. 귀하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 당시 생각했던 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또는 취업을 먼저 한 후 대학 진학)
-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 ③ 뚜렷하게 염두에 둔 진로는 없었음
- ④ 기타: ()

B8. 귀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 후 선택한 전공이 적성에 맞다고 느끼셨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B9. 귀하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재학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준비했던 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고등학교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취업 이후의 대학 진학을 생각한 것까지 포함)
- ② 고등학교 전공과 다른 분야로 취업(취업 이후의 대학 진학을 생각한 것까지 포함)
- ③ 고등학교 전공과 관련된 학과로 대학 진학
- ④ 고등학교 전공과 다른 학과로 대학 진학
- ⑤ 뚜렷하게 결정하지 못했음
- ⑥ 기타: ()

248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B10. 귀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 도중 아래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활동이 적성과 진로 파악에 도움이 된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참여 경험	적성과 진로 파악에 도움이 된 정도 (참여 경험 있을 경우에만 응답)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전공 관련 이론 수업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전공 관련 실습수업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동아리 활동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자격증 취득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기업체 탐방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장실습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해외 연수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취업 특강(선배 또는 종사자 등)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의 진로상담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취업 준비를 위한 방과 후 수업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진학 준비를 위한 방과 후 수업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⑤

B11. 귀하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 중 학교 내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항목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1)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보통 교과	①	②	③	④	⑤
2) 전공 관련 기초/실무 과목 등 전문 교과	①	②	③	④	⑤

B12. 귀하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절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한다				
1) 중학교 시절 학교생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시절 학교생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C. 대학 진학 경험

C1. 귀하가 대학 진학을 결심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전
- ② 취업 후 1년 차
- ③ 취업 후 2년 차
- ④ 취업 후 3년 차
- ⑤ 취업 후 4년 차 이상

C2. 귀하가 대학에 입학한 전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일반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 ② 일학습병행 또는 계약학과(소속 기업에서 정해진 대학으로 입학)
- ③ 그 외 전형

C3. 귀하가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최대 3순위까지 복수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학위 취득 후 동일 업계의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고 싶어서
- ② 현재 회사에서 대졸 수준 직무나 직급으로 변경하고 싶어서
- ③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쌓고 싶어서

- ④ 현재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분야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 ⑤ 장기적으로는 대졸 학위가 필요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있어서
- ⑥ 주변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 ⑦ 현재 회사에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 ⑧ 사회에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여서
- ⑨ 결혼 등 가정을 꾸리기 위해 대졸 학위가 필요하고 생각되어서
- ⑩ 기타: ()

C4. 귀하의 대학 진학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본인 ② 부모님/친인척
③ 고등학교 선생님 ④ 친구 또는 선배
⑤ 직장 상사/동료 ⑥ 기타: ()

C5. 귀하의 대학 진학 준비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본인 ② 부모님/친인척
③ 고등학교 선생님 ④ 친구 또는 선배
⑤ 직장 상사/동료 ⑥ 기타: ()

C6. 귀하는 ‘대학’과 ‘전공’ 중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셨습니까?

- ① 희망하는 대학을 먼저 선택 → 대학 안에 있는 학과 선택
② 희망하는 전공을 먼저 선택 → 해당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 선택

C7.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최대 3순위까지 복수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대학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서
- ② 대학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예: 통학 거리, 접근성)
- ③ 대학에서 회사와 학업을 병행하도록 지원해 주어서(예: 야간수업 개설 등)
- ④ 회사와 협약이 체결된 대학이어서
- ⑤ 대학에 개설된 전공 학과가 마음에 들어서
- ⑥ 주변 선배/동료/지인 등의 추천이 있어서
- ⑦ 고등학교 시절 성적 등을 고려해서
- ⑧ 기타: ()

C8.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해당 학과와 관련된 일자리 전망이 좋아서
- ② 현재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 ③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공부해 보고 싶어서
- ④ 회사와 협약이 체결된 학과여서
- ⑤ 대학 내 재직자 전형으로 개설된 유일한 전공이어서
- ⑥ 주변 선배/동료/지인 등의 추천이 있어서
- ⑦ 기타: ()

C9. 귀하는 대학에서 선택한 전공이 적성에 맞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C10. 귀하의 대학 입학에 아래 항목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영향력이 매우 낮았다 ~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				
1) 국어, 영어, 수학 등 보통 교과 성적	①	②	③	④	⑤
2) 고등학교 시기 전공과 관련된 전문 교과 성적	①	②	③	④	⑤
3) 고등학교 시기 동아리 활동, 수상 경험, 자격증 취득 등 비교과 활동 경험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생활기록부의 전반적인 기재 내용 (예: 교과학습발달상황, 출결상황 등)	①	②	③	④	⑤
5) 고등학교 졸업 이후 쌓은 일 경험과 실무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252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C11. 귀하의 현재 대학 생활에 아래 항목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영향력이 매우 낮았다 ~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				
1)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보통 교과 관련 기초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고등학교 시기 전공 수업에서 배운 전문 교과 기초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고등학교 시기 전공 수업에서 배운 실험·실습 수행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시기 동아리 활동, 수상 경험, 자격증 취득 등 비교과 활동 경험	①	②	③	④	⑤
5) 취업 후 쌓은 일 경험과 실무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C12. 귀하가 취업 경험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한 것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업무에서 경험한 내용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이해도가 높음
- ② 취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후의 취업 고민이 상대적으로 낮음
- ③ 일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학위 취득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 ④ 재직자를 위한 별도 입학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 ⑤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음
- ⑥ 기타: ()

C13. 아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대학 전공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관련 최신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소양(예: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잘 연계된다.	①	②	③	④	⑤

D. 정책 지원 요구도

D1.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재직자 상태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매우 필요하다				
1) 취업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학 정보 제공과 입학 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대학 입학 전형에서 직무 경험, 기술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인정과 평가	①	②	③	④	⑤
3) 재직자가 입학할 수 있는 학과를 다양하게 증설	①	②	③	④	⑤
4) 대학 입학 전 수학, 과학 등 기초 학문에 대한 학습 공백 지원(예: 사전 특강, 온라인 강좌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6) 재직 중인 학습자들을 위한 맞춤형 비교과 활동 지원 확대(예: 온라인 멘토링, 경력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7) 전공과 관련된 직무 경험,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학점 인정 제도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8) 재직 중인 학습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9) 기업의 학습휴가 제도를 통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마련	①	②	③	④	⑤

D2. 이 밖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재직자 상태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경우에만 응답)

E. 대학 진학

E1. 귀하는 언제부터 대학 진학을 준비하하셨습니까?

- ① 졸업 이후에 준비 (E1-1로 이동)
- ②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E1-2로 이동)
- ③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E1-2로 이동)
- ④ 고등학교 2학년 시기 (E1-2로 이동)
- ⑤ 고등학교 1학년 시기 (E1-2로 이동)

E1-1. 귀하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최대 3순위까지 복수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졸업 후 일시적으로 취업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② 졸업 후 일시적으로 취업했으나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느껴서
- ③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 채 졸업하여서
- ④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 ⑤ 군 복무 후 취업을 위해 다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 ⑥ 대학 진학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있어서
- ⑦ 뚜렷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대안적 경로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
- ⑧ 기타: ()

E1-2. 귀하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최대 3순위까지 복수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고등학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 ② 고등학교 전공과 관련 있는 공부를 더 해 보고 싶어서
- ③ 고등학교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 ④ 고졸로 취업하기에는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취업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 ⑥ 고졸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이 좋을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있어서
- ⑦ 졸업 전 취업 시도를 해 보았으나 생각보다 잘되지 않아서
- ⑧ 기타: ()

256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E2. 귀하의 대학 입학 전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수시 모집 ② 정시 모집

E3. 귀하의 대학 입학 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었습니까?

- ① 그렇다(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입학함)
② 아니다(일반고 학생들도 함께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입학함)

E4. 귀하의 대학 진학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본인 ② 부모님/친인척
③ 고등학교 선생님 ④ 친구 또는 선배
⑤ 기타: ()

E5. 귀하의 대학 진학 준비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본인 ② 부모님/친인척
③ 고등학교 선생님 ④ 친구 또는 선배
⑤ 학원 선생님 ⑥ 기타: ()

E6. 귀하는 '대학'과 '전공' 중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셨습니까?

- ① 희망하는 대학을 먼저 선택 → 대학 안에 있는 학과 선택
② 희망하는 전공을 먼저 선택 → 해당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 선택

E7.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최대 3순위까지 복수응답 가능)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대학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서
② 대학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예: 통학 거리, 접근성)
③ 대학의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이 있어서
④ 고등학교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을 고려해서
⑤ 대학에 개설된 전공 학과가 마음에 들어서
⑥ 대학의 전반적인 취업률을 고려해서
⑦ 주변 부모님/선생님/선배 등의 추천이 있어서
⑧ 기타: ()

258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E11. 귀하의 현재 대학 생활에 아래 항목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영향력이 매우 낮았다 ~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				
1)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보통 교과 관련 기초 지식	①	②	③	④	⑤
2) 고등학교 시기 전공 수업에서 배운 전문 교과 기초 지식	①	②	③	④	⑤
3) 고등학교 시기 전공 수업에서 배운 실험·실습 수행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시기 동아리 활동, 수상 경험, 자격증 취득 등 비교과 활동 경험	①	②	③	④	⑤

E12. 귀하가 일반고가 아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대학에 진학했을 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전공과 동일 계열 진학 시 관련 수업의 이해도가 높음
- ② 고등학교 때 배운 실습이나 기술적 내용을 이론으로 확장 가능함
- ③ 실험·실습 경험 등이 바탕이 되어 또래보다 과제/프로젝트 수행에 능숙함
- ④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등 직간접적 취업 준비 경험이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됨
- ⑤ 기타: ()

E13. 아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대학 전공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의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관련 최신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소양(예: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잘 연계된다.	①	②	③	④	⑤

F. 정책적 지원

F1.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 취업 이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학 정보 제공과 입학 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에 대한 대학 과목 사전 이수 제도 마련 (대학 과목에 대한 사전 경험을 통한 전공 선택)	①	②	③	④	⑤
3)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전문 교과(전공과목) 성적, 대회 수상, 자격증 취득 등의 경험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입시 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4) 대학 입학 전 수학, 과학 등 기초 학문에 대한 학습 공백 지원(예: 사전 특강, 온라인 강좌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고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타 전공 수업 이수 또는 전과 제도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6)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취업/진학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졸업 이후의 소속 기관을 제공하여 진로 준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고등학교 전공과 연계된 대학 전공과 고졸/대졸 이후의 취업 및 진로 경로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8) 고교 단계 유사 전공과목 이수 경험, 관련 기술 자격증 취득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①	②	③	④	⑤

F2. 이 밖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대학 진학 경로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경우에만 응답)

□ 저자 약력

- 김남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이수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류지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훈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박미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임해경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선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위원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 발행연월일 2025년 12월 31일 인쇄
 2025년 12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고 혜 원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424-0818-2 93370
- 인 쇄 처 (주)정인애드 (02) 3486-6791

www.krivet.re.kr



값 8,000원

9 3 3 7 0



9 79 11 42 40 81 82

ISBN 979-11-424-0818-2